



나혜석

제1회 나혜석 학술대회

연구의 쟁점과 과제



2012.

11.17 SAT 13:30 ~ 18:00

수원화성박물관 영상교육실

주최  수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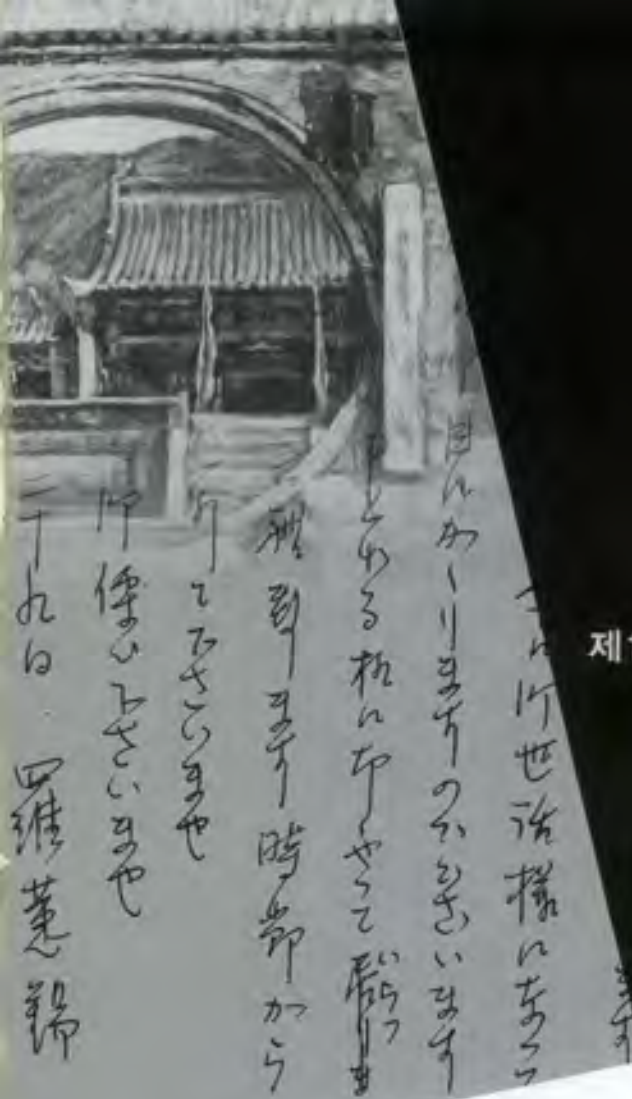
주관  수원박물관 · 나혜석학회

여성
미술 문학

나혜석

연구의 쟁점과 과제

제1회 나혜석 학술대회



2012.

11.17 SAT 13:30 ~ 18:00

수원화성박물관 영상교육실

주최  수원시

주관  수원박물관 · 나혜석학회

시간계획

• 일 시 2012. 11. 17(토) 13:30 ~ 18:00

• 장 소 수원화성박물관 영상교육실

행사시간	소요 (분)	내용	비고
13:30 ~ 13:40	10	개회사 및 내빈소개	사회자
13:40 ~ 13:45	5	축 사	수원시장, 나혜석 학회장
13:50 ~ 14:10	20	제1발표	김복순(명지대학교 교수)
14:10 ~ 14:20	10	제1토론	김양선(한림대학교 교수)
14:30 ~ 14:50	20	제2발표	윤범모(가천대학교 교수)
14:50 ~ 15:00	10	제2토론	박계리(미술평론가)
15:10 ~ 15:30	20	제3발표	김경일(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15:30 ~ 15:40	10	제3토론	이상경(한국과학기술원 교수)
15:40 ~ 16:10	30	휴 식	
16:10 ~ 16:30	20	제4발표	김형묵(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원)
16:30 ~ 16:40	10	제4토론	박 환(수원대학교 교수)
16:50 ~ 17:10	20	제5발표	浦川 豊久惠(구마모토대학교 강사)
17:10 ~ 17:20	10	제5토론	김화영(수원과학대학교 교수)
17:20 ~ 17:25	5	폐 회 사	사회자

목 차

이선옥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제1발표 '조선적 특수'의 제 방법과 아나카 페미니즘의 신여성 계보 09
- 나혜석의 경우 - 김복순 (명지대학교 교수)

제1토론 43
 김양선 (한림대학교 교수)

제2발표 나혜석 미술세계의 연구와 과제 47
윤범모 (가천대학교 교수)

제2토론 69 박계리 (미술평론가)

제3발표 차이와 구별로서의 신여성 - 나혜석의 사례를 중심으로 73
김경일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제3토론 101
 이상경(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제4발표 나혜석, 민족운동사에서 연구 동향과 과제 105
김형목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제4토론 129
박 환 (수원대학교 교수)

제5발표 나혜석의 사회의식과 언론의 방향성 135
 浦川 登久惠 (구마모토대 감사)

제5토론 167
김희영 (수원과학대학교 교수)

제1발표

‘조선적 특수’의 제 방법과 아나카 페미니즘의 신여성 계보

— 나혜석의 경우 —

김복순(명지대학교 교수)



‘조선적 특수’의 제 방법과 아나카 페미니즘의 신여성 계보 - 나혜석의 경우 -

김복순(영지대학교 교수)

- I. 새로운 보편담론에의 충동과 인식장치로서의 젠더
- II. ‘조선적 특수’의 제 방법과 근대 ‘여성지(知)’의 연관
 - I. ‘인간·인류·보편성’에서 ‘여성=특수성’으로
 - 2. 개인주의적 아나카 페미니즘 계보의 창출
 - 3. ‘파트너십’의 사회적 형상화
- III. 남은 과제들

I. 새로운 보편담론에의 충동과 인식장치로서의 젠더

주지하다시피 191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사상계에는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새로운 흐름의 주역은 일본 등지에 유학하여 신지식, 신사상을 흡수하고 돌아온 신지식층들로서, 그중 특히 ‘비판적 신지식층’들은 정치·경제·문화·교육계 등 여러 방면에서 민족

적 대응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전까지의 서구적 운동의 방법론이었던 질적양상은 및 그 토대인 사회진화론에 수장을 가하면서 민족해방에 대한 현실 대응방식으로서 다양한 모색을 꾀하고 있었다.¹⁾

제1차 세계대전은 서구 근대 문명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을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동등·선의의 동식에 균열이 가해지면서 서구 문명의 사상의 토대였던 사회진화론이 반론되기 시작했으며, 식량인의 복력성 및 참혹성²⁾이 고발되었다. 이광수는 '구주대전란이 현대문명의 결함을 폭로했다'고 주장하였으며,³⁾ 서훈도 대전이 '장기화 하고 영국 등이 국가주의로 가우는 상함을 지켜보면서 서구 열강을 냉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⁴⁾ 제1차 대전 후 서구는 비로소 우리의 마주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지되었다. 1900년대까지는 우리가 가야 할 '전제'로, 먼 '시간 지리학'으로 위치되었다면, 제1차 대전 이후에는 '너도 밥 먹고 똥 싸며 우리도 밥 먹고 똥 산다. 너희가 문명하면 우리도 문명할 수 있다'고 토로한다. '방식은 다르나 인정은 같'은 것으로 '참혹성을 지닌 서양'으로 인지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 혁명이 끝난 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서구와 식민지 조선의 '동등성과 차이'가 동시에 인지되면서, 국내에서는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전혀 다른 성격의 집단들이 '민족'을 최고의 당면과제로 삼는 '민족의 발전'이 이루어지고,⁵⁾ 새로운 보편담론에 의 충동으로 다양한 방법론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제국 사이에 긴' 식민지 조선은 '괴물제

1) 김복은 『1910년대 한국문화와 근대성』, 소명출판, 1998/07-88면.

2) 다케치, 『구미가장기』, 307면. 이 글은 구미 만유간에 모든 다문화적 반동, 종족, 야만인을 포함한다. 스페인에 이르는 길인데 길일을 적은 글이다. 전체적으로 낯선 미국 문화에 대해 다른문화 시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서구 문화를 반박적으로 모방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일본 상류계 문화 출세대기), 특히 스페인에 투구 문화에 대해서는 '서양인의 참혹성'이라면서 '거기 막힌다'고 일갈한다. 1903년의 『부처 간의 문답』에서도 러시아 가넷의 가부장적 문화에 대해 비면적으로 평가하는 장면이 나온다(이성철 편, 『다문화 전집』, 태학사, 2000, 64면). 이하 인용은 글 재목과 이 책의 번수만 적기로 한다.

3) 이광수, 『우리의 이상』, 『학지평』 14, 1917.2

4) 서훈, 『구주대전란에 대한 9대 의문』, 『학지평』 14, 1917.2

5) 김현, 『서양 사람이 조선 사람 사진 찍는 것을 보고서』, 『개벽』 76호, 1903.3, 10면

6) 『프랑스 사람은 얼마나 자랑스러』, 307면

7) 『구미 가장기』, 307면

8) 김복은, 『1910년대 한국문화와 근대성』, 『태학사』, 2000, 88면

국주의'와 자본주의의 병폐에 대항해 세계질서를 개편하려고 하였다. 민족주의만이 유일한 대응책이라 판단하지 않고, 제국주의에 대해 다양하게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전 시대를 개조하여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정의, 인도, 평화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개조론으로 통칭되는 사상적 움직임은 자본주의를 정당화 하고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논리로 기능하였던 사회진화론을 비판하고 정의·인도·자유·박애·평등을 표방하였다. 게다가 원슨의 민족자결주의 또한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학지광』으로 대표되는 식민지 조선의 비판적 신지식인들은 제1차 대전의 '원인'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원칙에 있다고 보았다. "구주 열강은 일설 총포에 염연히 그 평소의 주장을 찍기하고 어젯날 평화의 무대를 일욕의 혈과로 변하여 역사상 미증유의 참살을 연출"한다고 강조하면서, "약육강식과 우생열패하는 20세기의 특색한 현상"이라 역설하였다. 주종건도 오인의 종족이 멸망함을 방관할 수 없는 바, 조선의 청년들은 빈사상태에 빠진 형제들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세상에는 약자도 있고 그 존재가치 또한 있다고 함으로써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원칙을 부정하였다.¹⁰⁾ 또 장응진은 제1차 대전이 사회진화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¹¹⁾ 신종석도 제1차대전으로 식민지 조선이 사회개조론을 받아들일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비판적 신지식인들은 "저승이 옮겨 온 듯한 대전쟁"¹²⁾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갑자기 약자를 지배하는 사회질서

● 코보쿠 슈스이(小堀秀史), 『20세기의 괴물제국주의』, 190), 『일본의 역사』, 44, 중앙공론사, 1970. 『일본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보색이 있었으며, 코보쿠 슈스이는 사회주의자로서 치밀한 제국주의 분석서를 쏟아내었다. 코보쿠 슈스이는 1910년 5월 전쟁참살사건에 휘말려 처형되는데, 1910년은 『사하라바(白樺)』와 『세이브(海軍)』가 탄생한 해이다. 『코보쿠사건』 사건으로 우리가 백화와 시대라 하고 있던 1910년대는 '제국시대'라고도 부른다. 주정부주의와 및 사회주의자를 포함함으로써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은 천재기를 겪으며, 정치 주체로서는 민족주의를 표방했지만 '민중'의 주체 의 문제는 불문으로 하였던 시기였다. 따라서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열린' 시대라 하기 여의를 많이 많다. 당대의 일본 유학생들은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잘못 '전유'하고 있다고 판단한다(정경호, 유학생들의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전유' 여부).

10) 원아은, '충전하는 용사 계급에게', 『학지광』, 6호, 1915.7, 28-29면

11) 주종건, '신년을 맞이하여 유학생 계급에게 도환', 『학지광』, 6호, 1915.2, 29-30면

12) 장응진, '신사대를 회상', 『서광』, 1호, 1919.11

13) 조상호, 『노동연농론』, 『공예』, 1호, 1920. 10면

의 세계질서를 개조해야 한다는 사회개조론¹⁴⁾을 주장하였다. 여기에 당시 “세계를 뒤흔튼 사건”으로 기록된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은 ‘우승열매’ ‘적자생존’이 아닌 ‘상호부조’를 진화(보)의 한 축¹⁵⁾으로 보면서, 아나키즘에 ‘윤리적 원리’를 제공¹⁶⁾하였다. 이 세 토대에 민족해방이라는 민족문제는 윤리문제로까지 개념화 되어 조직과 이론이 체계화 된다.

주지하다시피 세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때는 인식장치가 동원된다. 세계인식 장치는 민족, 국가, 우주, 계급, 안부, 개인, 젠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당시의 비판적 신지식인들은 다양한 범주로 새로운 보편담론에의 충동을 전파하려 하였다. 본고에서는 여러 범주 중 특히 ‘젠더’ 범주에 주목하려 한다. ‘젠더’ 범주는 ‘근대성의 특수성’에 해당하는 만큼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측면이 많다. 하지만 젠더 범주는 역사인식, 세계관, 사유방식을 비롯해 좁게는 정쟁인식 등의 차이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소설과 관련하여 볼 때에도 틀림, 시점을 비롯한 외적 형식 및 구원의 방식, 리얼리티 문제, 정체성 찾기 방식, 영웅의식, 반공주의 인식, 문체, 장르의 선택 등을 규정하는 내적 형식에도 깊이 관여한다고 언급¹⁷⁾된 바 있다.

연구대상이 여성일 때는 특히 ‘젠더’ 범주의 유효성이 커진다. 본고에서 검토하려는 나혜석은 기존 연구에서 ‘회화’ ‘파격’ ‘불굴’ 등으로 주로 언급되었지 사상가로 연구되지는 못하였다(정철; 예술기/사상가 여부). 페미니즘과 관련하여서도 모성론, 창조론 등이 사상의 측면에서 폭넓게 고찰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나혜석은 1910년대 ‘여성-비판적 신지식층’으로서, 소설, 시 뿐만 아니라 그림, 만화, 산문, 명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자신의 사상을 펼쳐 보이고 있다. 특히 아혼 사건 및 경조 유린 제소로 시민지 조현을 발각 뒤집어 놓은 강본인이라는 권

14) 당시의 사회개조론은 청신개조를 위한 사회개조와 제도개조에 의한 사회개조원으로 나뉘며, 이는 다시 제도 개조 전제의 청신 개조와 청신개조가 사회개조의 목적이자 되는 주장으로 분라된다. 제도 개조를 위한 청신개조으로서의 청신 개조 주장은 다시 제도 대입에 따라 둘로 나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효룡, 『한국의 아나키즘』, 적의당출판, 64-70면 참조.

15) 크로포트킨은 ‘상호부조’와 ‘개인의 자기 구강’을 진화의 두 요인으로 꼽는다. 하승준, 『상호부조론』, 그람미, 2006, 2012, 162면.

16) 하승준, 『상호부조론』, 그람미, 2006, 2012, 104면.

17) 장석훈,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소명출판 2010, 참조.

에서 여성 필본 유학생-비판적 진지진인-나혜석이 여성의 입장에서 당대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예술적 지향을 꿈꾸었나, 그 구체적 내용 및 방법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 그 '여성'으로서 비림받고 사회적·문화적 예술적 장에서 '자위졌다'는 점에서, 나혜석이 근대성을 어떻게 모색했는지를 검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인류, 세계, 민족, 국가, 여성 등의 범주가 어떤 연관을 가지며 근대 '지'의 편성에 개입하는지, 당대의 지식인들이 어떤 공통지명을 발견하면서 다른 방법론을 모색하는지, 남/여 지식인의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류-인간-세계라는 보편성과, 권력, 계급 등의 범주가 어떻게 조우하는지 그 조우 방식도 검토해 볼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세계와 조선을 '읽고 사고하는 방법', 즉 보편담론의 '패면'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수의 근대성을 기획하는, 즉 기존의 보편담론을 '거부'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궁극적으로는 근대-여성-지의 재편 과제를 고찰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한다.

II. '조선적 특수'의 제 방법과 근대 '여성지(知)'의 연관

1. '인간·인류·보편성'에서 '여성·특수성'으로

새로운 보편담론의 형성 움직임과 관련하여 나혜석은 '인간·인류' / '민족, 국가, 계급, 우주, 문화', '여성' / '노동자, 농민', 즉 뒤의 범주가 아닌 앞의 범주를 선택한다. 식민지 조선의 남성들이 주로 민족, 국가, 계급 범주 등을 선택한 반면 나혜석은 인간, 인류를 선택했고, 또 노동자·농민보다 여성을 선택하였다. 여러 문건에서 구주대천 후의 시급한 문제로 노동문제를 중요하게 인식¹⁸⁾하고 있음에도 나혜석은 노동자·농민의 계급 범주보다 이

18) "30대(1910) 중경관 운동의 발전지, 대조선 노동문제를 제1의 중요시 하미(1909년), '우리 한겨레를 위해서 구주 대천 후의 11대 문제로 부민문제, 노동문제, 농민문제, 종교문제, 민족문제, 인권문제, 양자(1911년)'

성 즉 젠더 범주를 우선성¹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위의 구도에서 나혜석이 민족, 국가, 계급보다 인간-인류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이라는 '근대성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과 '동등성/차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졌던 때문으로 판단된다.

개인이 사람 같은 사람이 되고 일국의 분명이 있는 것을 압니다.²⁰⁾

우리도 남과 같이 사람다운 여자가 되고 남의 일을 만만함을 알게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 할 줄 알게.... 우리 조선 여자로 인제는 그만 사람같이 좀 돼 봐야만 한 것 아니요?²¹⁾

조선 여자로 사람이 될 욕심을 가져야겠소.²²⁾

나는 할 일이 많았다. 조선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고 조선 여자는 이리 해야만 하겠다는 것을....²³⁾

내가 사람의 도(道)가 될 자격이 있을까?²⁴⁾

나는 어떤 사회의 인사(人事)를 염두하고, 그 '사람'의 본능성은 인간이라 생각함.

19) 범주 우선성이란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범주와 부차적으로 작용하는 범주를 함께 검토하는 방법이다. 범주란 어떤 대상을 설명, 분석하는 '방법'인데 구체적인 사회 현실은 민족·계급·젠더 등의 특정 범주 하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범주 중심성은 온당한 '방법'이 되기 어렵다. 범주 우선성이란 여러 범주 가운데 특정 범주가 우선적 가치체계 또는 우선적 담론체제로 군림하며 작용하는 것을 뜻한다. 범주 우선성 개념을 도입할 경우 어떤 범주도 배제되지 않는 가운데 핵심 범주를 밝힐 수 있으며, 특정 범주 또한 고정화 된 것이 아니고 유동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자세한 것은 김복순, 「범주 우선성과 직결하여 생각지 시기 조선」, 『실학박보』 권141, 2008, 참조.

20) 『장담』, 186면. 이와 발음은 발음이 하였음을 밝힌다.

21) 위의 글, 187면.

22) 『장담』, 198면.

23) 『모든 장담』, 237면.

24) 『모든 장담』, 234면. 개미·까마·사람 이 명제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다.....(중략).....출명한 자면 각인수족 자기의 그 스예의 생활, 비인도적 생활에서 약혼하여 다른 사람과 같은 사람다운 생활을 해 보려는 이상이 있고 실행을 하려 든다.”

나혜석은 여성의 '사람 되기'를, 식민지 조선에서의 억압-해방 문제의 하나로 인식하였다. 식민지 조선의 여성도 구미의 여성들처럼 '사람답게' 인식되고 대우받아야겠다는 것이다. 조선 여성들이 노예상태, 가부장제, 양치현모주의, 모성신화에서 벗어나려면 여성들도 자신들의 시대적 위치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이장관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쟁점: 현모양처론 주용 여부, 현모양처론의 보수성/진보성 여부).

이는 구미, 일본, 조선 여성들의 '동등성' 및 '차이'에 대해 인식하면서 단순 보방, 추종이 아니라 '조선적' 특성'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나혜석에게 서양 사상 및 문명, 문화는 일방적으로 '좋은 것'으로 이해되지 않았다(쟁점: 서구 문명 추구 여부). 최초의 글인 「이상적 부인」에서부터 그러한 태도는 출몰 견지되어 있다. '혁신으로 이상을 삼은 카츄사, 이기로 이상을 삼은 막다, 眞의 연애로 이상을 삼은 노라 부인, 종교적 평등주의로 이상을 삼은 스토우 부인, 천재적으로 이상을 삼은 라이조 여사, 원만한 가정의 이상을 가진 요사노 여사' 등을 이상적 부인의 예로 열거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숭배'한다고만 보았다. 서양에서 말하는 이상은 '욕망의 사상'이고, '감정적 이상'이기 때문이다.

또 「회화와 조선여자」에서는 조선 여자에게도 '외국 여자의 능히 따르지 못할 특점'이 있다고 강조한다(308면). 김원주의 「부인 의복 개량에 대하여」에 대한 반론의 글인 「김원주 형의 의견에 대하여」에서도 "일부러 조선적인 특색 있는 모양을 모두 뜯어 고치어 서양 옷 비슷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210면)라고 반문한다(쟁점: 김원주와 나혜석의 사상적 차이 여부).

이러한 태도는 그림과 관련하여서도 언급된다.

우리는 벌써 서양류의 그림을 흉내낼 때가 마나요, 다만 서양의 화구와 필을 사용하되 서양의 화포를 사용하므로 우리는 이미 그 보범이라든지 용구에 대한 선택

(註) 「장미와의 만남에 대하여」, 301면

이 있는 동시에 향토라든지 국민성을 통한 개성의 표현은 수반한 서양의 문과 만
드시 일라이 할 조선 특수성 표현력을 가지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조선비문
선반화를 구경하고』, 『1년만에 본 경성의 삼각』, 2890면)

『천후궁』을 그리게 된 배경도 ‘천후궁을 받는다’는 민간신앙에 대하여 배후되어 ‘중국’
‘해설’의 진이(眞異)라는 대역(『미친 줄품 제라 중에』, 285면)을 가급하게 본 것이고, 『지나
걸』 역시 ‘지나 기분이 증만하여 일’어 더욱이 흥미를 끌게 되었다고 그 동거를 언급하고 있
다(287면). 『봉황성의 남문』도 ‘지나 기분이 반쯤 출현된 듯하다’고 말하면서 ‘지나’ 것의 특
수성에 배후된 화가의 심미안을 드러낸다.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선 특수의 표현
해 역시 이와 동급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볼 때 나혜석의 ‘작가화’ ‘조선화’는 이론의 필연적 결과라 할 수 있
다. 수처사주변 입체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어디든지 주체성을 가지면 모든 것이 진리이다
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외적 자극을 받아서는 ‘내 소유로 만들’고, ‘조선화 시킴 욕망을 가져
야 한다(194-5면)고 표명한다. 나혜석이 우리 의복에 대해 말하면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
한 의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나혜석의 근대화는 서구화와는 등식이 아니대, 조선의 특수성을 지닌 것이다.
사람이면서 동시에 조선 사람이고, 조선 사람이면서 동시에 조선 여성인, 즉 동등성과 차이를
모두 담지하고 있는 존재로서의 사람, 여성이며, 인류라는 보편성은 동등성에서, 조선 사람 도
는 여성이란 특수성은 차이에서 인식된 것이다.

전반기¹⁰⁾의 글들이 주로 인간-인류라는 보편성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면, 후반부에 쓰여
진 글들은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에 더 촉발되어 있다. 전/후반기를 대표하는 논설은 각각 모실
권/정조론인데, 『보원 한상기』만 하더라도 ‘개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모가 불쌍한 줄을 알았
고, 더구나 조선 여자는 말할 수 없다’면서, 『모든 모(母)』와 『조선 모』(231)의 두 측면을 함께
배치하고 있다. 『모든 모(母)』와 『조선 모』(231)라는 대비의 인식은 동등성과 차이를 함께 인지
할 때 가능하다. ‘개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모가 불쌍’ 할 뿐더러 ‘더구나 조선 여자는 말할 수

10) 이를 조후철 (2018a)의 27-44쪽

없'는데, '모든 모'는 각 나라의 가부장적 억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조선 모'에게 그 억압의 양상은 더욱 극심하기 때문이다. 또 모성이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지 않'으며, 경험과 시간을 지나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구비하여 있는 것이 아닌' 것은(232-3면)(경길: 나혜석의 모성인식의 실천/후진설 여부, 『모성 신화-궁정 여부』 '모든 모'에 해당된다. 아들이 이 나라 딸이라 구박하여 죽일까지 하는 '바수각 열식'은 '조선 모'에 해당된다.

하지만 후반기의 정조론에 따르면 '모든'에 해당하는 보편성의 영역보다 '조선'을 특화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이혼 후에 쓰여진 「이혼고백장」과 「신생활에 돌면서」에서는 '인간-여성'보다는 '여성-인간'에 대해 작목한다. 1931년에 발표된 「나를 잊지 않는 행복」과 1932년의 「아아 파리의 자유가 그리워」만 해도 보편성에 착목하는 전반부의 논리가 이어져 있다. 하지만 「이혼고백장」부터는 '여성-인간'의 고통스러움에 착목하여 논의를 진행해 간다. 연애와 결혼, 시어머니와 사누이와의 관계, 며느리(자가보다)로서 견뎌야 하는 불쾌사 점원과의 분세, 주부로서 김달해야 할 경제적 어려움, 과리에서의 최린과의 만남 등을 언급하려다 보니 사담-여성-자가보다 여자-에미-메느리-주부-올세의 관계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기도 하였겠지만, 전체적으로 보편성의 측면보다 개별성, 특수성의 견지에서 언급되고 있다. "내가 있을 후에 딸들이 생겼다"(414면)는 연술은 미러한 변화를 집약적으로 잘 드러내 준다.

그런데 이들 모성론과 정조론에는 일본의 열함이 매우 강하게 수용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혜석은 정조를 취미와 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한편 일부일처제까지 부정한다.

정조는 도덕도 법률도 아무 것도 아니다. 오직 취미다.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떡 먹고 싶을 때 떡 먹는 거와 같이 임의용제로 할 것이요, 결코 마음의 구속을 받을 것이 아니다...우라 해방은 정조의 해방부터 할 것이니 빨리 정조가 극도로 문란해 가지고...
... 이것저것 다 따보고 난 다음에"

27) 「신생활에 돌면서」, 여사는 다음 연식의 변화가 일어난다.

28) 「신생활에 돌면서」, 403-403면

여러 사람에게 허락하여 순간순간 쾌락으로 살아갈게. 혹은 한 사람에게도 허락
자 맡아 내 마음을 지키고 살게.”

다수의 여작 인 동시에 1인의 여작로서, 정조의 귀미화는 여성해방으로서의 성적 자기 결정권
및 남녀 간에 다르게 적용되는 조선의 그릇된 성적 관념에 대한 저항의 의아를 지닌다. 이는 ‘조돈-여
성-인권’에 대한 정의라기보다 조선-여성 에 대한 것이다. 귀빈과의 관계로 이혼 당한 뒤부터는 더
욱 조선-여성, 이혼 당한 수밖에 없는 식민지 조선의 현실이라는 특수성에 더 착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21세기인 현재에도 쉽지 않은 획기적인 선
언, 전각자다운 담담 발언(『정전: 들음, 난조(亂調)/ 사발설, 자유 여부』)으로 상찬되
는 ‘정조는 귀미다’라는 위 주장이 기실은 요사노 마카코(与謝野晶子)의 것이라는 권
이다. 뿐만 아니라 『모된 감상기』에서 드러난 어머니로서의 시각과 감상 능도 사실은
헤라르카 라이코(平塚らいてう)를 비롯한 『세미토』 등인들의 내용과 너무 흡사하다는
점이다.

정조는 어떤 사람에게든 귀미이며, 기묘이며, 버릇이다. 정조의 요구를 느껴져 못
하는 사람에게 정조는 아무 것도 아니다. .. 더 이상 정조는 도덕도 권력도 아니다.”

사랑을 충실으로 한 남녀친함의 사이에는 정조라 하는 것 같은 것은 불필요하다.”

일찍 보면 나혜석의 발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비슷하다. 앞의 것이 나혜석의 것이며, 아래의

200 『전쟁할까 등원서』, 432면

201 이나리들은 의학적인 사실, 발언 등을 ‘들음, 난조’로 보지 않고 76면의 ‘정전’을 해체하는 ‘개인의 의결정 및
자유여부’로 보았다.

202 与謝野晶子, 『貞操に對て』, 『与謝野晶子評論集』, 『与謝野晶子全集』 第13巻, p. 420.

203 与謝野晶子, 『貞操に對て』, 『与謝野晶子全集』, 『与謝野晶子全集』 第13巻, p. 420.

첫은 요사노 아끼코와 이토노에(伊藤野枝)의 주장이다. 두 글의 내용이 너무 흡사하다.”

요사노 아끼코는 근대 여성의 정조와 성욕의 관계에 대해 서양의 경우 및 남성의 그것과, 또 동시대의 히라즈카 라이쵸의 것까지도 비교하면서, 性慾學이라 불릴 정도의 이론적 완성도를 이루어 낸 바 있다.” 요사노 아끼코의 정조론이 여성의 자각과 정조와 자아해방을 연결시켜 고찰하면서, 여성의 정조를 자아 정체성 확립의 방법으로 논의하고 더 나아가 인권 문제로까지 확산시킨 데 비해 나혜석의 정조론은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나혜석의 정조론은 여성의 자아 정체성의 확립의 의미는 있지만 인권 문제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또 이론적 완성도도 매우 낮다.

또 '어머니(여성) 경험'에 대한 탁월한 글로 삼찬되는 '모된 감상기'도 히라즈카 라이쵸의 '最近の感想'과 몇몇 다른 글의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모된 감상기'에는 임신 소식에 접하고서 예술가의 일길을 가로막는 것일까봐 느꼈던 답답스러움, 자신이 어머니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 출산의 고통과 육아의 괴로움 등 '어머니 되기의 공포'가 종합적으로 거슬되어 있다.

내가 사람의 모가 될 자격이 있을까,...생리상 구조의 자격 외에는 짐사가 아니라 정신상으로는 아무 자격이 없다,...내 자신을 교양하여 사람답고 여성답게, 그리고 개성적으로 살만한 내용을 준비하려면 짐찬한 사색과 공부와 실행을 위한 허다한 시간이 필요하였었다, 그러나 자식이 생기

33) 이와 함께 이토 노에의 「産婦に對しての勸告」에도 비교해 볼 만하다. “가장 열렬한 것은 남자의 정조는 미안하지 않고 여성만을 비난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여성의 인격을 무시한 도덕이라 생각한다....남자에게 정조가 무용하다면, 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무용해야 한다.”(『産婦に對しての勸告』, 『産婦衛生全集』 下, 華盛堂社, 1970, p.110), “조선 남성의 심사는 이상하다. 자기는 정조 편입이 없으면서 처에게나 일반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고 또 남의 정조를 배반하여 합니다. 서양에나 동경 사회를 하더라도 내가 정조 편입이 없으면 남의 정조 편입이 없는 것을 이해하고 존경합니다.”(『아혼고백장』, 425면)

34) 石橋昇子, 『『産婦』におけるセクシュアリティの問題提起』, 米田佳代子 編, 『『産婦』を再考するために』, 世界思想社, 1999, pp. 125-141.

35) 나혜석은 다음 의미의 글 내용을 그대로 베껴지는 않는 편이다. 히라즈카 라이쵸가 '행식의 결혼'에 대해 비판하면서 '결혼'이란 단어 대신 '공동생활'이라고 부른 바 있는데, 나혜석은 한 글자를 바꿔 '공동생애'라 언급한 바 있다('모된 감상기', 222면). 히라즈카 라이쵸는 오부쿠라 히로시(奥村博)와의 결혼생활을 '공동생활'이라 표현하였다. 나혜석의 '변칙' 편면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지만,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고찰할 아니카를 관한 글도 히라즈카 라이쵸와 이토 노에의 열광받은 엠마 골드만(Emma Goldman)의 글과 흡사하여.

고 보면...내 개인의 발전 상에는 큰 방해물이 생긴 것 같았다.....다시 얻을 수 없는 사랑의 창조요 구체화의 해답인 줄 알면서도....어쩌나 눈 뵈는거 몰랐다. 나는 자격 없는 모 노릇하기에는 너무 열심히 허락지 마 니하였었다.”

여성이 임신하고, 그러고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그러나 나는 아직 그러한 경험을 가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는 아직 어머니가 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내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이를 키르미 일과 공부에 과속할 수 있을까? 개성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생활과 어머니로서의 생활 사이에 조화를 얻을 수 있을까? ...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애정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없이 기쁘게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여기서 보듯 나혜석과 히라즈카 라이초의 글이 너무도 흡사하다. 히라즈카 라이초는 ‘어머니 되기’가 재래의 여성이 생각한 것보다 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내적 욕구의 충실 없이 ‘어머니 되는 것’을 ‘죄악’이라고까지 하였고, 그렇기에 어머니 되기의 두려움을 더욱 진지하게 느낄 수밖에 없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나혜석의 정조론과 모성론(정조: 나혜석의 경우 모성/ 여성성의 대립 여부)³⁰⁾은 당대의 식민지 조선에서는 충격적인 발언들이었지만 기실 이미 1910년대의 일본에서는 논쟁으로까지 발전하여 여러 논자들이 이론화했던 내용들이었다. 이는 나혜석의 천재성을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혜석이 ‘상황관

30) 『보통 잡상기』, 254면.

31) 『最近の思想』의 일문이다. 市川らいてう, 『婦人の生活を導かない社會』, 米田信代子, 『市川らいてう—近代日本のデモクラシーとジェンダー』, 吉川弘文館, 2003, pp. 144~145에서 재인용.

32) 米田信代子, 『市川らいてう—近代日本のデモクラシーとジェンダー』, 吉川弘文館, 2003, pp. 85~88에서 재인용.

33) 『보통 잡상기』에서 아이를 낳게 될, 당일로 규정하고 있어 대립하는 것 같지만 후반부의 『산생활에 돌면서』에 가위 요산을 여성과 특권층 하녀의 안식하고 있어(435면) ‘모성/여성성’이란 이론화를 지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못하는' '정신 나간 주장자'가 아남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나혜석에게는 1910년대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지적 흐름이 '여러' 방법으로 스며 있는 것이다.

모성론과 정조론은 일본과 달리 논쟁으로 확산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정조논쟁 외에 모성보호논쟁, 낙태논쟁 등이 벌어졌지만, 식민지 조선에서는 나혜석의 발언이 더 이상 논쟁으로 확산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위 논쟁들은 '여성들' 사이의 논쟁으로 전개되었는데, 식민지 조선에서는 논쟁이 벌어지지도 않았거니와, 특히 정조론의 경우 남성 필자들과의 논쟁으로 '스캔들'로 전개되었다. 아직 여성지식인들끼리 논쟁을 벌일 만큼의 이론적, 지적 숙취가 되어 있지 않기도 했겠지만, 워낙 강력한 가부장제의 피해를 비켜 가려는 여성지식인들의 피해 태도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여성해방이란 아젠다(정조론 보호보호 문제, 낙태 문제 포함)가 특수성으로부터 보편성으로 이행했다고 평가되고 있다.⁴⁰⁾ 서구에서는 계급문제(맑스주의), 사회주의 여성해방 이론으로 다양하게 갈래와 되고, 또 일본에서는 여성이라는 특수성에서 사람-인간 문제 등의 보편성으로 이론화 되다가 1930년대 중반 이후 국가주의로 흡수되어 가는 경향을 논정한 반면 식민지 조선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 인간-여성이라는 보편성 차원에서 언급되다가 여성-인간이라는 특수성의 차원으로 이행하였다. 그것도 나혜석의 경우에 해당하였다. 이것이 바로 서양, 일본과 다른 식민지 조선의 특수성이다.

2. 개인주의적 아나카 페미니즘 계보의 창출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모든' '식민지 조선'의 억압 받는 '인간' '여성'에 대한 관심은 나혜석에게 새로운 보편담론을 추동하는 동력으로 작동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나혜석을 자유주의 페미니즘론자 또는 급진적 페미니즘론자라 자리매김 하고 있지만(정철, 차윤

40) 장철우, 「근대일본에서의 모성과 국수-『家國』이라는 보편성을 중심으로-」, 서강대 학사학위, 2008 (학위지).
 41) 『세이토』의 여성담론 연구, 출판대 역사논총 300, 米田依子 編, 『高橋を學ぶ人のために』, 世界思想社, 1989
 ; 新・フェミニズム批評の會 編, 『高橋』を讀む, 學藝書林, 1988.

주의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 여부¹¹⁾), 실제 나혜석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핵심 의제로 설정한 참정권 등의 제도적 혁신을 주장하지 않았다.

마음부터 고치자, 그리고 살림을 고치자...

나는 그동안 신문에서나 잡지에서 생활개량에 대한 언론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같은 생각도 많이 있었으나, 그 생활내용은 버려두고 살림, 즉 제도부터 고쳐야 하는 데는 어떤지 잊은 것이나 있는 것 같은 저어한 마음이 생깁니다.....¹²⁾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참정권 등을 통해 기존의 권력관계를 수정 보완함으로써 남녀평등을 성취하고자 하지만, 나혜석은 위에서 모든 제도 개혁을 말하지 않는다. 제도개혁보다 ‘마음’과 그 제도를 이루는 ‘내용’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도를 이루는 내용들이란 결국 그 제도를 만든 사람들의 생각, 마음 등 정신과 연관된 것이다(정현: 아나키즘의 정신 개조와 계몽주의의 실력양성론의 차이 여부¹³⁾). 그리하여 나혜석은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들이 강조하는 제도개혁이 아니라, 자아(내면)의 작성, 수양, 개량, 자기 확장, 천 인격 실현, 완전 자유, 자치, 참 사랑 실현, 세계예를 역설하게 된다.

① 언뜻나 우리는... 일일(日日)이 수양된 자기의 양심으로 출중(突出)한 바 제(敎)이 이상에 근접한 신·상상(新思想)으로 생장치 아니하면 아니 되겠도다... 인정한 목적으로 유의의(有義義)하게 자기 개량을 발원교사 하는 작각을 가진 무인으로서 행위를 이해한 자살, 처식상 및 품성에 대하여, 그 시대의 선각자가 되어 실력과

11) 대부분의 논자가 선자에 속하며, 후자에 속하는 논자는 류진아이다. 또 김문실은 권자에서 후자로 이행하였다고 본다. 김문실, 『조진의 시민과 지식인 나혜석의 근대성론 심포지엄』, 윤병모 외 편, 『나혜석, 한 세대를 거닐다』, 푸른사람, 2012; 302면; 류진아, 『나혜석의 급진적 페미니즘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2권 제1호, 푸른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1.

12) 『생활개량에 대한 저자의 무르침들』, 272~274면

13) 실력양성론과 아나키즘은 시민지국이 권력에 반대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실력양성론은 권력 문벌은 및 사구 중심의 근대화론에 속속되는 반면, 아나키즘을 직접성적 제정과 최대의 참으로써 국가 해체, 각종의 공동체 정출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권력으로, 사고 우(又)는 신비상 내적 광명의 이상적 부인이 되지 아니하면 불가한 줄로 생각하는 바라.”⁴⁴⁾

② 모든 것의 출발점은 다 자아에게 있는 것이요,⁴⁵⁾

③ 자기를 잊지 않고서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이요, 자기를 잊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여자의 희망, 자음 땀등이 다 있는 것이요”⁴⁶⁾

④ 우리는 사랑으로 살으로써 비로소 이 근본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에 누구보다 여자 자신이 자기 합선이 땅 위에 있는 것을 자각하여야 하겠습니⁴⁷⁾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동시에 남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본질에서 나타나는 가장 높은 사실이요, 가장 높은 경험인 줄 압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상과 실행, 영과 육, 이성과 정의가 융합 일치하여 활동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서는 어찌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친구가 친구를, 개인이 사회를, 사회가 가정을, 양해하고 동정하고 서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⁴⁸⁾

⑤ 평화의 길은 모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충하고, 우순한 자가 열매한 자를 도우며, 부자가 가난한 자를 기르는데 있나니, 우리의 가정이 화평하려면, 행복하려면, 강자요 우순자요 부자인 남자가 약자요 열매자요 가난한 처인 여자를 애호하는데 있는 줄 압니다.”⁴⁹⁾

44) 『이탈적 부인』, 184면

45) 『이혼고백서』, 403면

46) 『나를 잊지 않는 행복』, 264면

47) 『생활개량에 대한 여자의 부지침』, 275면

48) 『생활개량에 대한 여자의 부지침』, 277면

④ 다만 우리는 ‘참사랑’으로 살 수 있기만 바라고 또 실현하여야 할 것밖에 아무 다른 것 없는 것이다. 보시오, 창경원 운동에 이단들이나 비범한 어지러운 세계적 애에 참가하려 하지 않소?⁴⁰⁾

⑤ 작기와 타인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동정할 수 있는 생활을 먼저 가정에서부터 실행해 봐야 하면 생이지만 더 참되고,..... 지금 생활에 먼저 천 자기 되려면... 지금 사람들이 창조한 윤택한 물질문명을 기초 삼는 정신적 생활이 아니면 아니 되는 것인 줄 압니다.⁴¹⁾ (앞줄은 필자가 하였음)

-가) 그리므로 나는 현재에 자기 일신설의 극명한 욕망으로 영재를 기르 보 다작 다나하는 어떠한 길을 향하여 무한한 고몽과 싸우며 괴기한 예술에 노력코자 하노라!⁴²⁾

-나) 이 예술이 없고는 감성을 행복하게 해줄 아무 것도 없었던 까닭입니다.⁴³⁾

①과 ②에서는 자아, 자각에서부터 출발하여 ‘수양된 자기’에 이르는 개조, 개량이 급선부함을 설파하고 있으며, ③에서는 바로 이 ‘자기’를 잊지 않는 것이 ‘해방 및 평등’을 이루는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④와 ⑤에서는 각자 ‘자기’를 잊지 않을 때, ‘다른 사람’(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며, 이 사랑이 기본적인 원동력이 되어 ‘서로 돕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역설한다. 나혜석에게는 우송열매, 적작생존 등이 아니라 ‘참사랑’과 ‘세계적 애’가 중요한 것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⑦에서 보듯 ‘자기’와 ‘가정’에서부터 실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물질문명이 ‘아니라’ ‘정신적’ 생활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비단 위 인용문 뿐 아니라 전판·후판기를 박문하고 나혜석의 산문 도처에 드러나 있다. 어느 특정 시

40) 『매일생애가 강연』, 220면

41) 『생활개량에 대한 이야기』 『매일생애』, 373면

42) 『여남정 문집』, 185면

43) 『비밀의 사랑』, 95쪽

기에만 확인되는 내용들이 아니다.

위 인용문에서 확인되는 개조(양)론과 상호부조론의 내용은 아나키즘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1910년대 중반 이후 소개되기 시작한 아나키즘은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수용되었을 때, 핵심은 개조, 상호부조를 통하여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평화롭고 행복한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는 것이었다.

아나키즘은 개인의 절대적 가치와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의 꿈과 노력을 보며 준다. 아나키스트만큼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실행하는 자들도 드물어서,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일체의 사회적 압력과 감제를 거부할 뿐 아니라 개인의 내면적 삶에 가해지는 가부장적 권위를 단호히 부정한다. 완전한 개인의 독립과 자치를 표방하며 자기 스스로 주인이기를 선언한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유린하고 구속하는 모든 굴레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기존 사회에 대한 강한 비판인 동시에 바람직한 미래 사회의 전망이자,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의 이행 수단을 제시하는 교리⁵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녀차별 및 가부장제를 철폐하고 여성 해방을 선언하는 페미니즘은 모든 억압에 저항하는 아나키즘과 기본적으로 토대 및 방법을 공유하게 된다. 두 사상 모두, 제도화 된 권력관계로부터 사회적 문화적 불평등이 초래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권력관계의 변혁이야말로 인간해방의 전제조건임을 확신한다. 또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의 실현을 추구한다.

아나키즘과 페미니즘의 결합인 아나카 페미니즘(Anarcha Feminism⁵¹⁾)은 여성억압을 본질적인 것⁵²⁾으로 봄으로써 젠더를 우선성으로 명주화 한 이론이다. 아나카 페미니즘은 가부장제를 권력관계의 실현으로 보기 때문에, 가부장제에 대한 저항 및 투쟁을 제국무정 및 국가에 대한 아나키스트들의 투쟁의 본질적 부분이라 주장한다.⁵³⁾ 아나카 페미니즘은 '가부장제'를 '국가'와 기본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의 폐기는 제도화된 가부장제의 주요 대항자를 폐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필점: 아나카 페미니즘의 근대주의 / 탈근대주의 여부)

아나카 페미니즘은 가부장제, 국가, 자본이라는 삼중의 억압을 뛰어 넘는 남녀 힘들의 결합

50) Woodcock G., *Anarchism: A History of Libertarian Ideas and Movements*, Penguin Books Ltd., p.7

51) Anarchist Feminism, 또는 Anarcha Feminism 이라고도 한다.

52) Wild Series, *Anarcha Feminism*, Books LLC, 2011, pp. 3-5

53) Wild Series, *Anarcha Feminism*, Books LLC, 2011, pp. 7-8

제 사회를 지향한다. 여성해방은 단지 여성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적 과제이다. 특히 여성의 성과 출산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중요한 화두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 사회변혁의 대상을 제도적 차원 뿐 아니라 인간 내면의 차원으로 심화시키면서 진정한 사회변혁 운동이란 인간 내면의 가치혁명으로 승화되어야 완성되는 것임을 역설하였다.⁵⁷⁾

나태석의 아나키즘적 경향은 오탁 나경석 및 애인 최승구로부터의 영향 및 『페허, 참여(쟁권: 페허의 퇴폐, 하무주의/ 아나키즘 여부)』(쟁점: 『페허, 동인 = 아나키스트 여부』), 글과 그림⁵⁸⁾에 나타난 내용, 그리고 히라즈카 라이쵸 및 엠마 골드만과의 명함교환 등 세 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쟁점: 나태석의 민족주의적 여부)(쟁점: 나태석의 아나키즘 수용과 볼스토크의 수용 양상 여부). 나태석의 후원자였던 오탁 나경석은 무정부주의자였던 일본의 시모쓰시(市松)와 생디칼리스트인 横田宗次郎을 매개로 활동했던 조선의 대표러인 아나키스트로서,⁵⁹⁾

57) 아나키 케미니스트로는 엠마 골드만 외에 Valerie Solovay, Goo Weaver, Frederica Montseny 등을 들 수 있다.

58) 기존 문학사에서는 주로 전자의 입장을 취하였으며, 최근 논문들에서는 후자의 입장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이종로, 「일제시대 아나키즘 문학 형성 연구」, 『현대 문학사』, 2005. ; 정우택, 「1세대 시인의 영혼과 양식」, 『문학』, 2004. 참조

59) 이종로는 「역사」 장임을 모두 아나키스트로 보고 있다. 「일제시대 아나키즘 문학 형성 연구」, 『현대 문학사』, 2005. 참조

60) 만주와 연해주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조선인을 함성하 한 「개척자」(『개척』, 1921)를 애 칭고 있으며, 농가문 소재로 한 『봄아 오너』(1922/23) 『농가』(1922), 그리고 농촌 여성의 노동을 그리고 있는 『봄의 오후』(1927), 지극한 산 아래에서 묵묵히 노동하고 있는 농민의 모습을 보여 주 『봉황전』(1929) 등은 농민의 수고로운 삶에 대한 일련 연민에 가까운 안타까움과 그들을 대하는 냉철적 시선을 노출시킨다.

61) 황독 사신 등을 들어 민족주의자로 평가받지 모르나, 민족의식이 있다 하여 민족주의자라한 것은 아니다. 나태석의 경우 민족의식이라기보다는 애발의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그 만일 안동현에서 민족해방운동가들을 만나 않았다면 「친필문장」로 확실하게 낙인찍혔을 것이다. 아나키스트들이 말하는 「전작」은 자주적 개인의 확장체로서 국책시화를 구상하고 있는 단편 주제로서의 민족이며, 민족주의에서 내세우는 애국적인 민족은 아니다. 이호봉, 『일대의 사유를 향한 반역의 역사』, 서해문집, 2008, 401면

62) 적마의 재발과 관련하여 아나키스트로 분류되기도 하며, 『예술을, 또한 아나키즘적 예술의 특성을 잘 갖추고 있다고 언급한다(국송희 외, 『한국 아나키즘 100년』, 이학사, 2004, 296면). 일본에서도 아나키스트로 수용되기도 하였으며, 나태석은 「이상적 부인」에서 볼스토크의 「자화」의 미국인공 카츄사를 「혁명의 이상」을 품은 여신이라 언급한 바 있다.

63) 1916년 평론 문학사 사회주의 사상을 소개하는 등 사회주의 지식들과 활동하다가 출산억제화에 참여한 후로는 사회주의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1916년경부터는 친목회도 운영하였으며, 1920년대에는 소비조합 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간송 중재는 아나키즘계 단체인 조선노동공정회의 창간인 『공정』에 기고하여 노동자의 일면적 요구를 표명하는 것이 또 한층더는 내용을 보충한 바 있다.

1916~18년까지 오오사카에서 조선인 노동자를 위해 빈민굴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사회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초기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디칼리즘과 무정부주의를 지향했으며, 소작농민과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와 실천활동은 1910년대 당시 유학생 가운데서도 선진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⁶⁴⁾ 나혜석이 나경석이 발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운동 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의 기관지 『공제』, 참간호에 「조조」를 게재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최승구 역시 아나키스트로서 나경석과 함께 사상적으로 공명하고 있었으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나경석과 길을 달리 하였다. 나경석은 최승구에게 '자아를 살리려, 시대의 도어를 개방하러 가는 여행'에 동참하기를 요구하였는데, 최승구는 '형(나경석을 의미)의 노정을 비난하거나 비난할 의사는 가진 것이 아니'라면서, 형과 달리 '아티스트'의 길을 가겠다고 하였다. 최승구는 나경석의 '운동' (혁명)으로서의 아나키즘(정치성)이 아니라 '예술'로서의 아나키즘의 방법(비정치성)을 선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즉 최승구는 아나키즘에는 동의하나 그 구체적 실행방법에 있어서는 방법적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다음 아난 '생활에 뿌리박고 있는 긍정의 예술' '系鏈을 향한 예술'이 그것이다. '계련'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쟁점: 나혜석/ 민족 동보 여부⁶⁵⁾), '그들' (『학지광』 3호, 19면)이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혜석이 옳은 나경석의 이론에 공명하기보다 예인인 최승구의 방법론에 공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혜석은 글과 그림,⁶⁶⁾ 소설 모두에서 아나키스트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는데, 나경석의 '운동' '스트라이크'와 같은 혁명적 투쟁이 아니라 앞의 인물문

64) 이호동, 『한국의 아나키즘』, 작사산업사, 2001, 178~187면; 『류시현, 「나경석의 생애를 중심으로 문신장려운동」, 2005, 289면.

65) 나경석의 「계련의 생애」은 최승구로부터 받은 편지의 난립 형식으로 되어 있다. 최승구의 편지란 학지광 3호(1914.2)에 실린 「정감적 생활의 요구」인데, 나경석이 자신의 생활을 이해함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아 하나는 그로부터 나경석과 자신의 생활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편이다.

66) 전자에는 이상경, 후자에는 정우백이 있다. 이상경, 『진진으로 살고 싶다』, 한길사, 2000, 121~123면; 정우백, 『한국근대시인의 영혼과 형식』, 깊은샘, 2004, 170면.

67) 나혜석의 농촌유정화에 아나키즘 경향이 있다는 주장 대해서는 구병화, 「1920년대 나혜석의 농촌유정화연구」, 문법도의 권 『나혜석, 한국 근대사를 가늠자』, 푸른사상, 2011, 110~129면 참조.

⑧에서 보듯 최승구와 같이 “예술”을 강조하고 있다.

⑨-가)의 인용문은 ‘이상적 부인’의 맨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구절로서, ‘내적 광명’의 이상적 부인이 되어야 한다⁸⁸⁾ 강조하면서 ‘지식한 예술에 노력’ 하는 것이 자신이 이상적 부인이 되는 방법임을 설파하고 있다. 나경석의 ‘운동으로서의 아나키즘’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⑩-나)의 인용문은 자신의 긴 역정을 되돌아 보면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자신에게 ‘해방’의 방법은 ‘예술’임을 역설한다. 이상으로 볼 때 나경석/ 최승구· 나혜석은 ‘운동·혁명/예술’ ‘생디칼리즘/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정치성/비정치성’으로 갈라지며, 최승구/ 나혜석은 ‘비페미니즘/페미니즘’으로 구분된다. 즉 나혜석은 자아 각성-가슴 개조-개인 주장-강호 부조-예술 통해 실현이라는 개인주의적 아나키 페미니즘⁸⁹⁾의 방법론을 택하고 있다(쟁점: 아나키즘의 소시민성에 대한 긍정/ 부정 여부)⁹⁰⁾(쟁점: 프로문학의 부정성과 비교하여 아나키즘 문학의 주변부성 여부⁹¹⁾).

개조론과 삼호부조론은 두 갈래 모두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당대의 새로운 대안이었으며, 1910년대 중반 이후 민족해방운동에서의 혁신적인 사상으로 폭넓게 퍼져 있었다. 이 세해를 위호는 ‘제3의 사상’으로서의 아나키즘에, 근대의 여성지성인 나혜석도 ‘개인주의적 아나키 페미니즘’ 계보를 창출하며 동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8) 아나키즘을 옹호화 하는 것은 어려운 임이지만 필라히지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나 더 나은 사회적 존재이나라는 시각에 따라 크게 사회주의적 아나키즘과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으로 분류된다.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은 인간이 개별적인 존재로서 그 의미와 성취를 자아실현의 기본적인 사회 생활에서 얻는다고 보고 있으며, 개인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개인은 일체의 사회적 강제나 압력으로부터 해방 보호되어야 할 독립적으로 자기충족적인 실체이다. 요컨대 개인의 완전한 자유와 독립의 주장. 즉 개인의 주권이라 말할 수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이 지향하는 형이상학적 기본조건이며 기반이다. 사회주의적 아나키즘이 무정부주의 등을 통한 사회혁명을 표방하는 것과 달리, 개인의 완성이나 계몽활동에 의한 점진적인 무정부주의의 실현을 지향한다. 천자가 노동운동가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한 것에 대해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은 주로 지적인 것, 즉 예술가, 적당라스, 교사 등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김은석, 『개인주의적 아나키즘, 무엇이 있는 것』, 2004, 34-35면.

89) 예술을 통해 실현되는 자아의 각성 및 상호부조에 대해 임화는 소시민성에 기반한 듯 골짜기로 파악하면서 부정하였고, 아나키즘은 이외의 내용도 서학적 한 방법으로 증명한다.

90) 박원, 임화, 주동일의 문이라는 아나키즘 문학을 ‘주변부성’으로 분석하였다. 원자는 아나키즘 문학을 ‘결승권적’이라 보지 않는다.

나혜석이 아나카 페미니즘을 수용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는 일본에 수용된 엠마 골드만을 통해서였다. 일본에서 엠마 골드만을 가장 열렬히 수용한 논자는 이토 노에(伊藤野矢)⁷¹⁾와 히라즈카 라이쵸였다. 엠마 골드만은 직접 행동과 계연로서 반전운동 및 징병제도 반대, 산아제한 권장, 남녀평등을 주창하여 미국에서 정치범으로 구속된 첫 번째 여성이며, 시민권을 박탈당한 대표적인 아나카 페미니스트였다.⁷²⁾ 이토 노에는 엠마 골드만의 저작 『아나키즘 에세이』 중 「부인해방의 비극」⁷³⁾과 「소수와 다수」를 번역⁷⁴⁾하는 한편 「결인의 명예」라는 소설에서도 주인공을 통해 엠마 골드만의⁷⁵⁾의 형상화를 꾀한 바 있다.⁷⁶⁾ 또 히라즈카 라이쵸도 「부인해방의 비극」을 번역 소개한 바 있다.

엠마 골드만은 「부인해방의 비극」이란 장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투표권, 즉 평등한 시민권도 좋은 요구일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해방은 투표나 법원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여성 자신이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힘의 정도 만큼만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여성은 자신의 내적 개혁부터 먼저 시작하는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야 편견과 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삶이 모든 국면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⁷⁷⁾

제도 개선보다 자각, 수양, 자기 혁신이라는 여성 자신의 '내적 개혁'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71) 히라즈카 라이쵸에 이어 『세이토』를 이끌어 간 아나키스트로, 일본의 대표적인 아나키스트 도스기 사카에(土肥 颯)와 대인관계이기도 했다.

72) 현대아스록 이해선 옮김, 『엠마 골드만』, 한일 미디어, 2006, 참조.

73) 『세이토』 1913년 9월호에 일부를 소개한 후 1914년 3월 東瀛에서 번역 출판한다.

74) さいとう研究會 編, 『青磁』人物事典, 大塚書店, 2001, p.210

75) 엠마 골드만은 1913년 8월 일본을 방문하였고 일본 아나키스트들로부터 매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한다.

76) 「無政府の眞實」이란 글을 통해 여섯 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자기연립으로서의 고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또 이토 노에는 문예 아이의 이름을 엠마라 짓기까지 했다. さいとう研究會 編, 『青磁』人物事典, 大塚書店, 2001, p.40-41.

77) Emma Goldman, *Anarchism and Other Essays*, 김사환 옮김, 『여성해방의 비극』, 『지구만은 아나키즘』, 207면.

엠파 골드만 주장은 앞서 살펴 본 나혜석의 글과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나혜석은 이론적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였다. 개조 및 상호부조의 목적과 방법 등을 기원계 언급하는 데서 그치고, 이토 노에나 요사노 아끼코처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토 노에⁷⁾는 일본에서 '성의 제방'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인물로서, 엠파 골드만의 이론을 수용하여 '제방 논쟁'까지 벌인 바 있으며, 요사노 아끼코는 부인 개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소개한 바 있다. 요사노 아끼코도 「부인개조의 기초적 고찰」이란 글에서 5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5가지의 기초단 자아발전주의, 문화주의, 남녀평등주의, 인류 부제급 연대 책임주의, 범노동주의로서 이 조건들 위에 기초를 세움으로써 아자의 개조가 현실성을 가질다고 보는 한편, 5가지 중 나머지 4가지는 문화주의에 집중된다고 보면서 문화주의 중실성을 드러낸다. 요사노 아끼코는 또 덧붙이기를 자신의 이러한 이론은 철저한 개인주의이며, 인격주의이고, 인도주의이며, 신이상주의 신낭만주의라 결론을 내린다.⁸⁾

엠파 골드만과 요사노 아끼코의 이론에 비해 나혜석의 그것은 조약하기 그치었다.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 뭉뚱하기까지 하다. 기존연구에서는 나혜석에 대해 제급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유주의적 페미니즘에 머물렀고, 더 이상의 논의의 전전도 없었던 것으로 해석한다(쟁점: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공과 여부). 나혜석은 분명 사회가 현실 체제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인식도 미미하며, 누가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나혜석이 도달한 사회구상은 조선적 특수성에 입각한 이상사회(유토피아 사회)임을 밝혔을 뿐이다. 하지만 이는 나혜석의 한계라기보다 아나카 페미니즘, 더 구체적으로는 개인주의적 아나카 페미니즘의 근본적 한계이라 보는 것이 더 문당하다. 나혜석의 이상사회 구상은 나경석의

7) 「생활개량에 대한 여자의 부르짖음」, 272~273면에서 소개되는 내용도 아주 유사하여 추가로 첨부한다. “언뜻부터 내려온 인습에 얽매어 당장으로는 고칠 수 없는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 ... (아하)에 대한까지 해야 할 제각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정당한 것을 믿는다든지, 습관된 세풍을 개발한다는 것은 일로 쉽지 못한 일입니다. 마음을 늘 개방해야 두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 사람들의 생활을 관찰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8) 이토 노에의 관련설은 이토 노에가 초결한 다중소설 작가 무라카미 나미오쿠(村上龍六, 본명은 佐, 佐二子)의 저서 「二二二(1922)」를 나혜석이 작전과 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1921년에 쓴 「3년 전 일기 중에서」(1922)는 초기에 사용하던 본의 대신 二二二이던 호를 사용하고 있다. 무라카미 나미오쿠의 나혜석의 구체화된 인바상에 대한 고찰은 추후 다른 원고를 통해 심찰할 것이다.

9) 藤田淑子, 『ナハセキと「二二二」』, 旺文堂, 1985, 83頁, 144, 202~278.

정치적인 것과 달리 비정치적인 것이었고, 비정치적 사회구상의 결말은 당대의 현존 지배질서를 부정하면서 현실정치 아래 변질될 가능성까지 구존하는 한계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엠파 골드만의 서구, 요사노 아키히코의 일본과 다른, 조선의 특수성 중 또 하나라 할 수 있다.

3. '파트너십'의 소설적 형상화

현재 말군되어 있는 나혜석의 소설 6편은 아나카 페미니즘의 소설적 형상화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아나카 페미니즘은 자라 및 자아 해방을 통한 여성해방, 자유, 개조, 상호부조를 주창하는데, 「경희」, 「화생한 손녀에게」, 「규원」, 「원한」, 「현숙」, 「어머니와 딸」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중 「경희」, 「화생한 손녀에게」, 「현숙」이 긍정의 방법을 보여 준다면, 「규원」, 「원한」, 「어머니와 딸」은 부정의 방법을 보여 준다.

「이상적 부인」(1914)의 소설화로 할 수 있는 「경희」는 '대타자 아버지' 세계의 억압적 구조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자신 내부의 과거 인습도 자라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모습도 그리고 있다. 신여성/ 구여성의 대립에서 출발하여 신여성/남성의 대립으로 서사가 전개되는데, 전반부에 등장하는 엄마와 사돈마님을 비롯한 구여성들은 아버지 세계가 강요한 가부장적 질서를 대면한 인물들이다. 경희는 바느질, 빨래, 밥하기, 김치 담그기, 콩부기 등 이념이 아닌 생활에 관련된 것을 실천해 보임으로써 신여성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한편 구여성들을 설득한다. 아버지와의 갈등에서는, 혼인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거역하고 주체적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새새한 심리적 갈등이 펼쳐지면서 고민하는 경희를 재서한다. 하지만 경희는 자신이 금수가 아니라 사람이고, 여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인 이상 사내와 같이 못할 것이 무엇이며,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짓고 아버지를 거역하기에 이른다. 「경희」는 평희라는 이상적 신여성을 통해 신여성에 대한 각종 우려와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물론 신여성이 남성 지배사회에서의 온갖 갈등을 겪고 주체로 거듭나는 주객변증법을 보여 준다.

이 소설에서 경희와 어머니는 대립하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고 보조적이다. 경희의 '신여성 계획'에 엄마의 '침허실 함몰기 계획'이 동행하는 형상이다. 이는 경희가 근대 여성

으로 성장하는 과정인 동시에 구여성인 엄마가 신여성의 실천상에 매개되어 근대 속으로 편입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경희 어머니는 근대적인 어머니가 된다. 어머니 또한 아버지 세계로부터 억압된 희생물이라는 점에서 이 소설은 나의 '신여성 기획'에 '엄마의 신여성 만들기 기획/아버지의 질서'가 대립되는 '딸의 서사'라 할 수 있다.⁸²⁾

『경희』에서도 『무정』 등에서 올려 비쳤던 계몽적 목소리가 아주 가신 것은 아니나, 4장에 보이는 경희의 심리적 갈등 부분은 이 소설을 계몽주의 소설에서 벗어나게 한다(정점: 계몽문학 여부). 만약 이 소설이 3장까지로 끝났다면 미완수류의 계몽소설에 머물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4장에서 아버지의 강요를 받고 고민하고 갈등하며 부르짖는 '외로운 신여성'은 더 이상 3장까지에서 보았던 계몽적 신여성이 아니다. 주위의 구여성들은 실패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감고한 아버지의 세계와 맞닥드려 어쩔 줄 몰라 하던 경희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규로 끝을 맺는다. 이 결본 부분은 경희의 '계몽'보다 오히려 당대 아버지 세계의 억압질서가 그만큼 '강고'함을 역설적으로 확인시킨다. 아나키즘 예술인이 사상사적으로 계몽주의와 낭만주의라는 독성을 가진다⁸³⁾는 점에서 낭만성과 계몽성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는 있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계몽주의 문학 범주에 넣기는 어려우며, 개인주의적 아나키스트인 슈티르너가 말한 바처럼, '개인적·자기 참유적 길을 살아갈 것을'⁸⁴⁾ 스스로에게 권고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념의 실재성은 육체를 가진 내가 이념을 가진다는 사실에서 성립하듯이 경희는 육체를 가진 '나'로서 아나키 페미니즘의 이념을 실재로서 육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경희』는 1910년대 소설의 최고 성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정점: 계몽문학으로서 최고/1910년대 전체 중 최고).

이에 비해, 새로운 보편담론의 충동을 특수성에 입각하여 독특한 방식으로 부각시킨 소설은 『희생한 소녀에게』이다. 이 소설은 합범이 명든 소녀를 간호하는 모양으로 시작하고 있으나 실은 화자인 합범과 간호 받는 소녀는 둘 다 여학교에 다니는 또래들이다. 이들이 명수법을

82) 김복순, 『1910년대 이후의 한국문학의 여성 기획과 타자성의 문제』, 문학과 지성사, 2011, 240-282면 참조.

83) 이상범은 부르주아 계몽문학이라 본다. 『나는 인간으로 살고 싶다』, 앞의 책, 137면.

84) 구승희의 의. 『한국 아나키즘 1909년』, 94면.

85) 구승희의 의. 『한국 아나키즘 1909년』, 98면.

하는 할멈과 손녀 관계로 치환된 이유는 병수발을 들고 있는 화자에게 병자가, 어릴 때 자신을 헌신적으로 보살펴 준 할머니 생각이 난다며, “당신은 내 할머니요, 내가 이번에 살아 난 것이 전히 할머니의 정성이오”라고 말한 때문이다. 옛날 절친한 동무를 병으로 잃은 적 있는 화자는 “그때 자신이 왜 그 친구를 위하여 공부를 폐지하고 철야하여 간호를 하지 못하였는가”, “그 친구를 위해 정성을 다하여 위안을 주었더라면 그는 결코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유한(遺恨)을 마치 트라우마처럼 갖고 있던⁸⁵⁾ 자, 마치 나이팅게일처럼 ‘천사’가 되어 ‘수만명의 할머니가 되어’ 병자를 보살핌으로써 ‘네 병이 전쾌(全快)되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⁸⁶⁾며, 한편으로는 자기 위로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일종의 자기해방을 이룬다.

이 소설에는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부분이 두 군데 있다. ‘네 병이 낫고 아니 낫는데 따라 내가 살고 죽는 운명의 길이 매달렸다’는 부분과 ‘깍두기 고추장 먹고 손녀의 병이 나아오니 너는 깍두기의 딸이다, 깍두기로 영생한다’는 부분이다. 네 병이 나아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인식은 ‘너-나’가 서로 묶인 존재라는 것이다. 서로 분리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공동체로 묶여 있으며, 서로 묶여 있는 ‘우리’는 ‘깍두기 혈연’이라는 것이다. 아나키즘의 중요한 발견 가운데 하나가 ‘우리’라는 공동체 인식인 바, 「희생한 손녀에게」는 바로 이 ‘우리’의 발견을 할멈과 병난 손녀로 설정하여 연극하듯 구성해 놓고 있는 것이다. ‘깍두기’ 역시 ‘우리’가 깍두기라는 김치를 먹는 혈연적, 문화적 공동체임을 확인시키면서, 병자의 병이 의사가 처방한 이리저리한 ‘원소’로 되어 있는 ‘공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멈이 갖다 준 깍두기를 먹고 병근(病根)이 쏙 빠졌다고 역설한다.

남들이 맛있다는 스프나 탕보라도 우리의 입에는 깍두기만치 맛있는 것을 못 보았다. 그리고 라이스 카레나 미소 시루를 먹어도 깍두기를 마지 않아야 맛이 든다. 그리고 소화도 잘 되는구나... 소나 할멈은 안심한다. 너는 할 수 있어 깍두기의 딸이다, ... 깍두기로 영생하는 내 기특한 손녀여!

85) 최승구의 죽음과 연관된다.

86) 「희생한 손녀에게」, 118면

87) 「희생한 손녀에게」, 118-119면

우리 입에 맞고 우리 생활에 맞아 건강에도 좋은 쌀두기와 고추장은 식민지 조선의 '조선 쌀'이 왜곡되곤 할 것은 아님을 확인시킨다.⁸⁹⁾ 서구 문명으로 지칭된 스프나 일본 문명으로 지칭된 미소 시루 역시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것은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제3의 방식'을 암시한다. 제3의 방식이란 서양 문명 및 구미 가치 일반에 대한 회의와 연관되면서, '쌀두기 혈연들'의 '우리' 인식으로 나타나 있다. 아문, 이념 등을 통하지 않고 쌀두기, 고추장 등의 생활자료를 통해 '식민지 조선성'을 언급하는 지점은 「경희」에서 경희가 아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느짚, 청소 등의 생활자료를 통해 자아 및 시대의 각성을 꾀하면 방식과 동일하다. 이는 또 앞서 검토한 바 제도적 혁명보다 내면적 각성으로 절대적 이상을 설파한 것과도 동떨어 속한다.

할범으로 설정한 것은, 할범으로 운위되는 구세대로부터의 전통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즉 '우리'에는 당대의 신여성들 뿐 아니라 할범으로 지칭되는 구세대들도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전통에 대해 나혜석이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음은 물론이요(정전: 나혜석의 '전통' 인식 여부), '산/구'가 아니라 '산—구' 연대의 공동체를 상상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면화와 생활화, 여성이라는 특수화 및 산—구 연대를 통해 식민지 조선-여성의 해방전략을 꾀하는 이 소설은 서구 문명을 추종하기보다 다르게 가치화하려는 나혜석의 구상이 제시된 소설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정전: 경희의 근대화 기획의 식민지 모방담론 여부, 오리엔탈리즘 요소의 유무 여부⁹⁰⁾).

신여성상을 다루고 있는 소설로 또 1936년에 발표된 「현숙」이 있다. 「현숙」은 카페 여급으로 있으면서 적다침(다방)을 경영할 계획을 세우지만 돈이 없어 주식회사처럼 공동 투자를 받기로 한다. 몇몇의 남자들이 신청하였으나 모두 '자기만이 현숙'이란 착각에 빠져 있다. 화자 K는 현숙에게 여러 명의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파기하는데, 이를 안 노시인(현숙, 화자지말생 1과 함께 같은 하숙에 살고 있다)은 K와 만나 현숙에게 책임성을 가지라고 충고한다. K는 자기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반정거리며 노시인에게 10원을 준다. 노시인

89) 쌀두기를 특수성과 관련지어 설명한 것은 권보드래, 「식민지 지식인의 민족과 인본」, 『평원문화연구』 제28권 제3호, 2006 가을, 321면.

90) 김복순은 1차적으로 모방담론이지만 나라정의 주제에 의해 왜곡된다고 보며, 송영희는 모방담론이 아니라고 본다. 권보드래 「경희에 나타난 근대화 기획의 정치성의 문제」, 윤민호 외 편, 『나혜석, 한국근대사를 거닐다』, 푸른나무, 2013. 90-92면; 송영희, 「나혜석의 『아미타와 뽕』의 재해석」, 『한문학』 제37-38호, 2017, 347-359면, 348면.

은 K가 현숙과 자신을 모두 모욕한다며 돈을 뺏어 먼저 비린다. 이후 현숙은 하숙집을 떠나 다른 남자와 동거하나 그 남자는 현숙이 L을 사랑한다면서 L에게 현숙을 만나주게 하고는 떠난다. 둘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당분간 비밀로 관계를 갖고 반년 후에는 신제약을 맺자고 약속한다.

행 을 구하지 못해 림(자영업, 화가)도 사랑도 가정도 가질 수 없는 '백수의 탄식' 같은 고단한 인생살이가 드러나 있다. 이 남자 저 남자를 전전하며 살아 가는, 일련 부정적으로 형상화 된 신여성 현숙과 함께 '우리 가난뱅이들'의 서로를 위한 연민과 사랑이 짙게 형상화 되어 있다. 노시인이 현숙을 위해 화가 K에게 가서 충고하는 장면이라든지, 노시인의 행동을 알게 된 현숙이 고마워 눈물 짓는 장면은 '따뜻한' 연대를 느끼게 한다. 작가는 '연애의 입구는 회색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가진 것이라고는 몸밖에 없는 여성을 통해 현숙이 왜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돌파구는 없는지 등을 반문케 하면서, 연대를 통한 '서로 돕기'만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이 소설은 '대타자 아버지'가 사라지고 대신 '돈'이 통제하게 된 세상에서 '아버지' 대신 '돈' '자본'의 영향력 아래 통제되는 여성의 '정조'를 보여 준다. 따라서 인물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질 수 없고 대명사 또는 다른 것으로 불린다. 현숙이 화가 L의 이름을 "브라보"라고 부르겠다는 것은 자본의 통제 앞에 사라지는 주체성을 지시한다. 현숙의 정조, L의 '브라보' 화는 자본의 시대적 속성과 상동적인 것이다.

현숙의 이중적 성격은 이러한 '돈'의 시대가 인간의 성격을 어떻게 변모시키는가도 보여 준다. 현숙은 L을 사랑하지만, 관계를 맺는 것(결혼)에는 저어한다. 그래서 당분간 '비밀관계'로 하자면서 반 년 후엔 신제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한다. 사랑과 결혼이 어긋나는 세상, 결혼으로 직업을 잃을까 두려워 한 나머지 미래의 '계약' 운운하며 남자와 동거만 하려 속임수를 쓰는 여성을 통해, 당대 사회가 건정한 남녀관계 뿐 아니라 진정한 인간관계마저 훼손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즉 나혜석은 여성의 '정조'가 생활력과 매우 밀접할 뿐 아니라 곤핍한 생활상에서 비롯되는 '정조'의 문제는 비판할 것이 못 된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현숙은 경제력이 없어 화가들을 전전하며 모델로 활동하지만 그것 역시 가당치 않자 의다점을 경영하여 생업으로 삼고자 한다. 하지만 그것도 어려워지자 어떤 남자와 동거한다. 작가는 남자를 권하는 현숙을 부정적으로 그리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여성

으로 현실화 하고 있다. '정조' 문제는 의지나 이념에 기초하기보다 경제력과 더 밀접히 관련된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소설과 달리 「귀환」 「원한」은 신여성이 아닌 구여성이 등장한다. 「귀환」의 구여성은 양반 집 출신이지만 남편이 죽자 빚한 길을 전전하다 결국 주막집 식모로 전락하게 된다. 남편이 죽자 감동 할미와 서울 장주사는 서로 께고 주인공에게 내놓았다는 누명을 쓰게 만든 후 여자를 차지한다. 하지만 다시 장주사가 빚을 떠나자 자신의 삶을 개혁할 여력이 없는 주인공은 친정에서도 쫓겨나고 결국 주막집 신세가 되고 만다. 조혼으로 인한 피해, 남성들의 성욕이 여성의 삶을 어떻게 전락시키는가가 잘 비판되어 있다.

「원한」도 이와 비슷하다. 양가 아버지들의 의기투합의 결과로 조혼하게 된 이소저는 어린 남편 김철수가 난봉과 주독으로 사망한 후 할아버지 사는 시아버지의 친구 박참판에게 농락되어 그의 첩으로, 두 달만에 내쳐진 후에는 다시 상동병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두 소설 모두, 자와 없고, 경제적 없는 조혼의 피해자인, 구여성의 앞날은 이미 '전략'으로 노정되기 마련이라는 점을 설파하고 있다. 사이킴이 있다면 「원한」에서 박참판에게 농락당한 후 이소저가 스스로 박참판을 찾아가고 성 행위를 즐기며 함유하는 모습이 그려진 부분이다. 두 소설 모두 구여성을 통해 '무절'의 방법으로, '더 이상-아닌' 새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들 소설에서 구여성들은 생활의 주체도, 목소리의 주체도 아니었다.

이에 반해 「어머니와 딸」은 구여성과 신여성의 첨예한 대립을 다루면서 여전히 울려 퍼지는 구여성의 목소리를 고양시켜 놓고 있다. 청년 한운과 소설가 김선생(신여성), 그를 사모하는 이기봉, 그리고 어머니와 딸의 다섯 명은 딸의 교육문제를 놓고 설왕설래 한다. 어머니 초경 화자 및 이 소설에서 가장 강한 목소리를 지닌 인물은 어머니이다. 신여성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사라진 1930년대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어머니는 신여성들이 마땅치 않다. 「경희」가 아버지/딸의 대립을 보여 주었다면 이 소설은 어머니/딸의 대립을 드러낸다. 가부장적 가치를 내면화 한 어머니는 '여자가 잘 나면 남편에게 순종치 아니' 한다면서 딸이 공부 더 하겠다는 것을 반대한다. 신여성으로 등장하는 소설가는, 신여성도 '참선방지도 다 잘 할 줄 알고 다구나 남편의 밥보다 자기 밥을 먹으면 더 맛있다' 면서 딸이 공부하기를 거들지만 어머니는 요지부동이다.

어머니의 주장은 기원 육설로밖에 제시되지 않고 설득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딸을 부추기는 원류이라 생각하는 소설가 신여성, 그녀를 좋아하는 이기봉, 신여성적

일을 욕망하는 딸, 그 딸을 좋아하는 청년 한 분이 모두 '신여성 가치'에 공감하면서 '딸의 신여성 되기'에 긍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경희」의 연장선 상에 놓인다. 한편 이 소설은 여전히 '독신'보다 '결혼'을 지지하고 있는데,⁹⁰⁾ 그 이유는 '남녀가 합해야 생 활통일이 되고 인격통일이 되기' 때문이다. 학비가 없다는 딸에게 학비를 반반씩 보태자는 부 분에서도, 생활 통일과 인격통일에서도 (남녀)상호부조의 사상이 확인된다(꺄정: 이본과 작품 의 지리 여부).

이상 살피본 바와 같이 「경희」, 「희생한 손녀에게」, 「어머니와 딸」, 「원숙」의 신여성 등장 소 설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바로 개조, 상호부조의 사상이다. 위 소설들에 드러난 '연대'의 정신은 '파트너십' 정신이라 규정할 수 있다. 리더십이 수직적 질서 및 각종 이분법 에 근거하여 이항대립적인 지배-종속관계를 창출하는 구조에 기초해 있다면, 파트너십은 이 러한 이분법을 제거하고 수평적 연대감과 상호 협력관계에 바탕해 새로운 상생문화를 건설하 고자 한다. 리더십이 '중심'적 보편성(지배자 중심, 부르주아 중심, 남성 중심, 이성 중심, 일 국적 지식 중심 등)에 입각해 있다면, 파트너십은 중심적 보편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보편성⁹¹⁾ 구성을 추구한다. 또한 이들이 각각 풀러임키는 감성과 차원의 파트스도 달라서 전자의 경 우 의리, 복종, 충성 등의 정서가 뒤따른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친밀감, 연대, 우정 등의 정서 가 뒤따른다. 즉 리더십과 파트너십은 그들이 의존하고 동원하는 이성과 감성의 체계가 다르 다. 젠더 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니즘 시각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가능케 하는 방법론이다. 페 미니즘 시각에 기초해 새로운 보편성을 구성하고자 하는 파트너십은 페미니즘 파트너십이라 언명할 수 있다.⁹²⁾

90) 독신을 '부피셀'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듯이 「신생활에 돌면서」, 431-2면에서도 확인된다.

91) 새로운 보편성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김복순, 「캐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소명출판, 2005, 15-25면; 「페미니즘 미학의 기본 개념과 방법」, 『여성문화연구』 제15집, 2005, 167-200면; 「페미니즘 시각과 리얼리티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제22호, 2006, 243-255면 참조.

92) 페미니즘 파트너십은 남성중심적으로 편유된 기존의 어떤 리더십 유형과도 차별성을 갖는다. 리더의 권미나 제압, 인종, 계급 등의 범주를 이항대립적으로 사용하고 편유하지 않으며, 모든 억압적, 수직적 질서를 극복하는 평화적-상호 협력적 사회를 지향하는 평화성을 지닌다. 페미니즘 파트너십은 차이를 보존하면서 보편성을 생산하는 전략이기에, 차이를 통해 차이를 재생산하는 기존의 리더십 문화와는 다른 문화를 생산/재생산하며, 다른 사회질서를 구축한다. 이상 파트너십에 관한 내용은 김복순, 「근대 초기 여성교양의 형성과 파트너십 문화론의 재보」, 『여성문화연구』 17호, 2007, 177-225면 참조.

나혜석 소설에서 '이나카 페미니즘적 파트너십'의 양상은 '초대의 수사학'이라는 독특한 수사학을 구사하는 힘에서도 눈여겨 볼 만하다. '초대의 수사학'은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수송자(정중, 독자)의 생활, 경험, 지식수준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관점으로서, 여기서의 '초대'란 '평등, 내재적인 가치, 그리고 자기결정에 뿌리를 둔 관계를 창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해에 대한 초대'를 말한다.¹⁰⁾ 초대하는 화자는 의식을 일깨우면서(consciousness raising), 환경을 제공하고, 존경과 평등의 분위기 속에서 상대방의 관심을 드러내는 것을 허용하는 외부적 조건들을 창조한다. 이러한 초대는 여성이 그들의 문화에서 가지는 일반적인 지각과 감정을 강조하면서, 연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해 주고 '공유'를 중요한 가치로 불러들인다.

나혜석의 산문 곳곳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대거 동원되어 있다. 어느 페이지를 들추어도 다들 점토로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 '우리인 여자' (265), '우리 조선' '우리는 누구인지' (263, 254, 315), '우리 일반 여자' (255), '우리 여자' (238), '우리 조선 여자' (387, 315), '우리 사람들' (267), '우리 여성' (403), '우리 불양 여자' (403) 등 잠깐만 살펴봐도 여러 곳에서 수없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우리'는 독자를 공유의 장으로 불러 오는 일종의 '초대의 수사학'이다. 남성편의 '우리'가 인간 모두를 지칭하는 남성 통칭어이거나 혹은 주로 남성들, 또는 동질적인 계층 집단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었다면,¹¹⁾ 여성들이 사용하는 '우리'는 여성계층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들의 '우리'는 여성과 다른 계층, 또는 여성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함칭하거나 지칭하기 위한 수단이다. 위에서 본 '우리'도 남성뿐 아니라 여자도 '함께'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남성들의 '우리'가 주로 조사 '가' 또는 '은'을 동반하는데 반해, 여성들의 '우리'가 조사 '도'를 동반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지위가 열악한 여성들은 자신을 이외의 대상을 포섭하여 '우리'라는 공동의 장을 형성하고, '우리'를 통해 공동체의 마토스를

10) S. Fox & C. Griffin, "Beyond consensus: a proposal for an emotional history," *Emotion and Medicine*, 62, 35.

11) "세상에 참상은 만일은 조선 나쁜대니 우리가 도해는 이 세상은 나쁜대음을 위하여 조선 인민에게 말하노라" (『독립신문』, 1898년 4월 20일 논설), "우리가 독립신문을 통해 세계와 결연하고자 우리 주의를 이바함은 우리... 우리 신문은..." (『독립신문』, 1898년 4월 7일 논설)

드러내면서 공유의 장으로 유인하는 수사적 전략을 활용하였다.”⁶⁵⁾

이와 아울러 『경희』에서 시월이를 자신과 동일시 하는 부분, 교토에서 하녀를 보고 차별과 계급을 찾는 자신을 발견하고 반성하는 부분,⁶⁶⁾ 남성평론가의 비판에 답변하면서 여성들의 ‘필연적 공립’을 호소하는 부분,⁶⁷⁾ 중국 노동자의 참혹한 노동상 및 저지의 치참한 모습을 보고 측은지심을 느끼는 부분⁶⁸⁾ 등도 이러한 파트너십이 반영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III. 남은 과제들

지금까지 나혜석은 주로 ‘최초’ ‘파괴’ ‘불꽃’ 등으로 호명되었지 ‘사상가’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지는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인식상치로서의 ‘젠더’에 주목하면서 나혜석을 여성사상가, 근대여성지성으로 새롭게 자리매김 하고 그 사상의 이론적 특징 및 예술, 특히 소설과의 연관성을 고찰해 보았다.

191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보편담론에의 중등이 가열화 되는 가운데, 당대의 남성 지식인들이 ‘민족’ ‘계급’ ‘문화’ 등을 ‘새로운 보편담론’의 키워드로 설정한 반면, 나혜석은 이와 달리 ‘인간’ ‘인류’를 호명하면서 근대성의 특수성인 ‘여성’과의 연관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남은 문제가 있다면 신여성 및 근대여성지성의 계보를 다시 작성하는 일이다. 제1기 신여성만 하더라도 나혜석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김명순과는 다른 계보에 속하였다. 『여자계』를 비롯하여 『신여자』 『폐허』에서 함께 활동했던 김원주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확인하여 계보 배치를 새롭게 하는 일도 아울러 시작되어야 한다. 또 아나카 페미니즘 계보의 1930년대 이후의 전개과정과 함께 근대여성지성(여성지식생산)의 계보를 좀더 폭넓게 접근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근대여성지성 계보에는 구여성 지식인(변모하여 차기 해방을 이룬)도 포함될 수

65) 여성 최초의 수사학과 연관하여서는 김화순, 「근대초기 여성교양의 형성과 파트너십 문화운동의 맥락」,

『여성문화연구』 17호, 2007, 211~217면 참조.

66) 『4년전 일기 중에서』, 2009

67) 『백일생에게 답한』, 225~233면

68) 『민주의 비유』, 256~257면

있다.

또 일본과의 연관성으로, 나해석이 1910년대 일본의 『시라카바』, 『세이토』와의 연관성이 있음은 이미 연구결과가 나와 있지만, 연관성만 언급된 책 구체적인 내용은 분석되지 못하였다. 일본 당대의 지적 흐름과의 관련성이 좀더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 더 나아가 일본의 타 식민지인 대만, 반식민지인 중국과, 서구의 식민지인 인도, 마일랜드 등에서 보이는 여성해방운동의 양상과 함께 비교 고찰할 필요도 있다. 동양의 동양 식민지와 서양의 동양 식민지, 서양의 서양 식민지의 경우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피는 일은 보편-특수의 여러 결합 방식을 밝히는 일이기도 하거나와 팔식민이라는 관점에서도 유효하다. 소설의 경우에도 단편 『부부』와 직전적 장편 『김명애』를 말해주는 일 외에, 현재 알려져 있는 6권에 대해서도 좀더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고찰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아울러 가능하다면, 중재는 나해석 정신과 그의 고향인 수원 지역의 학을 새롭게 쓰는 일이다. 나해석 사상(정신)이 수원이란 지역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또 나해석이 나서 거쳐 갔던 수원-일본-만주-파리 등을 연계하여 '나해석 네트워크', 더 넓게는 '아나카 페미니즘의 세계여성네트워크'를 만들어 수원-세계여성들과 함께 그 사상(정신)을 공유하고 21세기에 맞는 실천을 지향하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나해석의 사상, 운동, 예술 등을 진정 '향유'하는 방법이며, 나해석을 '통섭'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제1토론

「‘조선적 특수’의 제 방법과 아나카 페미니즘의 신여성 계보 - 나혜석의 경우 -」에 대한 토론문

김양선(한림대학교 교수)



여 백

「‘조선적 특수’의 제 방법과 아나카 페미니즘의 신여성 계보 - 나해석의 경우 -」에 대한 토론문

김양선(한림대학교 교수)

여 백

제2발표

나혜석 미술세계의 연구와 과제

윤범모(가천대학교 교수)



여 백

나혜석 미술세계의 연구와 과제

윤범모(가천대학교 교수)

- I. 화가 나혜석연구의 성과와 쟁점
- II. 화가 나혜석과 페미니즘 문제
- III. 전칭 나혜석 유화작품의 진위문제
 - 1. 대표작 〈나부〉의 진위 문제
 - 2. 금성출판사 화집의 경우
- IV. 나혜석 연구의 향후 과제

I. 화가 나혜석연구의 성과와 쟁점

정월 나혜석은 20세기 전반부의 암흑기라는 일제 강점기에서 화려한 족적을 남긴 선구자적 예술가였다. 그가 남긴 '정월 담론'은 시간이 흐를수록 영향력을 증가시켜 연구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불은 나혜석 생애가 자아낸 극단적 양면성은 대중의 호불호 관계를 동반시키기도 했다. 문제는 선구자적 예술가라는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혼외정사를 자행하면서 정조 취미론을 주장한 항녀라는 부정적 측면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잔다르크가 마녀로 처

필요되었던 여성이었지만 오늘날 그는 성녀로 추앙받는 것과 대비될 정도로 나혜석 평가의 양면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문제의 핵심, 나혜석은 '주절하는 여자'였다는 점, 이 점을 입증 하듯 생전의 나혜석은 즐기치게 뭔가 주장하면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자 했다는 점을 주목하 게 한다. 그는 두툼한 『나혜석 전집』을 편집할 수 있도록 상당량의 글을 발표한 '암흑기의 천 구적 여성'이었다.

나혜석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마땅한가. 우선 나혜석 이후 그의 존재는 무엇보다 망각속의 여성으로 역사와 전연에서 삭제되었다는 점부터 확인하게 한다. 남편이었던 김우영의 자서전 『회고』(1954)에 나혜석이라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을 정도로 완전히 무시되었던 존재였다. 차라리 삭제된 이름으로 발각의 저편에 남았었다면, 오늘날 나혜석에 대한 대중적 평가에 오히려 도움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매일신보 기자 출신 이명온은 그의 『홀려간 여인상』에서 나혜석을 부정적으로 기술하여 이후 나혜석 평가에 치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역할을 자행했다. 나혜석의 예술이나 사회사적 의의 등은 무시한 채 다만 흥미위주로 나혜석을 묘사했기 때문이다. 『홀려간 여인』의 이미지는 두고두고 악재로 남아 나혜석 원상에 가치기준으로 부각되는가 하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창작물이 제작되기도 했다. 이경성은 『미의 심자가를 쓴 여인 - 나혜석 시론』(1982)에서 도덕적 가치 대신 예술적 가치를 중심으로 나혜석을 평가하고자 시도했다. 하지만 제한된 자료 활용은 나혜석의 실재를 규명하는데 아쉬움을 남겼다. 이어 이구영의 『예미는 천각자였느니라 - 나혜석 일대기』(1974)는 이성잡지에 나혜석 글을 중심으로 연재했던 것을 출판한 것이다. 단행본으로까지 유일 정도로 많은 양의 나혜석 글을 전재하여 관철 속 연구자의 욕구를 들여주어 관심을 이끌었다.¹⁾ 뒤에 김종욱은 『나혜석 - 날아간 철조』(1980)라는 전집 형태의 글 모음집을 출판했지만 나혜석을 이해하는 데 중요 작품인 『결회』 같은 소설이나 『모된 감상기』 같은 글이 빠져 아쉽게 했다. 새로운 자료발굴과 연구자의 논문 발표는 '연애대장'에서 '페미니스트' 나혜석으로 조명받는 세기를 자아냈다. 미술사에서도 서서히 '여성미술로서의 가능성'을 조명하는 한편, 좀 더 본격적으로 나혜석의 미술세계를 탐구하기 시작

[1] 이구영의 『예미는 천각자였느니라 - 나혜석 일대기』(동화출판공사, 1974)는 후에 세월이 흐른 다음 재발판 『나혜석 불꽃같은 인생』(이리다 - 나혜석, 『지혜를 품은 여자』)를 출판했다. 하지만 개정판은 그동안 속죄의 마음으로 일부 정리를 통해 보정하지 않아 오히려 초반의 이미지에 상처를 입혀 아쉽게 했다.

했다(윤범모, 『나혜석 미술의 재조명』, 1999).¹⁾ 본래적 나혜석 전집은 이상경의 『나혜석 전집』(태학사, 2000)과 서경자의 『정월 나혜석 전집』(국학자료원, 2001)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 전집이 연구자에게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평전의 경우, 이상경의 『인간으로 살고 싶다 - 영원한 신여성 나혜석』(한길사, 2000, 개정판, 2009)이 학문적 연구성과를 반영한 단행본이었고, 윤범모는 연구서 『화가 나혜석』(2005)과 평전 형식의 에세이 『첫 사람 무덤으로 신혼여행을 가다』(2007)를 출판했다.

나혜석연구의 분수령을 이룬 것은 나혜석기념사업회의 출범과 더불어 매년 개최한 나혜석 바포암기 심포지엄²⁾이었다. 제1회(1999) 학술대회 개최 이래 기념사업회는 (바록 들쭉날쭉 수준)의 충격을 보였지만 다양한 연구자들의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여 주목 받았다. 다만 기념사업회는 학자들의 모임이 아니어서인지 심포지엄 진행에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더불어 연구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는 아쉬움을 남겼다. 나혜석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대중용 출판물이라든가 창작물이 계속 생산되는 주인공이 되었다. 영화나 연극으로부터 이러저러한 출판물에 이르기까지 그것의 종류와 수준은 천양지차를 보였다. 어떤 경우는 나혜석의 실체를 왜곡하여 표현하는가 하면 주제가 바뀌어 서술되는 경우도 있었다. 아직 학문적 연구성과가 만족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한계를 자인하지 않을 수 없지만 대중성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진 상업주의의 폐해도 적지 않았다. 나혜석 사업³⁾에 앞서 학문적 연구의 기반 다지기는 필연적 사항이었으나 이 부분 아직 체계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한다. 나혜석 연구의 심각한 분야는 문학과 출판 분야라기보다 오히려 미술 분야라고 보고 싶다.

무엇보다 나혜석의 미술작품에 대한 충분한 연구 특히 진위문제의 감정 작업이 본격적 궤도에 이르지 못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시급한 문제는 전칭 나혜석 유품작품에 대한 감정 작업이다. 현재 시장에서 나혜석 작품이라고 떠도는 그림은 대략 50점 정도이다. 이같은 숫자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문제는 이들 그림, 심지어 공공 미술관 상설전시장에 걸려 있거나, 대형 화집이나 출판물에 게재되어 '나혜석 진품'으로 대우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나혜석 작품이라고 주장되는 그림의 대부분은 국내 미술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시중에

1) 이상경, 『나는 인간으로 살고 싶다 - 영원한 신여성 나혜석』, 한길사, 2000, 462쪽

놓창된 것들이다. 하지만 이들 작품에 대한 미술 전문가들의 진지한 연구와 감정 작업은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나혜석이라는 이름 아래 몇 차례의 전시가 개최된 바 있다. 객관적 검증절차가 생략된 '나혜석 전시' 있음은 물론이다. 이같은 전시의 결정은 나혜석의 딸 기념전시인 서울 예술의 전당 미술관 주최의 나혜석 전시였다(2000). 이 전시는 '관련 자료의 황무지' 현실에서 과감하게 시도한 일종의 만용이었다. 따라서 나혜석이라는 이름의 대중성에 얽매했는지 몰라도 미술관급 전시로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했다는 오명을 벗을 수 없게 했다. 무엇보다 전시 출품작의 전문가적 검증 절차를 누락하면서까지 시중에 퍼도는 위작을 다수 진열했다는 점이다. 이같은 전시 방식은 미술관 차원의 기획전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때문에 예술의 전당 미술관의 나혜석 전시는 몇몇 장점에 불과하고 위작에 대한 크레디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개최해서는 안 될 전시로 기록하게 했다.

나혜석 연구의 성과물은 한 세대 이전과 비교하여 괄목할 만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분야에서의 나혜석 연구는 아직 초보 수준에서 그렇게 멀리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전칭 나혜석 작품에 대한 종합적 검증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화 감정 전문가가 그나마 '시명감'으로 모여 전칭 나혜석 작품의 감정 작업을 시도한 것은 수원박물관 주최 <나는 나혜석이다> 특별전(2011)에서였다. 나혜석 전시에서 이같은 작품 감정 시행은 조유의 일로 기록된다. 이 때 나혜석 진품으로 평가받은 유화 작품은 8점에 불과했다. 시중의 전칭 나혜석 작품이 50점 가량, 그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작품은 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판단을 유보하게 했고, 몇몇 작품은 완벽한 위작 판정을 받기도 했다. 화가 나혜석을 연구함에 있어 이같은 현실은 연구자를 부끄럽게 하는 부분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화가로서의 나혜석을 평가할 때, 작품의 진위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더불어 나혜석 미술세계의 연구에서 쟁점의 하나는 레미니즘 관련이다. 나혜석은 「청희」와 같은 소설 등에서 레미니즘 요소를 강하게 반영한 것처럼 미술작품에서도 반영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화가 나혜석과 레미니즘 관련양상의 유무 문제는 핵심한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다. 물론 필자는 저차된 수준임지언정 나혜석의 미술작품에서 레미니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 나혜석의 생애에 있어 말년 부분 즉 이혼고백서 사건 이후 공개적 사회활동을 자제한 시기의 평가문제이다. 과연 나혜석은 '불행한 여자의 네명사'였던가, 본고는 위와 같은 평점을 중심으로 나혜석 연구를 검토하면서 정리하고자 한다.

II. 화가 나혜석과 페미니즘 문제

나혜석은 “페미니스트 문필가였지만 페미니즘과 무관한 유미주의 화가였다. 삶과 글을 통하여 페미니스트였지만 화업에 관한 한 여류화가였을 뿐이다”라는 시각의 김홍희는 나혜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 바 있다.

“나혜석은 전기 반생은 민족주의 페미니즘, 후기 반생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시대를 살아온 근대 한국 여성운동사의 목격자이자 실천자인 셈이다. 즉 그녀는 1910년대에는 민족주의자, 1920년대에는 자유주의의 영향 하에서 계몽적 페미니스트로서 활동하는 한편, 1930년대에는 그 당시 파급된 사회주의 페미니즘에 연루되는 대신에 자유연애와 에로티시즘을 표방하는 극단적이고 퇴폐적인 자유주의자의 길을 택하였다. 나혜석의 페미니즘은 결국 민족주의와 자유주의의 양극 사이에서 계몽주의로부터 자유연애주의로 선회한 셈이다. 나혜석이 표방한 페미니즘은 총체적으로 볼 때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결합된 계몽적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초기에는 계몽적 민족주의의 성격이 두드러지고 말기에는 퇴폐적 국만의 자유주의 경향을 보이지만 그녀의 의식 속에는 두 가지 사상이 하나로 융해되어 있다. 페미니스트로서의 나혜석의 의식이 민족주의와 자유주의에 기반하고 있는만큼 그녀의 사상적 모순도 그것으로부터 유래한다.(...) 극단의 연애이상주의나 에로티시즘은 서구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왜곡된 이식을 반영한다. 나혜석의 유미주의 미술활동 역시 서구적 가치관, 부르주아 미학, 개인주의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사회나 공동체 의식보다는 사생활, 현실보다는 환상, 비판적 발언보다는 미적 표현에 유념하는 부르주아 자유주의 사상이 작품적 예술, 순수예술을 신봉하게 만든 것이다.”³⁾

나혜석 미술의 페미니즘 부재론을 주장한 김홍희의 시각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이의를 제기

3) 김홍희, 『나혜석의 양면성』, 『여성과 미술』, 논비, 2008, 292쪽

한 점으로 박계리를 들 수 있다. 그는 필자의 논고를 소개하면서, “나혜석을 ‘근대여성문화사의 선구자적 기호’, ‘1910년대 유희계의 선구자’, ‘지열한 작가활동을 보인 전업작가’로 평가하면서, 출처 불명의 대작과 위작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나혜석 회화에 대한 설부는 단절을 정계하고, 비록 초기 삽화의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페미니스트 요소가 존재함을 강조하였”다고 전제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감하게 펼쳤다.⁸ 박계리는 나혜석 작품 가운데 페미니즘 주제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품으로 〈남랑요〉(1925)와 〈천후궁〉(1926)을 들었고, 후자의 경우는 ‘고봉 받는 보원여성의 자궁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파악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정원〉(1931)은 ‘나혜석의 조형적 불결화 중에서 신여성으로서의 타락과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걸작’이라고 평가했다.

“〈정원〉에서 클뤼니마불란의 비분은 여성의 음분을 상징하며, 중앙의 십자형의 기둥과 보는 기능교라는 중세적 가부장적 미대올로기 아래에서 여성에게 강요되었던 성적 불결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십자가형의 절조대, 혹은 페니스가 여성의 음분에 박혀있는 형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케면 〈정원〉은 나혜석의 파리에서의 정조관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반영하는지도 모른다. 그가 남편 김우영이 베를린에 있는 사이, 정조에 대한 인습적 관념을 조롱하듯 최인과 혼외정사를 벌인 곳이 바로 파리였다. 그리고 그는 ‘나를 죽인 곳도 파리다. 나를 정말 여성으로 만들어 준 곳도 파리다’는 유명한 외침을 통해 혼외정사를 통해 참다운 여성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남편에 대한 정조라는 스스로의 속박을 풀어버린 그에게 〈정원〉 즉 클뤼니수도원의 정조대는 여성에게 맞서는 파망라 벗어던져야 할 인습의 굴레, 그 표상에 다름이나였을 것이다. 그가 구미관을 직후가 아니라, 이효한(1930) 다음에서야 스케치 중에 서 이 모티프를 꺼내어 제작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렇게 볼 때, 『정원』은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과 야만적 폭력의 역사에 대한 통렬한 풍서이지 인습

8 박계리, 『나혜석의 회화와 페미니즘』 중경화문 통신으로, 『제2회 나혜석 파르일기 원모의원』(자료집), 나혜석기념사업회, 2013, 193쪽

최 침조판에 고통받는 구여성의 음문을 통한 각성의 촉구임과 동시에, 혼외정사를 통해 참다운 여성성을 깨달았던 파리식기에 대한 자기합리학적 회고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⁵⁾

나혜석의 <정원> 작품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은 한마디로 신선하면서도 도발적이다. 유럽의 평범한 풍경을 통하여 추출해낸 의미, 그것은 바로 억압받는 여성의 입장에서 끌어낸 통렬한 풍자이며 구여성의 각성을 촉구하는 외침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나혜석 자신이 위와같은 분석내용을 의식했던 혹은 의식 하지 않았던 ‘작품 해석’에 풍요로움을 제공한 것만은 사실이다. 박재리는 나혜석의 미술작품을 아카데미즘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페미니즘 시각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그것의 바탕에 나혜석은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페미니스트 의식으로 작업을 했기에 자유주의자 혹은 유미주의자로 본 기존의 시각을 거부했다.

나혜석 미술작품을 페미니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분석한 논문으로 김화영의 「‘유방’을 읽는다는 것(2006)을 들 수 있다. 이 글은 나혜석의 <나부>(1931)를 분석한 바, 기왕의 여성 나혜석이 그리스적 건강한 육체미를 동경하면서 풍만한 유방을 묘사한 반면 나혜석의 작품은 초라하고 마른 유방이라면서 아래와 같은 해석을 시도했다.

“나혜화에서 늙어진 ‘유방’은 ‘몸’과 결부되어 시간의 추이를 나타내고 悲哀와 탐욕이란 죄를 나타내는 표상으로서 사용되어 왔다.(...) 로댕의 <아름다웠던 오미에르>는 늙은 여자의 육체가 땅에 떨어져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여기에서 로댕은 나이가 들어가는 여체의 시간적인 추이와 함께 ‘인생의 덧없음’을 여실히 표현하고 있다. 이들 늙은 여자의 처진 가슴은 ‘여성의 나이 들’과 ‘생식능력의 상실’과 결부되어 예술가가 그리려고 하는 주제를 명확하게 들어내고 있다. 그러면 <나부>의 모델의 얼굴을 들여다보자. 나부의 얼굴은 로댕과 뒤러의 작품에 출현하는 노부의 얼굴이 아니라 젊은 여성의 얼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가슴은 늙어져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나부>의 가슴이 시간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서는 〈나부〉에 그려진 날어진 가슴을 생각할 때에 있어서 유방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眞實의 의미인 '모성'이라는 키워드로 생각해 보기로 한다.(...) 〈나부〉에는 어머니만 존재하고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녀의 얼굴은 젊고 당당하다. 그녀는 어머니이면서 그 산채를 부끄러워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여성의 신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나혜석은 기존의 여성의 '겉'의 문제를 제기하고 근대와 함께 여성에게 갖춰져야 하는 '실'의 여관에 대한 반향을 문장과 나체화를 통해서 표현했던 것이 아닐까? 그것은 지금까지 아름다운 자연의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기원이 흐서히 유방이 아니라 위대한 표상이었던 유방을 축 치킨 유방¹⁰⁾으로 그리는 것으로 나혜석은 여성의 '성'의 아이덴티티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¹¹⁾

나혜석의 작품 〈나부〉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은 참으로 흥미롭다. '날어진 유방'의 의미를 여성의 아이덴티티로 보고 모성이라는 키워드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하여 〈나부〉는 여성의 몸을 과감하게 나체화로 승화시켜 남성중심적인 가치관에 도전한 것이란 다. 물론 나혜석은 이와 같은 의도를 염두에 두고 작품화했다는 증거는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부〉의 모델은 서양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그는 직업모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미술 실기실에서 모델은 남녀는 물론 다기다양한 신체적 특징의 보유자를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게 한다. 〈나부〉의 나체 모델이 비록 '쳐진 유방'을 가지고 있다해도 그가 직업모델이라면, 게다가 모델의 사진이 정면을 응시하는 것도 아니고 측면을 바라보는 자세라 한다면, 여성성을 강조한 정공법의 페미니즘 작품으로 해석하기에는 주저되는 바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혜석의 미술작품에 함유된 페미니즘 요소를 적극적으로 추출하려는 시각은 신선하다고 판단된다.

10) 김화영, 『유방을 읽는다는 것』 나혜석의 나체화에 나타난 여성, 10, 『제1회 나혜석 비포럼』 심포지엄4(작품읽), 2008, 31~45쪽.

II. 전칭 나혜석 유화작품의 진위문제¹⁾

유존작품만으로 화가 나혜석을 평가할 때, 한마디로 나혜석은 매우 불리하다. 무엇보다 유존작품 숫자가 적다. 나혜석의 작품이라고 세상에 퍼돌고 있는 유화는 대략 50점 정도이다. 문제는 이들 작품의 수준이 별로 높지 않다는 점이다. 3류의 태작들도 다수 끼어 있어 작가의 명성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니,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나혜석 작품이라고 알려진 상당수의 그림들이, 과연 나혜석 진품일까, 악문이 들 정도로 진위문제로부터 자유스럽지 않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은 전칭 나혜석 유화작품에 대한 종합적 검증작업이 절실했음을 의미한다. 수원박물관 주최의 나혜석 특별전을 계기로 유화 전문 감정위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전칭 나혜석 작품에 대한 진위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²⁾ 결론부터 말한다면, 격렬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 나혜석의 진품으로 합의된 작품은 일단 8점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고 싶다. 과반수 이상은 판단을 유보하게 하는 나름대로 하자가 있거나 참고자료 미비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몇몇 작품은 위작으로 재감정되어 목록을 재작성하게 하기도 했다. 문제는 출처가 확실한 나혜석의 기준작이 최소한 상황에서 그 어느 누구도 나혜석 작품의 진위문제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불어 1970~80년대 나혜석 작품이라고 시중에 나와 전시장을 장식할 때, 체계적 검증작업이 없이 그대로 나혜석 진품으로 '봉인'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나혜석의 진품이라고 미술관에 걸려 있거나 도록에 게재된 대다수의 작품은 미술시장이 형성된 이후인 1970~80년대에 '어름뎡하게' 출현된 물건들이다. 나혜석 작품에 대한 공개적 검증 절차도 실시한 바 없고, 관련 논문이 발표된 바도 없다. 검증 절차가 생략된 채 나혜석 진품으로 세상에 퍼돌고 있는 전칭 나혜석 작품들, 이들이 주는 피해는 적지 않다.

나혜석 작품을 감정함에 있어 무엇보다 안타깝게 하는 것은 현존작품 가운데 기준작이 없다는 점이다. 수준급 작품이면서 이른바 '죽보' (작품 출처 혹은 소장 경로)가 확실한 작품이 기

1) 본고의 제3장은 종고 『화가 나혜석의 특성과 진정 작품의 문제』, 『나는 나혜석이다』, 수원박물관 특별전 도록, 2011)의 부분 진재이다. 향후 본격 논문에서는 주장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 점 해명을 희망.

2) 2010년 10월 27일 인사동에서 이구열, 신옥경, 송형철, 윤범모, 정준모 등 모여 7월에 나혜석 작품으로 알려진 작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감정 작업을 실시했다. 드문과정에서 이구열은 자신이 주관하여 편집한 『한국근대미술관』 나혜석 관련 자료의 작품진위 여부 진폭이라는 주장을 하고 중도 이탈한 바 있다.

의 없기 때문에 기준작을 마련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의미한다. 이는 작품 발표 활동을 열성적으로 실천한 나혜석의 경우, 정말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어찌하여 이렇듯 안타까운 상황에 몰려 있을까. 나혜석이 조선미전에 출품했던 18점의 작품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조선미전 출품작 가운데 단 한 점이라도 남아 있다면, 당연히 그 작품은 나혜석 작품세계를 평가하는 기준작이 될 것이다. 나혜석은 생애의 첫 번째 유화 개인전(1921)에서 70점의 작품을 발표했다. 서울에서 개최된 최초의 유화 개인전. 그것도 화가가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관객으로부터 폭발적 관심을 끌었던 개인전이었다. 당시의 보도에 의하면 여러 점의 작품이 판매되었으나, 현재 유전되지 않고 있다. 새계일주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나혜석은 1929년 수원포교당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하지만 포교당 전시와 관련된 자료는 현재 전무하다. 1935년 나혜석은 소품 200점으로 개인전을 개최했다. 역시 이 전시와 관련된 자료는 전무하다. 일제 강점기에 나혜석처럼 다량의 작품을 발표한 유화가는 없다. 더불어 나혜석은 다수의 작품을 판매했다. 이같은 표현은 나혜석 작품이 산재되어 어디가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천입화가의 작품, 대중과 친숙하게 만났던 많은 작품들, 모두 어디에 있을까. 소품 200점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나혜석이 생전에 발표한 300점 가량의 작품 숫자는 획기적 사례에 해당한다. 해방 이후에 제작활동을 본격화한 박수근이나 이중섭의 경우, 생애에 걸쳐 제작한 작품은 대개 300~400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것도 전시 출품작의 경우는 매우 희소하여 '족보' 부문에서 야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혜석의 경우는 다르다. 아직 유교의 예술 전시사상이 강하게 남아있던 20세기 전반부의 식민지 시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나혜석의 제작활동은 획기적 사실이라고 강조하게 한다.

1. 대표작 〈나무〉의 진위 문제

〈나무〉(삼성미술관 리움 소장)라는 유화는 그동안 나혜석의 대표작으로 평가를 받아 왔다. 나혜석 관련 책의 표지화로 '등록'될 정도로 우세를 만났던 작품이었다.²⁾ 하지만 똑같은 그림이 도쿄도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무〉의 진위문제가 수

2) 이우현, 『나혜석의 미술대회』(서울: 창원출판사, 2011), 334~335쪽.

린 위로 비올았다. 도쿄의 작품은 구메게이치로(久米桂一郎)의 〈습작〉이다.¹⁰⁾ 구메게이치로(1866~1934)는 역사학자의 장남으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서양미술에 관심이 많았다. 1886년 프랑스 유학 길에 올라 라파엘 콜랭의 문하에서 공부했다. 구로다 세이키(黒田清輝)와 친해져 공동생활을 하며 제작하기도 했다. 구로다가 인물화에 치중했다면 구메게이치로는 풍경화로 자신의 예술세계를 구축했다. 엄격한 자연관찰 아래 섬세한 필치는 화풍상 그의 특징이기도 하다. 구메게이치로는 7년 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 당시 일본화단은 안이한 화색주의(畫色主義)와 암조(暗調)된 색채에 의한 형해화(形骸化)한 사실주의로 몰두해 있었다. 하지만 구메게이치로의 평명(平明)한 제재(題材)와 인상파풍의 밝은 색조 특히 외광파(外光派) 화풍은 젊은 인재들을 이끄는 요인이 되었다. 구로다의 나체화 발표에 따른 나체화 논쟁이 일자 그는 나체화 옹호론을 발표하기도 했다. 도쿄미술학교가 신설되자 그는 그곳에서 서양고고학, 해부학 등 화학(化學)의 기초과목을 담당했다. 그는 작가 이외 미술교육자 혹은 미술행정가로도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여 일본 아카데미즘 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¹¹⁾ 이렇듯 일본 미술계의 거물급이었던 구메게이치로의 작품을 미술학도가 모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혜석도 도쿄 유학시절에 그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며, 어쩌면 그의 인상파 화풍에 호감 가졌을 가능성도 높다. 나혜석의 도쿄시절과 인기화가로서 구메게이치로의 활동 기간과 겹치기 때문이다.

구메게이치로의 〈습작〉은 제작년대 미상으로 되어 있다. 다만 제목이 〈습작〉이라는 점, 그리고 필치가 유려하지 않아 초기작품으로 추정된다. 이 작품은 별거벗은 인물의 뒷모습 상반신물 화면 가득 묘사한 것이다. 모델은 오른손으로 의자를 짚고 비스듬히 걸터앉아 신체상 동세(動勢)를 주면서 안정감을 지아낸다. 인체는 물론 배경까지 옅은 백색 계통으로 처리하여, 즉 평면적 접근에 의해 그림의 '깊이'와 다소 거리를 두었다. 이같은 분위기는 〈나부〉에서도 동일하다. 다각적으로 검토할 때 〈나부〉는 〈습작〉을 모사한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모사와 문제를 생각해 본다. 미술작품에 있어 모사의 목적은 대충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즉 종교상 교

10) 구메게이치로의 〈습작〉은 『久米桂一郎 作品集』(1935)에 의하면 제작년대를 1889년으로 표기되었고, 소장가는 화가 小林龍彦으로 되어 있다. 현재 東京都現代美術館 소장의 이 작품을 주면 역시 소장자는 小林龍彦으로 표기되어 있다.

11) 河北倫明 監修, 『近代日本美術系図』, 講談社, 1989, 192~193쪽

의(敎義)에 의한 도상의 계승을 위한 것, 작품암식의 계승을 위한 것, 미술 수학을 위한 것, 작품 보존을 위한 것 등이 그것이다. 원작의 보존이나 암식의 계승문제를 별도로 친다면 대개의 미술품 모사는 학습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습작기의 미술학도에게 명화 모사는 중요한 교육 방법의 하나이다. 사해(謝海)의 육법(六法)에도 전이모사(傳移模寫)라 하여 필자의 모사를 비유 있게 다루었다. 미술학도가 스승의 작품이나 과거의 명작을 모사하는 행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아예 경우에 따라서는 권장사항이었다. 하지만 이른바 나혜석의 〈나부〉의 경우는 미려적인 예에 해당하여 세심한 검토를 요한다.

〈나부〉는 〈습작〉의 모사화가 분명한 바, 다만 다른 점은 서명부분이다. 〈나부〉의 왼쪽 아래에 'N. S. RUIA'라는 작가서명이 두드러지게 표기되어 있다. 이는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지 않을 수 없다. 대가의 작품을 모사하면서 자신의 창작불인양 본인의 이름을 서명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모사화는 모사화일 따름이다. 창작의 세계에서 모사화와 창작품의 구별은 엄격하다. 나혜석의 경우, 모사화를 창작품인 양 모사화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영문표기와 서체가 이질적일만큼 자연스럽지 못하다. 절직한 서체, 거기다 캔버스의 바탕 색조와도 부조화를 이루어 여러모로 의문스럽게 한다. 이 내복에서 〈나부〉의 작가에 대한 몇 가지의 가능성을 고려하게 한다. (1) 나혜석 자신이 구메게이치로의 〈습작〉을 모사하고 자신의 서명을 한 경우, (2) 나혜석 자신이 〈습작〉을 모사했으나 서명은 추후에 제3자가 추가한 경우, (3) 제3자가 〈습작〉을 모사하고 나혜석 이름을 표기한 경우. 물론 이같은 3가지 방식에 대한 가능성은 모두 열려 있다. 하지만 (1) (2)의 가능성은 배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모사와 창작의 영역조차 구별하지 못할 만큼 나혜석이 몰상식하지 않더라는 점, 서명 부분의 부드럽지 못할 정도로 어색한 서체, 그리고 바탕 색깔과 서명 색깔과의 부조화 등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느끼게 한다. 그렇다면 〈습작〉은 나혜석과 무관한 제3자에 의해 그려진 모사화를 가지고 나혜석 작품으로 둔갑시킨 '명의 도용'의 위작에 해당할 가능성을 고려하게 한다.

〈나부〉라는 제목은 모델이 여자의 몸이라는 뜻을 전제한다. 하지만 〈습작〉의 모델은 여성이 아닌 남성의 몸이다. 말쑥한 어깨와 굴곡 없는 허리의 선 그리고 근육질의 몸매는 남자의 신체함을 입증한다. 특히 다리를 벌리고 앉은 모델의 자세는 아무래도 여성의 일반적 포즈와 거리

가 있다. 필자는 <습작>이 출품된 '재고(再考) 근대일본의 회화' 특별전시장에서 오랜 시간 원화를 조사한 바 있다. 도판과 달리 원화 앞에 있을 때의 첫인상은 작품의 모델이 남자 몸이라는 사실이었다. 필자는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전시장에서 여러 관객들에게 <습작> 모델의 성별에 대하여 질문해봤다. 물론 그들은 나혜석의 <나부> 관련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었지만, <습작>의 모델은 남자의 몸이라고 대답했다. <나부>의 모델이 여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품 명제를 <나부>라고 붙인 것은 무엇보다 작가 자신이 작품 제목을 붙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나혜석과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이 그림에 대하여 <나부>라고 명명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전의 미술계 관행은 그랬다. 미술작품의 나체 모델하면 으레 여성들의 전용으로 알았다. 한국의 경우, 남성 모델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모사화 <나부>가 제3자에 의해 나혜석 작품으로 둔갑시킨 것이라면 이 경우 명백한 위작에 해당한다. 그동안 나혜석의 대표작으로 알려왔던 작품까지 이렇듯 진위문제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다면 여타의 전칭 나혜석 작품의 진위문제는 총체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믿어진다.

2. 금성출판사 화집의 경우

금성출판사는 『한국근대회화선집』(전27권)이라는 화집을 출판하면서 그 첫째 권으로 나혜석 면을 두었다(1990). 이 화집은 나혜석 작품이라면서 모두 18점의 작품을 도판으로 소개했다. <천축교>처럼 기왕에 나혜석 작품으로 알려진 작품 이외 새롭게 '발굴'한 작품까지 몇 점을 게재했다. 금성판 화집이 시사하는 상징성은 매우 크다. 오늘날 '화가' 나혜석이 자아내는 특성(혹은 약점)을 여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록작품의 수준이 들쭉날쭉 고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게 한다. 진위문제를 떠나 이렇듯 대작을 포함한 심한 중차의 작품 본조(혹은 선별)는 화가 나혜석의 불리한 상황을 의미한다. 화집에 수록된 도판은 번청(자화상)으로부터 유럽 풍경 그리고 <별장>과 <화림전 벽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18) '재고 근대일본의 회화' 특별전은 도쿄도현대미술관에서 2014년 4월~8월에 개최된 바 있다.

화집에 수록된 〈농촌 풍경〉의 예를 살펴보자. 이 그림은 한마디로 기량이 떨어지는 졸작이다. 조선미전 출품작인 〈물〉(1922)이나 〈농가〉(1922) 혹은 〈봉황산〉(1923) 등의 작품과 비교한다면, 〈농촌 풍경〉은 도저히 같은 작가의 필치로 인정하기 어렵게 한다. 무엇보다 나혜석 특유의 탄탄한 묘사력이라든가 공간감이 확실히 구성된 구성력 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기초 세팅 능력조차 의심스럽게 할 정도로 초보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집의 해설에 의하면, “현존하는 가장 오랜 나혜석의 이 작품은 당시의 기법적인 실상과 색채감각을 확인시켜 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다. 게다가 작품으로서의 내면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 유화실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사실적인 표현이지만 붓놀림이 매우 활달하고, 따뜻한 이른 봄의 햇빛과 날씨의 맑음을 느끼게 하는 밝고 따뜻한 색채구사가 저력있게 이루어지고 있다.”¹⁰⁾ 〈농촌 풍경〉에 대한 이같은 극찬은 동의하기 어렵게 한다. 기초 대생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문외한의 습작 수준의 그림을 두고 이렇듯 의미부여할 수 있을까, 게다가 무슨 근거로 ‘현존하는 가장 오랜 나혜석의 작품’이라고 단정했을까. 아무튼 위와 같은 주장을 보다 설득력 있게 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논증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고 믿어진다.

〈농촌 풍경〉과 함께 문제점을 제시한 작품으로 〈인천 풍경〉을 들 수 있다. 해설에 의하면, “보통 합판에 그리다 만 상태인 이 작은 도시풍경은 뒷면에 ‘인천에서 나혜석’이라고 적힌 대로 인천에서 본 풍경인데, 유채표감을 제대로 쓸 수 없었던 생활고의 실정과 작품 기량의 현저한 퇴색이 너무나 역력히 드러나 있다. 그런대로 유채의 붓놀림이 이루어진 것은 붉은 벽돌의 중심적 양관(洋館)과 그 앞의 건물 부분 뿐이고, 배경의 하늘과 앞쪽의 도로는 약간의 색상 흔적으로 그쳐 있다. 구도 설정만이 저력의 잔존을 엿보게 한다. 작력으로 생활고를 해결하고자 1935년 서울의 한 전시장에서 ‘근작 소품전’이란 이름으로 마지막 개인전을 가졌을 때에 출품했던 것의 하나인 것 같다.”¹¹⁾ 역시 대단한 주론이다. 무슨 근거로 〈인천 풍경〉이 1935년 근작 소품전 출품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이 그림은 나혜석 특유의 구축적 공간감과 거리가 별다른 화풍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나혜석은 조선미전에 〈초하의 오전〉(1924), 〈남

10) 이부영, 『도화 예술』, 『한글서체디자인』(1), 삼성출판사, (1988), 117쪽

11) 이부영, 앞의 글, 121쪽

황묘》(1925), 《화가촌》(1930), 《창가에서》(1932) 같은 건축을 소재로 한 작품을 출품했다. 이들 작품의 특징은 무엇보다 원근에 따른 확실한 공간감, 건축물 외형의 뚜렷한 윤곽처리, 안정적이고도 짜임새 있는 구성력 등을 들게 한다. 하지만 《인천 풍경》은 불행하게도 위와 같은 특징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근경의 서툰게 표현한 기와지붕 등 건축물과의 유기적 공간감의 실종은 작품성의 저급한 수준을 의미한다. 물론 태생 부분에서 정화하지 않아 짜임새 있는 구성력과도 거리가 있음을 주목하게 한다. 아무리 선의로 보려고 해도 《농촌 풍경》이나 《인천 풍경》은 태생의 기초실력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저급한 솜씨의 습작이라고 판단된다. 나혜석의 조선미전 출품작 수준과 비교하면, 이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인천 풍경》은 베니다 합판 위에 그린 그림으로 이는 재료상의 문제점을 고려하게 한다. 일제 식민지 시절의 하드보드 합판과 달리 여기의 베니다 판은 1950년대 이후에 사용하기 시작한 재료이기 때문이다. 1930~40년대의 합판은 집선보드가 아닌 하드보드가 일반적 재료이다. 《인천 풍경》은 미군 진주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베니다 합판이어서 의문스럽게 한다. 화풍과 재료의 특징을 고려하여, 특별 감정위원회에서는 이들 작품을 진품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무희》(국립현대미술관 소장)는 파리지질 현지에서 제작한 것으로 주장되어 왔다. 하지만 이 그림은 연구 대상임을 확인하게 한다. 무엇보다 3류의 태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대 위의 여성 2명을 소재로 삼은 이 그림은 무엇보다 인체 태생의 실력과 거리가 먼 수준을 보여준다. 거의 10등선에 가까운 정도로 참신의 여체는 인체의 골격을 잃고 있다. 한마디로 기다란 막대기 위에 거대한 무대자루를 얹어 놓은 것 같은 형상이다. 인체의 비례감은 물론 해부학적 표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졸작이다. 아동 수준의 얼굴 표현, 특히 이복구비의 표현은 하수의 참씨임을 확인하게 한다. 게다가 옷주름의 표현은 질감과 무관하게 되어 태생 실력이 없는 아마추어의 솜씨처럼 보이게 한다. 나혜석이 인물화보다 풍경화를 선호했다 하지만 《무희》처럼 표현력이 없는 화가는 아니라고 믿는다. 이런 점에서 《무희》는 진위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유일의 국립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나혜석의 대표작(?) 《무희》의 과감한 위거를 요구하게 하는 부분이지 않을 수 없다.

금성관 화실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감정위원회가 진품으로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자화상》, 《파리 풍경》, 《스페인 국경》, 《스페인 배수욕장》, 《한죽교》, 《별장》, 《화려한》 등이다.

〈자화상〉은 기왕에 알려진 나혜석 인물사진과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작품재목의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낯설이 느껴 강조된 얼굴은 서구 여인의 인상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오히려 살롱 드론느 입선작인 이종우의 〈어느 부인상〉(1927)의 모델을 연상시키는 모델이다. 이종우의 모델은 그가 다니던 미술연구소의 백개 러시아 계열 화가의 부인이다. 이종우 작품은 이복구비는 물론 신체의 윤곽선을 뚜렷하게 묘사했지만, 얼굴이 주는 인상은 나혜석의 작품과 유사한 면도 없지 않다. 굳이 나혜석의 자화상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있을는지 재고를 요한다. 이 작품의 특기 사항은 작품의 하단 좌우에 HR 합성 영문자와 ‘제석’이라는 한글 서명이 양측으로 나뉘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 또한 이례적인 사례에 해당되어 모델의 주인공과 더불어 점도 대상이 된다. 유럽 풍경은 비슷한 필치이나 그렇게 우수한 작품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주저하게 한다. 〈별장〉이나 〈화령전 좌익〉 그리고 화집에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해인사 홍유동〉 등은 속도감 있는 필치와 중첩된 질감 표현 등의 공통점을 확인하게 한다. 한때 의문의 대상이었던 〈화령전 좌익〉은 화동상 비교 대상이 되는 〈해인사 홍유동〉 작품이 출현되는 바람에 이번 감정위원회에서 진품으로 확인했다. 다만 작품 후면에 작품 제목으로 “海峽” 이 아니고 “海峽”이라고 표기되어 추후 검토의 여지는 남겨놓고 있다. 화령전은 청조대왕의 적당인 바, 바로 나혜석의 생가 골목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어쨌서부니 골목을 출입하면서 볼 보았던 건물 아를조차 오기한 나혜석일까, 의문 사항이다.

IV. 나혜석 연구의 향후 과제

화가 나혜석의 연구사를 일별한 결과, 중요한 현안은 무엇보다 나혜석 전품의 발굴과 전칭 작품의 진위문제 감정이라는 것을 재삼 확인하게 한다. 이른바 가짜 작품 가지고 쓴 연구논문은 보래위의 짐과 같기 때문이다. 실제로 명백한 위작을 예로 들면서 논문을 작성한 연구자가 한 두명이 아니어서 발자를 불편하게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자 한다. 이같은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혜석 연구 중심 기관의 설립이 절실하다. 다행히 수원시는 나혜석기

병환 건립을 추진중인 바, 이 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나혜석 연구의 본궤도에 오른 것을 기대하게 한다. 향후 나혜석 미술의 연구는 관련 작품/자료의 수집, 보존, 연구, 교육, 기념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관련 작품과 자료의 집대성이다. 유화의 경우, 시료의 채취와 과학적 분석 데이터 확보를 기초로 한 감정문화의 정착을 추진해야 한다. 재료의 과학적 분석과 전문 감정가의 정밀 감정 작업의 병행 그리고 관련 전문학자의 양성 등 시급한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나혜석 미술작품의 해석 문제는 사실 위의 감정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보의 자세를 비할 수 없게 한다. 원작의 확인은 미술사 연구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관련 연구 역시 작품의 진위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을 요구한다. 그밖에도 불구하고 나혜석 관련 자료의 발굴작업의 박자를 요구하고 있음은 재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혜석 세계와 관련하여 '해석의 문제'는 계속 유효하다. 페미니즘 관련 해석의 문제도 그렇지만 나혜석 생애 특히 후반기의 생애 대한 해석의 문제도 재검토를 요구한다. 나혜석의 이른 '사건' 이후 특히 「이혼고백서」 연재와 친린 상대의 범정 제소 사건(1934) 이후의 사회활동 중 자체 기간의 해석문제이다. 이 부분 대부분의 시각은 나혜석의 몰락으로 판단하여 불행한 말년으로 표현해 왔다. 과연 이혼 이후의 나혜석은 불행한 삶의 연속이었을까. 이혼 이후의 시기를 나혜석의 불행으로 간주한다면, 여성운동가 나혜석의 인생은 참패한 인생으로 기록된다. 하지만 후반기 나혜석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오히려 전반부보다 의미 있는 인생으로도 해석 가능하게 한다.

나혜석과 관련된 남성들, 즉 이광수, 최린, 김우영은 일제말 대표적 친일 인사로 해방 이후 반민족 특위의 법정에 올라 민족의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나혜석은 친일 문제로부터 자유스러운 행보를 보였기에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 과연 누가 불행한 인생의 소유자였는가. 나혜석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남자 혹은 부유한 남자와 재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비승비속의 입장을 선택하여 무소유의 삶을 영위했다. 철저하게 불교적 생활관을 지키면서 무소유를 실천한 무애행의 자유인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림 그리기와 글 쓰기를 꾸준히 실천한 예술가였다. 사회적 발표활동만 자제했을 뿐, 나혜석은 만년에 이르도록 작품 제작에 소홀히 하지 않은 전업작가의 범본을 실천한 작가상을 보였다. 그는 작품을 팔아 최소한의 생활비를 해결하면서 자유인으로 일찍의 시대를 통과하고자 했다.

“나혜석은 행복한 여성이었다.” 나혜석의 장녀 김나영 여사와 딸자는 그의 보스톤 아파트에서 단독 인터뷰를 실시한 바 있다.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는 최초의 자리, 그의 증언은 기왕의 알려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았다. 다음은 나혜석 인생의 평가에 대한 우리들의 견해이다.

김 : (어머니의) 고집 낸 것은 뭐라고 할까, 상식의 수준이 아닌 예술가로서의 고집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예술가의 고집. 내가 하는 일이 바른 길인데 왜 그러느냐, 하는 고집으로 산 것 같습니다. 고집으로 살았기 때문에 외생도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고집으로 살다가 갔으니깐 그는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She was Lucky!!! (웃음) 동글게 사는 것이 한국여자들의 운명인데, 그렇지 않게 살려고 했으니...

준 : 대부분의 사람이 정월의 만년은 불행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같은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월선영은 아흔 호 일제말기의 암흑기를 살면서도 자신의 소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습니다. 말뿐만 하지 않았지 예술가로서의 소신은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월의 만년은 불행했다’라고만 단정짓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불행의 반대어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김 :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깨끗하게 살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¹⁰⁾

나혜석의 만년은 불행만의 연속이라고 볼 수 없다. 일제 강점기의 암흑기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으니 오히려 행복한 여성이었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혜석의 문제점을 다시 부상시키는 대목이다.

더불어 화생시절의 나혜석이 보여주었던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917년 여자미술학교 졸업식에서의 일이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축퇴의 여흥 자리에서 장기 자판 비슷한 프

10) 종자, 「정월 나혜석의 장녀 김나영 여사와의 대담」, 『희망 나혜석』, 한양사, 2005, 317면

도그람이 몇 가지 소개되었다. 여기서 '서양화와 고등사범과 제2학년 나혜석'은 '조선어 창가'를 불렀다. 나혜석이 졸업식 축하 파티에서 조선어 창가를 불렀다는 점은 나혜석의 민족의식과 관련되어 흥미로운 부분이지 않을 수 없다. 나혜석 관련 해석의 문제를 보다 풍요롭게 해 주는 일화가 아닌가 한다.¹⁷⁾ 이 집 1930년대 도쿄 문화학원 재학생이었던 이중섭이 종강 파티에서 꼭 조선어 노래를 불렀다는 증언을 연상시켜 흥미롭다.

향후 나혜석 연구과제는 국내외에서의 작품과 관련 자료의 발굴, 연구자의 양성에 의한 연구성과의 중요로움을 실천하는 것이다. 관건은 자료이고 해석의 문제이다.

17) 이차미술학교 교수회, 『이차미술학교 교수회 잡지』, 사립이차미술학교, 1917, 102쪽

여 백

제2토론

「나혜석 미술세계의 연구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박계리(미술평론가)



여 백

「나혜석 미술세계의 연구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박계리(미술평론가)

윤범모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나혜석 미술세계의 연구와 과제」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나혜석 연구의 성과들을 정리하면서 현재 나혜석 연구의 쟁점들을 분석해주셨습니다. 특히 나혜석 연구의 토대가 되는 건위문제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나혜석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논쟁점들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이전에 발표하신 글을 통해 지적한 바 있는 〈나부〉의 문제도 이후 연구들을 촉발시켜 주셨는데, 오늘의 발표가 또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들을 통해 활발한 토론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동안의 나혜석 연구를 뒤돌아보면, 윤범모 교수님도 '나혜석 연구의 본수령'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신 것처럼, 나혜석기념사업회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술사 분야에서도 오늘 발표하신 윤범모 교수님을 비롯하여 나혜석에 대해 평소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었던 저명한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나혜석에 대한 연구를 하진 않았지만, 좋은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계신 미술사학계의 여러 저명한 학자님들이 이 기념사업회에서 매년 개최한 '나혜석 바로알기 심포지엄'을 통해 나혜석에 관심을 갖고 좋은 성과들을 발표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학계에서 나혜석에 대한 관심을 보다 증폭시키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학제간 연구가 매년 심포지엄을 통해 진행됨으로써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

이력의 친척 네트워크가 발생되고 그 속에서 하세간의 소통이 자발적으로 증폭됨으로써 바로 오늘과 같은 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유동준 회장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윤범모 교수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나혜석 연구의 향후 과제' 일 것입니다. 나혜석기념관의 건립이 추진되고 수원시의 후원이 가능한 중요한 시기여서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전 나혜석의 '모된 감상기'를 읽고 있으면 제 자신의 경험과 쉽게 오버랩 되고, 이혼을 원치 않았던, 아이가 보고 싶어서 물부짓던 그의 절규에서 전 아주 평범한 한 여인네를 발견하고 합니다. 평범한 한 여성이 기본적인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려고 소리를 수밖에 없게 그녀를 세상밖으로 끝없이 몰고간 이 사회를 결국, 그녀는 용서했을까? 그러면 편하게 눈을 감았을까? 항상 제게 묻곤 합니다.

그녀가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아직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단추 중의 하나가 윤범모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관련 작품/자료의 집대성과 이를 토대로한 감정의 문제임에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 또한 기존작 문제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발표를 통해서 "안타깝게도 현존작품 중 기존작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작품의 전위문제를 언급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후학들을 위해, 어려운 조건에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연구자들이 기준으로 삼을만한 작품을 고르신다면 어떤 작품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말씀해주실 있을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수원박물관 특별전 관련한 감성위원 회의에서 진공으로 합의된 작품이 4점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이었던지도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발표

차이와 구별로서의 신여성 - 나혜석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경일(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여 백

차이와 구별로서의 신여성 - 나혜석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경일(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I. 문제의 제기
- II. 1920년대 신여성의 주장과 이념
- III. 나혜석과 신여성 - 구별과 차이
- IV. 맺으면서

I. 문제의 제기

한국 여성사에서 1920년대에 등장한 신여성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나혜석(羅蕙錫, 1896~1948)과 김원주(金元周(金一雫), 1896~1971), 김명순(金明淳, 1896~1951) 등이 흔히 거론된다. 공통점에도 이들 모두는 1896년에 태어났으며 일본 유학의 경험을 공유하였다.¹⁾

1) 같은 해에 태어난 신여성으로는 박인덕(朴仁德, 1896~1950)을 들 수 있는데, 미국 유학을 배경으로 아틀란타 상이한 삶의 권리와 주장을 펼쳤다는 점에서 부수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이밖에도 윤심덕(尹心德, 1897~1908)을 들 수 있지만, 10살만 생전에 자살했다는 점에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들 여성들은 봉건적 가족제도와 결혼제도에 대한 심열한 비판과 도전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개조와 개혁을 달성함으로써 여성의 개성과 평등에 기반을 둔 신이상과 신문명의 사회를 건설할 것을 역설하였다.

여성성과 여성주의의 쟁점과 관련하여 이들은 자유연애나 남녀평등,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같은 사회적 주제를 민족이나 계급과 같은 공공의 쟁점보다 우선시했다. 이 시기 계몽주의자들이 근대성을 민족과 국가에 고정화시킨 상태에서 근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로운 국민국가의 통합 대상으로 여성을 설정했다고 한다면(양문규 2007: 249), 이들은 여성성과 친밀성의 주제를 시야에 넣은 바르시의 새로운 근대성의 차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안적 근대성은 이 시기 국가와 민족에 사로 잡혀 있었던 자유주의나 혹은 그에 반대하여 대항 권력을 추구한 사회주의가 추구한 근대성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다.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와 일부 요소를 공유하였다고는 하더라도, 이들은 같은 시기 자유주의 계열의 여성들이나 사회 공산주의 계열의 여성들과는 다른 주장들을 제기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였다.

신여성에서 접두어인 '신'은 근대와 근대성의 기표들을 의미한다. 근대적 표상들의 선택과 전유를 통하여 이들 여성들은 근대의 역사에서 신여성으로 이름은 남겼다. 근대의 선택과 전유로의 길로는 다양하였다. 이들에게 근대는 서구나 일본에서의 유학이나 여행의 경험과 아울러 일본 및 서구의 여성주의와 여성해방사상의 수용, 혹은 기독교에 대한 관심 등을 통하여 표상되는 어떤 것이었다.

나혜석은 1913년 4월 일본 도쿄의 이치미쓰학교에 입학하여 1915년에 일시 귀국하였다가 1916년에 다시 복학하여 1918년 4월에 귀국하였다. 만 4년 정도의 일본 유학 경험에 의하여 그녀는 결혼과 더불어 1921년 9월부터 남편을 따라 만주의 안동현 부영사 관사에서 1927년 봄까지 거주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여알반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 열차로 소련의 모스크바와 유럽의 파리, 제네바,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지를 여행하고 1929년 3월 부산에 도착하였다. 남편과 이혼한 이후인 1932년 가을 일본에 가서 체류하다가 이듬해인 1933년 4월 귀국하였다. 이렇게 보면 만주를 논외로 한다면이라도 나혜석은 이 시기의 다른 어느 여성보다도 일본과 유럽, 미국 등지에서 근대 문물과 사조를 체험하는 드문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 나혜석의 근대 체험은 실재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혼 후 병환을 겪었던 삶의 시련기에 “자유의 파리”를 일망한 사실에서 보듯이(나혜석 2000(1933)), 서

구에 대한 그녀의 강렬한 동경과 지향은 투사와 상상의 차원에서조차 진행되었다(김정일 2004: 106-7).

김일엽은 1919년 3·1운동 이후 일본에 건너가 동경영화(英和)학교에 입학하여 이듬해인 1920년 4월에 귀국하였다. 이후에도 산발적으로 일본에 다녀온 적이 있으나 나혜석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에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체류 기간 또한 길지 않았다. 김명순은 1913년 9월 일본으로 가서 국경여자학교 등에서 공부하고 1916년 봄에 귀국하였다. 1918년에 두 번째로 일본 유학을 떠난 김명순은 4년 정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1921년 무렵에 귀국하였다. 1930년에 그녀는 세 번째로 일본으로 갔다. 프랑스나 독일 유학을 가기 위해 '마테네 프란스'라는 학원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상지대학의 독문과나 법정대학의 불·영·독문과 등에서 청강을 하였다(서정자 외 편 2010: 835). 1930년대 전반의 나혜석과 비슷하게 그녀 역시 시련의 시기에 서구로 표상되는 근대에 대한 갈망을 통해 신여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고자 했다. 1939년 이후 김명순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그곳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해방 이후인 1950년대에 그곳에서 최후를 보냈다.

다음에 서구의 여성주의와 여성해방의 영향은 이들 여성들의 생애 초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914년 이상적 부인을 논의하면서 나혜석은 그 사례로서 볼스토키 '부활'의 여주인공인 카류사나 입센의 '인형의 집'의 여주인공인 노라와 아울러 일본의 '새로운 여자'들을 대표하는 히라스카 라이초우(平塚雷鳥)와 요사노 아키히코(與謝野晶子)를 언급하였다(나혜석 2000(1914): 183). 나아가서 「매일신보」 1921년 4월 3일자에 나혜석은 자신이 직접 가사를 붙인 「인형의 집」을 특별 게재하였다(이구열 1974: 55). 김일엽은 1920년 봄 자신이 주관을 맡은 「신여자」를 창간하면서 나혜석, 박인덕 등과 함께 「청담회(靑潭會)」라는 모임을 결성하여 1주일에 한 차례씩 만나 새로운 사상과 문학을 함께 토론하였다고 회고한다(김일엽 1974(상): 288). 「청담회」라는 명칭은 1911년 일본에서 히라스카 라이초우 등의 '새로운 여자'들이 발간한 「세이트(青髓)」의 한자 발음과 동일하다.³⁾ 비록 일정한 시간의 차이는 있다 하

3) 김명순의 경우 비슷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지만 윤심덕 역시 동경음악학교 졸업발표회를 위한 연극인 입센의 「인형의 집」에 출연하여 여주인공 노라 역으로 출연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나혜석이나 김명순과 비슷한 시기에 대대적인 유학에서 세계적인 대성업가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유민영 1987: 80-81).

미라도 지구적 현상으로서의 신여성이나 모던걸의 출현을 배경으로(The Modern Girl Around the World Research Group 2008) 식민지 조선에서 신여성의 등장은 서구와 일본에서 근대 여성주의 사조를 주요 매개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만일 근대 문명의 중심에 기독교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들 여성 모두에게서 기독교의 영향을 찾아 볼 수 있는 사실 역시 흥미로운 일이다. 비록 제한적이라고는 하더라도 이들 여성들은 기독교의 영향 아래에서 자의식을 형성하였다. 1918년에 발표한 자전적 소설인 『경희(敬喜)』에서 나혜식은 “이철원 김부인의 딸보다 먼저 하나님의 딸”로서 자신을 인정하고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⁴⁾ 도쿄의 3·1운동 시위와 관련한 검찰의 심문조서에서 나혜식은 소학교 때부터 기독교를 믿었고 1917년 12월 도쿄의 조선교회에서 조선인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이상경 편 2000: 682). 이 사건으로 인한 6개월 동안의 감옥생활을 화상하면서 그녀는 몇 년 후 “지금 생각컨대 하느님께서는 꼭 나 하나만을 살려보시려고 피 고생을 하신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⁵⁾

김명순은 자신의 만생을 기록한 시에서 “성당은 나의 천국”이지 “선생님들은 천사” 같다고 서술하였다(김탄실 2010(1939): 232). 자신의 “유일한 희망은 일요일마다의 성당”이라는 언급에서 보듯이(김탄실 2010(1936): 682-4, 김명순 2010(1936): 695) 그녀의 천주교 신앙은 1936년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김일엽 역시 1930년대 잡지사와의 대담 기사에서 자신이 학교 다닐 때 기독교를 믿었다고 술회하였다(김일엽 1974(하)(1935): 224). 윤심덕의 경우에도 그녀의 어머니 김씨가 평양 남산현 교회의 권도사였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성장 과정에서 기독교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으며, 도쿄 유학 시절에도 “기독교 신자로서 퀴마디스를 보고 신앙심을 더욱 굳게 가졌”다고 한다(유민영 1987: 28, 51-2). 그러기하면 박인덕의 경우에도 그녀의 선 생애에 걸쳐 중심 주제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는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 발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이 시기 신여성들의 주장과 이념의 내

3) 구경희(1918)는 “예수(耶穌) 하나님의 딸이 되기 있습니다. 아내(인) 내 생애는 많은 축복을 가졌습니다. 내게 무한한 사랑과 힘을 내려주십시오. 사랑을 주시는지 열을 내려사든지 비옵네로 부리시옵소서”(나혜식 2000(1918): 103-104)라는 대목이 있다.

4) 나혜식 2000(1923a): 221. 1920년 4월 나혜식이 청동예배당에서 김일순 목사의 주례로 김우영과 기독교으로 결혼식을 행한 사실이 기독교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나혜식 2000(1923a): 222; 이상경 2000: 198).

용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무엇을 지향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특히 나혜석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신여성들의 주장과 사상이 어떠한 점에서 서로 구분되고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전자가 신여성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공통의 요소들에 주목한다고 한다면 후자는 신여성들 사이에서의 구별과 차이를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한편으로는 대표적 신여성인 나혜석의 사상을 비교의 시각에서 집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1920년대 등장한 신여성의 주장과 이념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여성의 개념 정립을 위한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1920년대 신여성의 주장과 이념

1920년대는 해방과 개조의 시대였다.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세계적 차원에서 이상주의의 대두, 다이쇼대모크라시의 일본, 그리고 1919년의 3·1운동의 전개를 배경으로 한 식민지 사회에서도 이는 예외가 아니었다. 해방과 개조의 목소리에 특히 호응한 것은 전통적으로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가부장제도의 지배 대상이 되어 온 피압박 민족과 노농자, 그리고 여성이었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를 배경으로 1920년 3월에 여성 잡지로 출범한 「신여자」의 편집책임을 맡은 김일엽은 「창간사」에서 개조와 해방이 “수천 년 동안 입압(壓迫)한 방죽에 갇혀 있던 우리 여자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면서 사회 개조를 위해서는 가정 개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정의 주인인 여성을 해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일엽 1974(하): 162-3).

1900년대 이들 신여성의 어머니 세대 여성들이 남성 계몽주의자들에 의한 근대 프로젝트에 가까이 동참하는 것을 통하여 민족의 독립과 의식의 각성을 표방했다고 한다면, 이들 세대의 중심 주제는 자아와 개성, 자유, 그리고 이상의 실현에 맞춰졌다. 민족이나 독립과 같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개인의 사적인 차원으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갔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일엽은 만일 자신이 남자라면 “여자의 개성을 발휘케 하는 이해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김일엽 1974(하, 1922): 244), 1934년에 발표한 「이혼고백장」에서 나혜석은 인권

고 지적하였다.²² 자유에 대한 헌신은 이 시기에 이들이 표명한 자유연애나 자유결혼을 통해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나아가서 이들은 근대의 개성과 자유에 대한 추구를 시대정신으로서 '이상'의 이미지에 투영하고자 하였다. 이상적 부인이나 이상적 결혼에 대한 나혜석의 생각(김정필 2012: 21-4)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다.

자아와 개성, 자유, 그리고 이상에 대한 신여성의 추구는 그 실현을 가로막는 기존 질서와 체제에 대한 비판과 도전을 수반하였다. 앞 시기 어머니 세대와는 달리 이들은 남성 지배의 가부장제에 전면에서 직접적으로 맞선 도전과 비판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과 투쟁은 이들이 추구한 대안적 근대성의 일환으로서, 동시에 신여성 개념의 고유한 차별적 특성의 하나로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1920년 4월의 「신여자」 제2호에 수록된 「우리 신여자의 요구와 주장」이라는 글에서 김일엽은 "여자를 사람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마치 하등 동물같이 유린"하는 "인도에 벗어나는 남성 본위"의 현실을 통렬하게 비판하였다. "모든 사회의 제도 습관은 남성을 상위에 두고 철두철미로 남성의 이해를 표증하여 제정하였고, 또 3종이라는 禮儀 아래에 노골로 남성 본위의 이상 요구를 준봉케 하려고 여성에게 강제하여 우리 여자를 총명 남자의 부양물로 생활케 하는 동시에 남자의 사면, 또는 완용에 남자는 편의한 수단을 써서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제의 구사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신여자의 임무요 사명이요 또 존재의 이유"라고 주장하였다(김일엽 1974(하): 165-6).

김명순 역시 이러한 비판의식을 공유하였다. 1934년에 발표한 「화풍의 노래」라는 시에서 그녀는 '칠악 칠제(七惡 七敎)'와 종순의 '부도(婦道)'에 억압받은 조선 여자의 설움을 노래하였으며, 어린 시절 오빠와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차별 경험을 언급한다(김명순 2010(1934): 689, 691-2). 나혜석 역시 1914년에 발표한 「이상적 부인」에서 도덕과 습관에 의해 여성으로서의 세속적 본분만을 지키는 여성을 비판하면서, 윤양유순(윤良柔順)이나 양처현모는 결코 여성의 이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나혜석 2000(1914): 183-5). 삼종지도와 남존여비 사상에 대한 통렬한 비판은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나혜석 2000(1917): 193-4). "모든 현 것

22 나혜석 2000(1934): 421, 422. 앞문구는 이 시기 「화지향」이나 「청춘」 등의 지상 중요한 매체는 자아의 과잉과 개성의 구별이었다고 지적한다. 이들 매체를 통하여 담담 계몽주의자를 역시 자아와 개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그것이 추상적 개념을 통한 과잉의 방식으로서 생의 구체성의 유린된 공해함을 드러낸 점이 해초적으로 나혜석의 그것은 생명의 사기를 통한 것임을 구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그는 언급한다(한양대규 2017: 817, 821-2).

은 거꾸러지고 온갖 새 것을 세를 때가 왔다”는 북사본적인 언급에서 보듯이(김일엽 1974(하): 163), 남성 지배의 가식 질서와 전통에 대한 이들의 비판은 근본적이고 체제 부정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전통의 지배 질서에 맞선 이들의 대안은 무엇이었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남녀평등에 대한 주장을 들어야 할 것이다. 1920년 3월 『신여자』 제3호의 「여자의 자각」이라는 글에서 김일엽은 인구의 반수를 차지하는 여자가 남자의 노예로 구사되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남자의 기반을 뺏아내서 참 의미의 사람 노릇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일엽 1974(하): 176). 이와 아울러 그녀는 같은 호의 머리글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관을 철폐하기 위하여 “여자의 자각과 남자의 타협”에 기초한 양성의 이해를 촉구하였다(김일엽 1974(하): 172-3). 그 원가하면 김명순은 자전 소설인 「탄실이와 주영이」에서 여성으로서 남성에게서 받은 차별과 멸시에 대한 분노와 반항을 절절하게 묘사하였다(김경일 2004: 93-6). 나혜석의 경우를 보면 그녀 역시 남자는 “절대 방종이었고 절대 이기(利己)”였던 반면에 여자는 남성에 대하여 “절대 희생할 아무 남은 것이 없”다고 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은 남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남녀평등에 대한 주장은 앞 세대의 이성들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지만, 어머니 세대가 남성의 지위와 동등한 차원에서 여성의 권리 향상을 촉구하는 데 지중한 반면에 이 시기의 신여성들은 남성 지배에 대한 분노와 비판을 수반한 상태에서 남녀평등의 쟁취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되었다. 즉 전자의 경우 남성이 누리던 권리의 영역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여성의 지위를 그와 동등하게 끌어 올릴 것을 주장했다고 한다면 이들은 그것을 기꺼이 침묵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 시기의 신여성이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것으로 설정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위에서 보았듯이 김일엽은 남녀평등의 달성에서 남성의 이해와 타협이라는 유화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나혜석 역시 이와 비슷하게 남녀가 상호 공존하는 “평화의 길은 오직 강한 자기

⑥ 그녀는 남녀 차별의 불평등 사회 제도와 교육에 의거하여 설명한다. “남녀불평등 관계는 남자 그 사람만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여자 그 사람만 잘못하다고 할 수 없어 사회적이라 그러하였고, 교육 그것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나혜석 2000[1920]: 277-8).

약한 자를 보호하고, 우성한 자가 열매한 자를 도우며, 부자가 가난한 자를 기르는 데 있나니, 우리의 가정이 화평하려면, 행복하려면, 강자요 우승자요 부자인 남자가 약자요 열매자요 가난한 자인 여자를 애호하는 데 있다”고 언급한다(나혜석 2000(1928): 277-8). 나아가서 남녀 평등에 대한 이들 신여성의 주장이 지속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구현되지는 않았다는 사실도⁷⁾ 이 시기 신여성의 사상적 복잡성이나 모호성과 관련하여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 대안으로는 여성의 직업과 사회 활동에 대한 주장을 들 수 있다. 앞의 어머니 세대의 여성들이 그러했듯이 이 시기의 신여성은 공통적으로 여성의 경제, 사회 활동을 지지하였다. 1932년 신동아사기 주최한 여기자 좌담회에서 김일엽은 여자는 가정이 천적이고 남자는 사회가 천지이라는 허영숙의 발언에 대하여 “여자라고 가정에만 태어 있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자녀 생산은 부득이 여자가 책임을 지겠지만, 그 양육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여자도 사회로 나와서 활동을 필요로 있다는 것이다. “가정이라는 것은 범위가 너무 좁아서 그 안에서 꾸물거리면 언제나 여자의 지위는 향상될 기쁨이 없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남성에 비해 열등한 점에 대하여 말해달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녀는 “남자는 무상 출입하면서 여자는 집에 구겨 박아 두는 것 모두 그들의 횡포”라고 지적한다(김일엽 1974(하): 215, 219).

김일엽의 주장에서 단적으로 보듯이 이들 신여성들은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옹호하였지만, 정작 자신들의 현실에서는 그것을 실현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작가나 기자, 출판편집인, 화가 등의 직업을 가지고 사회 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의 사회 활동은 거듭된 좌절과 방황에 의해 점철되었다. 이혼 후의 나혜석이 경험한 생활 문제에 부딪혔던 주요한 이유는 이 시기 여성의 취업과 사회 활동의 기회가 제약된 입단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했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미술에 대한 가성 사회의 외면과 비난 및 배척이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이들 신여성들은 앞선 어머니 세대의 여성들이나 혹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자유주의 제일의 여성들과도 달랐다. 어머니 세대 여성들의 경우는 민족주의와 세키니즘의 양면이 가능했던 계몽주의 시대를 살았으며, 박인덕의 경우엔 전혀

7) 예를 들어 『나혜석』에 대한 저서에도 불구하고 나혜석은 이혼 전 부부 사이의 남녀평등에 대해서는 일관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김일엽 2012: 25).

력으로 드러나듯이,⁸⁾ 같은 시기 자유주의 여성들은 남성 지배를 결코 침범하지 않는 영역에서 여성운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이와 관련하여 이들은 여성운동에 대하여 각기 상이한 태도를 보였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태도는 나혜석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실행가와 학자 중에서 어느 것이 되고 싶은가라는 잡지의 설문조사에서 그녀는 “장차 좋은 시기 있으면 여성 운동에 나서려” 한다고 대답하였다(나혜석 외 1930: 627). 또한 프랑스의 탁아 문제를 언급하면서 조선에 시도 탁아 문제는 “근우회의 한 일거리가 단단히 될까 한다”고 언급한 사실에서 보듯이(나혜석 1930: 289), 그녀는 근우회와 같은 여성단체에도 일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김일엽은 여성운동에 회의적 내지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불교에 귀의한 이후이기는 하지만, 잡지사 기자와의 회견에서 그녀는 “여성 운동 같은 것은 일시적 순간적 구급책에 불과”하며 “영원한 무궁한 진리가 못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김일엽 1974(하): 226).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혜석을 포함하여 이들 여성들 모두는 사회 활동이나 사회 운동에 전념하는 데 과절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서구와 일본의 신여성들과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직업과 사회활동, 사회운동의 영역에서 이 시기의 신여성이 경험한 좌절과 실패의 주요 이유는 여성의 성과 사랑에 대한 이들의 생각과 실천이 남성 사회와는 화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신여성 현상이 공유하고 있었던 이러한 주장은 앞 세대의 여성들과 이들을 구분하는 결정적 차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시기 신여성의 성과 사랑에 대한 자기주장은 신여성의 개념에 내재하는 고유한 관별적 특성들 중에서 가장 중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여성들을 급진주의로 일컬을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일찍이 1920년대 초에 김일엽이 신정조관을 주장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왔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다. 자유연애, 자유결혼, 자유 이혼은 신성한 것이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종전적 폐습이 아닐 수 없다”고 그녀는 주장한다(김일엽 1974(상): 298). 생래적인 인간의 자유에 근거하여 김일엽은 “연애는 가장 자유로워야 한다”고 선언하였다(1974(하): 183). 연애는

⁸⁾ 급진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부르짖기보다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을 두어 여성 계몽과 여권 신장을 주장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에서, 박인식의 여성 운동은 본격적인 페미니즘의 기준으로 보면 크게 미흡하다고 김옥동은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박인식은 초기 단계의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전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김옥동 2010: 341-5).

말할 것도 없고 결혼이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부모의 뜻에 의해 결정되는 편봉이 지배하는 사회 체계에 실명으로 도전한 것이다. 이처럼 그녀는 “사랑을 떠나서는 정조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전통적 도덕이 정조를 음질시해 왔다고 본 그녀에게 정조란 “결코 도덕도 아니고, 단지 사람을 백열화시키는 면에 의식과 같이 고정한 것이 아니라 유동하는 관념으로 항상 새로”은 것이었다(김일엽 1982a; 1983: 19).

김일엽의 신정조관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근대 교육을 받은 신여성이 연애와 사랑의 감정에 기초를 두는 한에서는 상대 남성이 기혼이건 미혼이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즉 연애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 교환되는 것이라 하면 민척상 아내로 있는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면에 문제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김일엽 1974(하): 184). 지식인 남성의 대부분이 조혼을 해서 이미 아내가 있는 현실에서 이들 남성의 아내인 이른바 구여성도 포함하는 구제계가 이러한 주장에 내포된 위험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윽고 1920년대 중반에는 자유결혼을 둘러싸고 대대적인 논쟁이 전개되었으며, 1930년대에 들어와 이는 이른바 ‘제2부인’ 문제로 사회적으로 열띤 토론의 대상이 되었다(김장일 2012: 285-332, 336 이하). 1930년대 이후 구여성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일부 지식인 남성들의 열띤 환류가 비난과 조소로 바뀌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엽이 본 남성 지배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1932년 승려의 신문으로 참석한 좌담회에서 그녀는 남자는 정조를 지키지 않으면서 여자에게만 정조를 강요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김일엽 1974(하): 219). 그렇다고 하여 그녀가 사랑에 기초한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의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한 것은 아니었다. 1927년의 ‘여류 명사 가정문제 합명회’에서 사랑이 결혼의 전부가 아니고 외적 조건도 그에 합치해야 한다고 그녀는 말하고 있다(김일엽 1974(하): 208).

마침 김일엽의 이러한 언급을 의식하기라도 한 것처럼 김명순은 같은 해인 1927년에 발표한 「애(愛)?」라는 수필에서 사랑은 결코 지식이나 인격, 황금과 같은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사랑은 사랑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그 사랑이라는 차이에 가치가 비로소 성립”된다는 것이다(김명순 2010(1927): 678). 1926년 동아일보에 발표한 「나는 사랑한다」라는 소설에서 그녀는 “애정 없는 부부생활은 배음”이라고 신랄하게 비난(김상태 1985: 257; 김명순 2010(1930): 561)하면서 진실한 사랑과 자유연애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나혜석 역시 자유연애와 자유결혼, 그리고 자유이혼의 의의를 주창하였다. 이상적 결혼의

요건으로 그녀는 다른 무엇보다도 남녀 서로의 이해와 사랑을 가장 중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남녀의 자유로운 교제가 필요하다고 그녀는 생각하였다. “여학생제는 너무 이성에 대한 경험이 없으므로 다만 그 이성 간에 재(在)한 불가사의의 본능성으로만 무의식하게 이성에 접할 수 있”다고 그녀는 지적하였다. 오귀스트 베벨(August Bebel)의 주장과 비슷하게 그녀는 조선 여자에서 자유연애를 실현할 수 있는 범주는 기생밖에 없다고 말한다. 기생은 이성 교제의 충분한 경험으로 상대방을 선택할 만한 판단력이 있고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나혜석 2000(1923a): 252).

나혜석은 남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남녀,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자유로운 교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서양의 가족이 단란한 것은 “결코 그 남편이나 아내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남녀 교제의 자유” 때문이라고 그녀는 생각하였다. 가족생활에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남마다 조석으로 대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로 살증이 나기 쉽다. “남편은 복잡한 사회에서 쓴맛 단맛 다보고 아내는 좁은 가정 속에서 남마다 같은 일로만 되풀이하고 있어 아내는 남편의 감정순환을 이해치 못하고 남편은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록 연애결혼을 통해 결혼한 남성이라 하더라도 “처음은 여자에게 무엇이 있을 듯하며 호기심을 두던 것이 미구에 그 믿이 드러다 보이고 여자는 그대로 말라붙고 남자는 부질(不稊)이 사회훈련을 받아 성장”한 결과는 가정의 부미진조함과 관태라고 진단하면서(나혜석 2000(1935d): 473), 그녀는 결혼한 여성의 자유로운 교제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의 일반 남녀 부부 사이에서 본 “공공연한 비밀”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본부(本夫)나 문처를 어찌하지 않는 범위 내의 행동은 죄도 아니요 실수도 아니며 가장 권보된 사람에게는 마땅히 있어야 할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녀의 언급은(나혜석 2000(1934): 406; 이구일 1974: 184-5),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녀의 생각은 주장 만에 그치지 않았다. 파리에서 머무는 동안 그것을 직접 실행에 옮겼다. 1934년에 발표한 「이혼고백서」에서 그녀는 파리에서의 스캔들에 대해 자신은 “결코 내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사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그러한 관계를 통해 “오히려 남편에게 정이 두터워지리라고 믿었”다고 서술했다.

이혼 이후의 유독한 시련이 더해질수록 성과 정조에 관한 그녀의 담론은 더욱 근본적이고 비판적인 색채를 띠어갔다. 이듬해 발표한 글에서 그녀는 “정조는 도덕도 법률도 아무것도 아

나요 오작 취미"라고 선언하면서 창조 자재를 부정하고 그에 도전하였다.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딱 먹고 싶을 때 딱 먹는 거와 같이 임의용지(任意用志)로 할 것이고, 결코 마음의 구속을 받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나혜석 2000(1935b): 432). 나아가서 파리의 사례를 들면서 "창조관념을 지키기 위하여 신경쇠약에 들어 지스테리가 되는 것보다 돈을 주고 성욕을 풀고 병당한 기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마 현대인의 사회 상으로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자 공창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자 공창도 필요"(나혜석 2000(1935b): 473)하다는 서술에서 그녀의 주장은 절정을 이루었다.

이 시기 성과 사랑에 관한 나혜석의 담론은 당시 신여성이 처한 주체적 상황과 시대적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이상으로 그 급진성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한편으로 근대에 대한 한미와 자유와 개조의 물결이 지배하였던 1920년대와 대조적으로 1930년대는 불황과 권쟁을 배경으로 보수적이고 세속적인 분위기가 엄습하였다. 근대가 표상하는 여성주의의 물결이 수그러드는 듯이 보인 이 시기에 남성 지배 질서는 식민 지배의 심화와 더불어 더욱 경직되어 가는 과정을 밟았다. 다른 한편 집단으로서 신여성의 등장을 통해 남녀평등과 자유로운 성을 한껏 주창한 앞 시기의 목소리는 고립과 은둔을 통하여 눈에 띄게 약화되었다. 김일엽은 세수를 떠나 종교 세계로 침잠하였으며 김명준은 유럽 유학을 끝내고 일본으로 건너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성과 사랑에 대한 나혜석의 생각은 절행하제도 동료들과의 토론을 통한 다거나 혹은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재조정되고 공론화되는 참을 가질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그것이 고립과 폐쇄성을 강화하는 만큼이나 성에 관한 나혜석의 담론은 관념성과 더불어 급진성을 띠어갔다.

자유로운 성에 관한 이들의 논의에서 독신 생활을 논의하는 것이 다소는 생소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에서 결혼과 가족의 대안으로서 독신 생활은 전통 가족 제도와 철학과 행태에 대한 일종의 우상파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서 남성 주류 사회의 조종과 민서의 대상이 되었던 기층되는 스캔들과 여러 번에 걸친 잦은 결혼과 이혼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들 신여성들은 모두 독신으로 남았다는 점에서 독신 생활에 대한 이들의 주장 역시 자연연애와 마찬가지로 신여성에 고유한 판별 기준의 하나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신여성들은 당시의 지체적 풍념이나 실태와는 달리 독신 생활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또한 원하는 원하지 않던 간에 굴복적으로는 독신으로 남거나 남지

했다. 김일엽은 1920년 『신여자』 제2호에 실린 'K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남편의 전제에 시달리는 K 언니에게 남편과 헤어지고 독신생활을 할 것을 권유한다. "우리 여자도 이 세상에 당당한 인격자로 살아가자면 어찌 남자에게만 의뢰하는 비열한 행동으로 자감(自甘)"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녀는 "독력 독행으로 사회에 입각자를 세우고 고상한 사업에 공헌하여 각성한 여자체에 표준적 인물이 되"는 것이 "우리 신여자가 시험할 천부의 사명"이라고 주장하였다(김일엽 1974(하): 300). 종교로 귀의한 이후에도 독신 생활에 대한 그녀의 이러한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독신 생활에 대하여 그녀는 "유쾌한 마음으로 살면 건강에는 해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김일엽 1974(하): 217).

김일엽과 비교해 볼 때 독신 생활에 대한 태도는 나혜석의 태도는 상대적으로 모호하고 유보적인 점조차 있다. 『삼천리』 1933년 12월호에 게재된 「만혼타개좌담회」에 참석한 나혜석은 행복한 결혼보다 불행한 결혼이 많다는 점에서 독신생활을 주장하는 이가 훨씬 많아졌다고 언급한다. 자신의 처지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듬해 발표한 「이혼고백서」의 탐미에서 나혜석은 봉건적 가족 제도에서 신여성이 겪은 결혼 생활의 중압감을 지적하면서, 그로 인해 "독신 여자를 부러워하고 독신주의를 주실"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나혜석 2000(1934): 425). 이듬해에는 자신이 이혼 이후 살아온 '산생활'의 미묘처모를 말하면서, 독신자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의견을 피력한다. 독신자의 "이성 교제만 인격적 교제가 못되고 정적 교제"가 된다는 점에서 정신적 동요와 나른하고 따분한 심리상태를 경험하기 때문에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무자연한 상태"라는 것이다(나혜석 2000(1935a): 431-2). 독신 생활에 대한 이중적 태도는 같은 해 발표한 다른 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프랑스에 머물던 시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는 문명이 발달할수록 독신 생활자가 많이 생긴다고 지적한다. 가능하면 독신 시기를 늘리려는 서구의 경향을 지적하면서, 그녀는 "독신 생활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독신으로 지낼 수 있을 때까지 있는 것이 좋"다고 언급한다(나혜석 1935d: 474). 비록 독신 생활 자체에 대하여 유보적이라고는 하더라도 그녀에게 독신 생활은 남녀의 자유로운 교제와 정신의 자유를 의미했다. 한편으로는 그것은 결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자연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개인의 자유와 삶의 다양성에 대한 추구로서의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급진주의 안에도 다양한 의견과 미묘한 강조의 차이를 찾아 볼 수 있지만, 총

통칙으로 이들은 성이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서 전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였다. 성에 자기결정권에 대한 주장과 함께 이들은 자유로운 성과 성해방의 실천을 지향하였다. 남성 지배의 식민지 사회에서 이들은 여성의 자의의식과 정체성의 차원에서 성과 사랑의 문제를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이들은 여성의 정초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때로는 그것을 부정하고 그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정초에 대한 도전을 통해 이들은 남녀 사이의 인격적 결합이나 정신적 일치 혹은 인간적 합일과 같은 더욱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가치를 추구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이론의 측면에서 그것을 주장하기만 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직접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자 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비참한 파국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주류 사회의 극심한 반발과 비난에 직면하였으며, 나아가서 같은 여성들의 질책과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양성의 사랑과 화합, 인간적 친밀성 등과 같은 비전에 대한 헌신은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파멸이라는 대가를 요구한 것이다.

전통적 가부장제의 남성 지배가 사회 전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이 행사하고 있었던 만큼이나 이들 신여성들은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자신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를 예상하였다. 1920년 『신여자』 제2호에 게재한 「우리 신여자의 요구와 주장」이라는 글에서 김일엽은 “여자가 인격적으로 각성하여 완전한 자기 발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을 남자들은 “과괴라, 반항이라, 배역(背逆)”이라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장차 우리의 앞에는 여러 가지 비난과 무수한 박해가 끊일 새 없이 닥쳐올 줄을 예기”해야 한다고 적었다(김일엽 1974(하): 154-5). 두 달 후 같은 잡지의 4월호에서도 그녀는 “무수한 비난과 다대한 박해를 완고한 도학선생으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렇다고 하여 “비열한 노예성으로 우리 여자의 운동을 개식”한다면 “여자의 철저한 자각을 방해할 뿐 아니라 남자의 선계를 영속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다(김일엽 1974(하): 179). 나혜석 역시 자신의 과묵적인 결말을 예감이라도 한 듯이 1917년 8월 『학지광』에 발표한 글의 마지막에서 “아모려나 나기다가 벼락을 맞아 죽든지 진흙에 미끄러져 망신을 하든지 나가볼 욕심”(나혜석 2000(1917): 196)이라는 마진한 각오를 밝히고 있다. 나중에 그녀는 1934년에 공개한 「이혼고백장」에서 “무슨 말참을 세워서라도 구해줄 생각은 초췌(少老)도 없이 마치 연금이나 활동사진 구경하듯이 재미스려워 하고 비호(鼻吼)하고 질책”(나혜석 2000(1934): 425)하는 사회 분위기를 질타하였다.

이후의 결과를 보더라도 이들 여성들은 실제로 지식인 남성애 위한 식민지 주류 사회의 약

획적인 비명과 생소에 시달려야 했으며,⁸⁾ 사회로부터의 고립과 배제라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에 따라 한 여성은 밖으로는 “남자의 전제적 편견의 강압”과 아울러 안으로는 “다수한 중년 여자가 인습적 타면(倣顔)과 금욕에 관성을 상실하고 각성한 여자에게 이단적 반감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야 했으며,⁹⁾ 다른 여성은 “유폐되지 않으면 추방될 운명”에서 “방랑과 유리(遊離)”를 거듭하는 삶을 살았다(김명순 1925: 388).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은 자신을 아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갖게 하고 침착성을 잃게 하는”,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가 “해독물이 될지언정 이로운 물(物)이 되기 어렵다”고 절규하게 만드는(나혜석 2000[1935a]: 439)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다. 그리고 종교에 귀의하거나 자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신병원이나 길거리 등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III. 나혜석과 신여성 - 구별과 차이

성에 대한 신여성들의 주장에는 서구 기독교에서의 남녀평등과 자유 연애편관으로부터 20세기 초반 일본의 신여자들이 주장한 성의 해방과 정조론, 그리고 근대 서구의 경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의 사조와 이론들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급진주의는 특정한 인물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내재적 속성이나 일관된 경향이라기보다는 성의 자유와 여성 해방에 대한 이들의 지향과 의지의 표현이자 선언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근대의 남녀평등과 자유연애의 이념에 의거하여 성에 대한 억압이나 여성의 청조를 절대시하는 전통에 도전하였다는 점에서 이들 여성들이 보조를 함께 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의 차이를 볼 수 없는 것은

8) 단적인 사례로서 1907년 2월의 『별건곤』 제4호, 『東國 女界』(東國, 日本에 다니는 女界人物傳)의 122쪽에서 내담자는 김 일엽과 김명순을 왜 여자계의 명물이라고 부르냐고 묻는다. 이에 대하여 다른 내담자는 “연애를 네댓 번 하였고 결혼을 일 번에 한 번씩은 하고 그만하면 명물”이라고 하면서, “그리고도 무슨 술席상에 가서 뽀뽀의 의견을 말하고 신문 지상에 新聞記事를 발표하고 시 쓰고 文 쓰고 소설 쓰고 가자라고 인력거”라고 다니는 것이 과소롭다고 냉소한다. 이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사회적 제도 일부들은 있”지 않느냐는 상대방의 말에 대하여 그는 “사회적 제도가 무슨 책임인가? 전이 보다 自取之咎이지요. 제 생각으로는 하나도 동정할 것이 없다”고 대답하고 있다.

9) 김 일엽 1914(1915). 1908 김일엽은 “조이 자살한 여자는 미칠 처으로 태어났나이다”라고 말하며, 자식이 오히려 화를 더하므로 추구하고 있다.

아니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각기 상이한 성적 지향과 바임을 성과 사랑의 관념에 투영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장에서는 신여성들의 성에 관한 자기주장에서 나혜석의 경우가 다른 두 여성과 어떠한 점에서 다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사랑과 연애에 대한 이들 신여성들의 이해가 다분히 이상주의의 경향을 띠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면서도 나혜석은 도덕이나 법률이 아닌 감정과 취미의 차원에서 성문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¹¹⁾는 점에서 다른 여성들과 달랐다. 도덕과 윤리의 차원을 초월한 성에 대한 나혜석의 성찰은 김일엽이나 김명순 등의 동시대 신여성과 구분되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여성들 내부의 차이를 구별하는 일은 신여성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여기에서는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즉 성과 사랑의 관념과 아울러 모성에 대한 이해가 그것으로, 그 밖의 다른 논점들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고자 한다.¹²⁾ 나아가서 나혜석은 다른 여성들에게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사랑과 결혼, 가족에 대한 논의를 제공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 내용에 대한 검토 또한 신여성으로서 나혜석의 위상을 평가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 신여성들의 사랑에 대한 관념이 다분히 절충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이 점에서는 김일엽도 예외가 아니었다. 1927년에 발표한 「나의 창조관」이라는 글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동일한 텍스트 안에서 이러한 절충과 병존을 살펴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그녀는 “정초는 결코 도덕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사랑을 백열화시키는 연애의식의 최고 결정”이라고 말한다(김일엽 1974(하): 158). 그녀의 표현대로 “진부한 구창조 관념에 중독”으로부터의 탈각을 주장하는 이러한 전통 파과는 이른바 ‘신창조관’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녀의 정초 관념은 여전히 순결과 치녀성이

11) 대표적인 사례로 1921년에 『동아일보』, 자살을 통해 김일엽과 나혜석이 벌인 여성의 피복 개량 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을 들 수 있다. 즉 김일엽의 「무인 피복 개량에 대하여 - 한 가지 의견을 드리나이다」(사회, 『동아일보』 1921년 9월 17일 14일)에 대하여 나혜석이 마찬가지로 4회에 걸쳐 「무인 피복 개량 문제 - 김원주형의 의견에 대하여」(같은 신문, 9월 29일 ~ 10월 12일)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위생과 예의에 이를 위한 개량”이라고 가장 합당한 개량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혜석은 사치를 부릴라고 전비(前比)를 강조하는 것은 “진부의 천하적 본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사회의 부가 중대함에 따라 “개인의 사치품이 급격히 감축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어야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김일엽 1974(하): 159). 이해: 2000(1921)8-218, 40.

라는 기존 관념의 준사를 벗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동일한 텍스트에서 그녀는 “과거를 일체 자기 기억에서 잊어 버리고 단순하고 깨끗한 사랑을 새 상대자에게 바친다”고 언급한다(김일엽 1974(하): 157). 여기에서 정조는 불순함과 깨끗함이라는 준거에 의해 재단되는 바, 이러한 점에서 김일엽은 성(정조)이 영위되는 과정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조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 즉 “언제든지 깨끗하고 이지러지지 않은 새로운 명옥의 소유자”라는 차원에 서의 ‘처녀성’(김일엽 1974(하): 158)의 관념은 도전받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며,¹²⁾ 바로 여기에 신정조론을 바탕으로 한 ‘성적 신도덕’(김일엽 1974(하): 159)의 근거가 놓이는 것이다.

나아가서 김일엽의 정조와 처녀성에서는 정신적 요소가 중심 위치를 차지한다. 김일엽이 성과 사랑에서 “단순하고 깨끗한 사랑”을 언급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세상을 창조할 만한 건전한 정신”이다(김일엽 1974(하): 157). 사랑에서 명과 정신의 문제는 김일엽의 신정조론에서 되풀이되는 주제이다. 관념적 이상주의에 치우친 이러한 성 관념은 불교로 귀의한 이후 더욱 농후해 진다. 위에서 언급한 회고록에서 그녀는 “사람이란 우주 전체의 힘이며, 생령(生靈) 본체의 생사가 걸린 인간의 가장 큰 문제”로서 “그 사랑에 매혹되면 이 몸의 한 생명력을 잃어버리기보다 생명의 근원이 끊어지고 만다”고 언급한다(김일엽 1974(상)(1971-2): 289). 여기에서 사람은 자신을 알고 또 넘어서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이제 단지 남녀 사이의 감정에 한정되지 않은 모든 생명의 원천으로 확장되면서 고도로 보편화, 추상화된다. 사랑에 대한 이러한 고도의 관념주의로의 경도는 초기 신정조론에 내포되어 있던 이상주의의 맥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관념적 이상주의는 김명순의 생각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김명순에게 이상적 현에란 모든 남녀가 “같은 이상을 품고 결합하려는 친화한 상태 또 미급(未及)한 동경”이지, “종종의 천만

12) 1930년대에 들어와 처녀성에 대한 그녀의 입장은 다소 완화되는 듯이 보인다. 1931년 ‘정조 파의 여성의 행동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삼천리』의 기뢰에서 김일엽은 “처녀 비처녀의 관념을 탈기(脱離)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김일엽 1974(하)(1931): 134-5). 그러나 해방 이후인 1970년의 회고록에서 그녀는 “개조 처녀” 혹은 “처녀코의 재귀(再歸)” 등의 표현을 동원하여 과거 자신의 신정조론을 정리하면서 그러한 원리에서 자신은 “제정되는 이성(理性)에 서 극히 충실하였다”고 말하고 있다(김일엽 1974(상)(1971-2): 332). 이러한 점에서 김일엽의 신정조론은 처녀성의 순결의 이데올로기를 일관된 준거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생명들이 각각 별다른 개성을 가지고 서로 융화한 신령끼리 절주(絶美)해 나가는 최고 조화적 생활상태"이다(김명순 2010(1925b): 654-5). 이처럼 김명순에게 이상적 연애란 남녀의 터질과 개성에 입각한 “두 영혼의 융합”(김명순 2010(1924): 635)을 의미한다. 김일엽과 비슷하게 김명순의 사람 관념도 영혼의 융합이라는 정신적 요소를 중시해 둔다는 점에서 추상적 관념주의의 성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 데, 차이가 있다면 김명순의 경우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서구의 플라톤적 연애 취향이 농후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있다.

관념적 이상주의는 나혜석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앞의 두 여성과 비슷하게 나혜석 역시 남녀의 사랑에서 육체가 아닌 정신적 측면을 강조한다. 남녀가 육(肉)으로만 결합된다는 견해를 속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녀는 “좁고 얇은 육의 세계와는 다른 넓고 큰 영의 세계가 있음으로써 사람으로사의 사는 의의가 있다”고 주장한다(나혜석 2000(1917): 192; XXXX(1985a): 462). 이러한 점에서 관념적 이상주의는 이 시기 신여성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혜석의 경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적어도 후기 나혜석의 경우 성과 사랑은 도덕과 윤리와 법률의 자원을 벗어나서 감정이나 취향과 같은 인간의 성향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김명순과 비슷한 초기의 영혼 관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동시에 김일엽이 밝히는 순결과 처녀성의 관념을 무화시키는 파격이고 급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성과 사랑의 개념에 대한 나혜석의 급진성은 보성 개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나혜석은 김일엽이나 김명순과는 근본적 차원에서 다른 보성 개념을 제시하였다. 김일엽은 여자는 “여성적 기질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신이 “변적 보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면서 여성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것은 보성을 발휘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김원주 1994: 40-3). 이러한 점에서 그녀에게 자아실현은 여성으로서의 본질적 기질을 발휘하는 것으로서, 이는 곧 보성의 발현으로 직결되었다. 여성에 고유한 속성을 정제로 하면서 그것의 실체를 보성에 둔다는 점에서 그녀의 보성관은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김명순의 보성관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직접적으로 그것을 논의한 글은 없거나 혹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남자로 태어났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묻는 1922년 1월 7일자 『동아일보』 하심익 기획 기사에

다. 여기에서 김명순은 아버지에 비해 볼 때 “어머니의 힘과 은혜는 훨씬 위대하고 강하”다고 지적한다. 그리면서도 예컨대 어머니에 대해서는 1년 상을, 아버지에 대해서는 3년 상을 지내는 전통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녀는 “어머니를 극력 존경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명순 2010(1922): 619). 모성에 대한 재평가와 그에 의거한 남녀평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녀 역시 전형적인 자유주의의 속성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일정한 한계는 있었다 할지라도 성과 사람의 개념에서 급진주의의 성향을 보였던 이들은 적어도 모성의 개념에서는 자유주의의 입장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나혜석의 모성 개념은 아들의 모성 이해와는 극적으로 대조된다.¹⁾ 1923년 『동명』 1월 1일부터 21일에 걸쳐 연재한 「오된 감살기」를 통해 나혜석은 모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모성애에 관한 그녀의 이야기는 먼저 결혼,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시작한다. 결혼한 여성에게 임신은 자신과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집안의 축복으로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나혜석에게 임신은 거름이라기보다는 저주와 수탈과 원망이었으며, 생명의 신비나 출산의 보람이 아니라 서리움과 고통이었다. 처음으로 대면한 자신의 아이에 대한 느낌을 “부끄럽고 이 상스러”웠다고 표현한 것도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른 것이었다. 전통 파괴는 자식에 대한 그녀의 태도에서도 이어졌다. “내가 있는 후에 만물이 생겼다. 자식이 생겼다. 아이들아, 너희들은 입씨부터 역경을 겪어라”(나혜석 2000(1934): 414)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에게는 자식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 먼저였던 것이다.

임신과 출산, 양육과 자녀에 대한 독특하고 전통 파괴적인 나혜석의 생각은 모성애에 대한 의견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여성에게 모성애가 본능적이고 절대적이라는 통념에 그녀는 결코 동의하지 않았다. 수많은 여성들이 모성애로 말미암아 많은 만족과 행복을 느껴 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녀는 동시에 모성애로 인한 여성의 억압과 불행에 주목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에게 모성애는 “최고 행복인 동시에 최고 불행”이라고 그녀는 지적한다. 나아가서 그녀는 모성애가 여성의 본능적 속성이라는 일반화된 모성의 ‘신화’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나혜석은 여성의 모성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고

1) 이바에서 논의하는 나혜석의 모성 개념에 대해서는 김명일 2012: 215-21 참조.

르다는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과 시간’의 성과를 통해 사후적으로 얻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모성은 “천명으로 구비한 사람”으로서 순결성이나 자연성이 아니라 양육을 통해 생기는 단련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나혜석 2000(1923a): 232-3).

이처럼 나혜석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의 양육 과정을 포함하여 모성으로 순화된 자아상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신체와 고통과 아이에 대한 낯설음, 어머니 역할과 자신의 자아실현 사이의 모순과 갈등을 여과 없이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성을 포괄하여 자신에게 실재하면서 자신이 피구한 여성성의 다양한 차원들의 인정에 대한 그녀의 요구를 읽을 수 있다. 김일엽과 김명순의 경우를 포함한 대부분의 논자들이 모성을 본질화하고 합시권화한 상태에서 그것을 여성의 본성으로 추상화해 버렸던 것과 대조적으로 나혜석은 역사와 시간의 맥락 앞에서 모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와 아울러 국가나 민족에 부수하는 어떤 것으로 모성을 상징하는 주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논의 역시 그녀의 모성 개념에서는 부작연스럽고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모성을 민족과 국가에 대한 물신화의 차원에서 이해하거나 본질적이고 초월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녀는 모성 개념을 재해, 재구성하고자 했다. 모성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이 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후의 역사에서도 주류가 되는 모성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나아가서 나혜석은 남녀평등과 자유연애, 자유결혼의 근대적 이념에 공감하고 전통적 가족 제도에 비판적이었던 만큼이나 결혼과 가족에 관련된 새로운 개념과 실험을 시도하였다. 여기에서는 이성 사이의 우정과 시험결혼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¹⁴ 사랑과 결혼에 대한 그녀의 생각과 실험들은 신여성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나혜석의 변모를 보이는 것이었다. 나혜석은 이성 사이의 우정을 적극 옹호하며 나아가 단순한 주장이 아닌 실험의 차원에서 그것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성 사이의 우애에 대한 나혜석의 생각과 실천은 ‘이성간의 우애론—아름다운 남매의 기(記)’에 잘 나타나 있다. 1934년 허란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변호인이었던 소완규(蘇完圭)와 이성 친구로서의 경험을 말하는 이 글에서 그녀는 “무한한 고

[14] 모성의 본능성을 그녀가 원인이 부정할 것은 아니었다. “자아모르는 결의 본능성이 없다는 부인설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정직하고 생애론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요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나혜석 2000(1923a): 233).

[15] 이들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김경일 2010: 284 이하 참조.

통, 무한한 충동이 거듭했으나 역시 안보면 모고 싶고 예연하고, 만나면 반가우며 이야기기 많아, 꿀는 피, 뽀는 가슴이 몇 번이나 그 우정을 그르칠 듯 했으나 아직까지는 아름다운 남매로 지내"는 두 사람의 관계를 소개한다(나혜석 2000(1935b): 454). 이 글에서 보듯이 그녀는 남녀 사이에서도 친구 같은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었고, 또 소원규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이러한 신념을 실천하고자 했다. 1년 전에 그녀가 신문 지상을 통해 발표한 「이혼고백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녀 친구 사이에서 "본부(本夫)나 본처를 어찌하지 않는 범위 내의 행동은 죄도 아니요 실수도 아니며 가장 진보된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감정"(나혜석 2000(1934): 406)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를 쟁점화하고자 한 것이다.

당시 지식인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시험결혼에 대한 그녀의 의견도 주목할 만하다. 1930년 5월 우애결혼과 시험결혼을 주제로 한 잡지 『삼천리』의 대답에 기고한 나혜석은 결혼의 목적이 아내를 얻는 데 있느냐 혹은 자신의 혈통을 아들 아들딸을 얻는 데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결혼의 목적은 지아비나 아내를 얻는 것이며, "자녀는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단언한다. 배우자보다도 자녀를 중시하는 가족에 대한 지배 관념은 오늘날까지도 일정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와는 달리 그녀는 단연코 부부를 가족의 중심에 두었던 것이다. 나아가서 그녀는 서구에서 제창되는 시험결혼을 언급하면서, "산아 재한 같은 방법을 필요로 하는 그 시험결혼은 빈번한 이혼을 막는 길도 되고 남녀성의 이합을 훨씬 자유스럽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한다(나혜석 외 1930: 54).

1930년대 중반에 쓴 소설에서 나혜석은 이러한 시험결혼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다분히 자신의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는 이 소설의 주인공 현숙은 사랑이란 감정보다는 엄격한 계약과 계약에 입각한 남녀 사이의 결합을 주장한다. 현숙의 말을 빌면 "지금까지 감정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실에" 해 뒀다는 점에서 "감정보다 회계"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혜석은 그것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간단하고 효과 있는 명쾌한 [...] 금전등록기"를 거론한다(나혜석 2000(1936): 163, 169). 이 소설에서 주인공 현숙은 신문사 기자와 유명 화가, 그리고 화가 지방생인 3명의 남성과 반년을 주기로 계약 결혼을 행한다. 남성들의 이름이 모두 리명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에서 보듯이 이 소설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다분히 수동적으로 제시된다. 아들에 대하여 현숙은 의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한시적 기한 동안의 결혼을 실행하거나 제안하는 것을 통하여 이성을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기득권"(나혜석 2000(1936): 165)이라고 생각하는

남성 중심의 관습적인 결혼 제도를 전복하고자 한다(안숙환 2000: 65). 결혼의 세속화와 성의 참종이 뚜렷하게 진행되어 갔던 1930년대의 타락한 도시 서울에서 그녀는 다소는 위악적 방식을 통하여 남성 중심의 전통적 결혼 제도를 동떨리게 비판하면서 여성이 주도하는 대안 결혼의 한 형태를 제시해 보고자 한 것이다.

나아가서 이 소설을 통하여 나혜석은 일종의 대안 가족의 형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소설에서 나혜석은 주인공 현숙과 함께 생활하는 노시인과 화가 지방생과의 관계를 “한 사람도 매어 살 수가 없는…이 친신(親身)”으로 묘사한다(나혜석 2000(1936): 158). 가령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벗어나 여관이라는 유동적 거처에서 이들 세 사람은 고통스러운 가난과 고독과 “올케 되면 열아래도 가슴이 비워”지는(나혜석 2000(1936): 162) 감정을 공유하면서 혈연 중심의 전통 가족을 넘어서는 친밀성의 감정을 경험한다. 나혜석 차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 소설에서 “술도 함께 하고 수족을 흔쳐 주기도 하고 적라웃을 갈아 입히”면서 서로에 대한 근심과 배려와 무정을 공유하는 동숙자끼리의 가족 공동체 상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안숙환 2000: 74).

IV. 맺으면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나혜식은 전통의 영향과 근대의 사상이 착종된 식민지의 혼란스런 과도기 상황에서 이상적인 사랑과 결혼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실천하고자 하였다. 성과 사랑에 대한 근원적 차원에서의 이해, 독신 생활과 남자 공황, 시형결혼, 이성간의 우정, 혹은 원초적 대만 가족과 같은 그녀의 다양한 제안들은 이러한 성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가 꿈꾸었던 남녀의 평등과 평화, 남성과 여성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교육, 개인의 자유와 상상력의 고양 등은 성과 결혼의 문제가 혼란스럽고 모순된 형태로 발현한 식민지 사회에서 자기 모색과 지치 경향의 요구에 대한 그녀 나름의 응답이었다. 그것은 근대의 외양을 띤 가부장적 전통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던 시대 상황에서 근대의 개척자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고, 진발성과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경험과 실천이라는 점에서 남성 주도의 근대 기획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였으며, 나아가서 거대서사의 중심 주제로서 민족과 제국의 지배의 한계를 폭로하는 것이기도 했다. 남성 지배에 의한 사회 질서의 기저를 침범한 만큼이나 그녀의 제안과 주장에서 위기와 불안의 징표를 읽은 남성 사회가 그녀에게 요구한 것은 그녀 자신을 희생 재물로 바치는 '순교'였다. 무릇 모든 순교가 그러하듯이 그녀의 비참하고 고독한 죽음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부활과 영광 안에서 빛나게 되었다. 냉혹한 역사는 대만족 근대성의 추구를 위해 나혜식이 치러야 했던 가혹한 대가의 진면목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20세기 전반기 신여성의 근대성』, 푸른역사, 2004.
- 김경일,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 푸른역사, 2012.
- 김명순, 「부친보다 모친을 존경하고 여자에게 정치사회문제를 맡기겠다」, 『동아일보』, 1922년 1월 7일자 (사정자 남은해 편, 『김명순 문학전집』, 푸른사상, 2010).
- 김명순, 「계통없는 소식의 일절」, 『신여성』, 1924년 9월호 (사정자 남은해 편, 『김명순 문학전집』, 푸른사상, 2010).
- 김명순, 「내 자신의 위에」, 『생명의 과실』, 한성도서주식회사, 1925 (사정자 남은해 편, 『김명순 문학전집』, 푸른사상, 2010(1925a)).
- 김명순, 「이상적 연애」, 『조선문단』, 1925년 7월호 (사정자 남은해 편, 『김명순 문학전집』, 푸른사상, 2010(1925b)).
- 김명순, 「나는 사랑한다」, 『동아일보』, 1926년 9월 2일자 (사정자 남은해 편, 『김명순 문학전집』, 푸른사상, 2010).
- 김명순, 「생활의 기적」, 『매일신보』, 1936년 11월 19일 21일자 (사정자 남은해 편, 『김명순 문학전집』, 푸른사상, 2010).
- 김상배, 『김명순 자전 시와 소설—구미없이 살았노라』, 춘추각, 1985.
- 김옥동, 「박인덕의 『구월 원숭이』 - 자서전을 넘어서」, 『로컬리티 인문학』, 3, 2010.
- 김원주, 「재혼 후 일주년 - 인격 창조에」, 『신여성』, 1924년 9월호.
- 김일연, 「근래의 연애문제」, 『동아일보』, 1921년 2월 24일자 (김일연, 『청춘을 불사르고』, 문선각, 1962).
- 김일연, 「부만 의욕 개량에 대하여 - 한 가지 의견을 드리나이다」, 『동아일보』, 1921년 9월 10일 - 14일자.
- 김일연, 『청춘을 불사르고』, 문선각, 1962.
- 김일연, 『마래세가 다하고 남도록』(상·하), 인물연구소, 1974.
- 김탄실, 「구월」, 『매일신보』, 1936년 10월 7일 13일자 (사정자 남은해 편, 『김명순 문학전집』, 푸른사상, 2010).
- 김탄실, 「시로 쓴 반생기」, 『동아일보』, 1938년 3월 10일 12일자 (사정자 남은해 편, 『김명순 문학전집』, 푸른사상, 2010).
- 羅英均, 『日帝時代, わが家は』(小川昌代 譯), 東洋館書店, 2003.
- 나혜석, 「이상적 부인」, 『학지광』, 1914년 12월호 (이상경 편,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 나혜석, 「집집 K언니에게 여쭙자」, 『학지광』, 1917년 7월호 (이상경 편,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 나혜석, 「결혼」, 『여자에게』, 1919년 3월호 (이상경 편, 『나혜석 전집』, 2000).

나혜석, 「김원주 형의 의견에 대하여 부인의학 개량문제」, 『동아일보』 1921년 9월 28일, 10월 1일자 (이상경,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나혜석, 「모된 갑상기」, 『동명』 1923년 1월 1일, 21일자 (이상경 편,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1923a)).

나혜석, 「김영화의 자살에 대하여」, 『동아일보』 1923년 7월 8일자 (이상경 편, 『나혜석 전집』, 2000(1923b)).

나혜석, 「생활 개량에 대한 여자의 부르짖음」, 『동아일보』 1926년 1월 24일 - 30일자.

나혜석, 「프랑스 가정은 얼마나 다를까」, 『동아일보』 1930년 3월 28일 - 4월 2일자.

나혜석, 「아이 자유의 파리가 그리워 - 數萬 漫遊하고 온 후의 나」, 『삼천리』 1932년 1월호 (이상경 편,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나혜석, 「이혼고백장 - 青邱씨에게」, 『삼천리』 1934년 8, 9월호 (이상경 편,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나혜석, 「신생활에 돌면서」, 『삼천리』 1935년 2월호 (이상경 편,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1935a)).

나혜석, 「미성년의 우애론 - 아름다운 남매의 기교」, 『삼천리』 1935년 6월호 (이상경 편,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1935b)).

나혜석, 「나의 여교원 시대」, 『삼천리』 1935년 8월호 (이상경 편,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1935c)).

나혜석, 「독신여성의 정조론」, 『삼천리』 1935년 10월호 (이상경 편,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1935d)).

나혜석, 「현숙(玄淑)」, 『삼천리』 1936년 12월호 (이상경 편,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나혜석 외, 「설문 응답」, 『삼천리』 1930년 5월호.

박지자, 「식발하고 장삼 입은 김일엽여사의 회견기」, 『개벽』 1935년 1월호 (김일엽, 『미래세가 다하고 남도록』(하), 인물연구소, 1974).

서장자 남은혜 편, 『김명순 문학전집』, 푸른사상, 2010.

만숙원, 「신여성과 에로스의 역전극 - 나혜석의 『현숙』과 김동인의 『김연실전』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제3호, 2000.

양문규, 「1910년대 나혜석 문학의 또 다른 근대성」, 문학과사상연구회 『근대 계몽기 문학의 재인식』, 소명, 2007.

유민영, 『윤심덕 - 시의 찬미』, 문예사, 1987.

마구열, 『나혜석 일대가 - 예미는 선각자였느니라』, 동화출판공사, 1974.

이상경, 『인간으로 살고 싶다 - 영원한 신여성 나혜석』, 한길사, 2000.

이상경 편, 『나혜석 전집』, 태학사, 2000.

The Modern Girl Around the World Research Group, *The Modern Girl around the World: Consumption, Modernity, and Globalization*, Duke University Press, 2008.

여 백

제3토론

「차이와 구별로서의 신여성 - 나혜석의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상경(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여 백

「차이와 구별로서의 신여성 - 나혜석의 사례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상경(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본 발표는 김일업, 김명순, 나혜석의 공통점을 드러내고 그들 사이의 차이점을 드러내어 나혜석의 '특수성'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여성'이라고 뭐하게 말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그 '신'을 판별하고 평가해야 할지 비교의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설명함으로써 관련 논의에 많은 시사를 준다.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다.

1. 우선, 3인의 공통점으로 제시된 "여학과 유학, 서구 여성해방사상의 수용,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통하여 근대를 선택했다."고 했는데 실상 이 세 요소는 1910년~30년대 여자 유학생 거의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 한다. 특별히 3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학과 유학은 이화학당을 위시하여 많은 중등 여성교육기관이 기독교 계통이었고 좀 더 많은 공부를 원했을 때는 유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외국 유학에서 서구의 여성해방사상을 접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발표자가 '급진주의'로 부르는 이들 3명이 나머지 유학생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며, 달라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듣고 싶다.

2.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란 전 세대의 여성(어머니 세대)과 중 세대의 다른 여성(은밀표에서 박인택을 예로 들었다) 양쪽이다. 이들을 준지플로 비교가 진행되고 있다. 어머니 세대 여성(대한제국기의 신여성이란 용어도 쓸 만하다고 본다)의 '양치현모'에 이들 신여성이 비판적 입장을 가진 것은 분명하고 남녀평등에 대해 '혹구'와 '쟁취'로 구별한 것은 흥미로운 구분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중 세대의 다른 여성들과의 비교는 어떤 요소, 어떤 시기를 기준으로 했는지 좀 모호하다. 이들 여성이 1920년대에 처했던 상황과 생각, 그리고 1930년대에 처했던 상황과 생각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개인사에서의 굴절도 있고, 사회적 분위기도 매우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을 비교할 때 그러한 시기의 차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가령 1910년대 '양치현모'를 강하게 비판했던 나혜석은 1930년대 이혼 후에 자신이 양치현모 되기에 노력했고 또 부족함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각이 바뀔 것일 수도 있고 말만 바뀌었을 수도 있다. 박인택의 경우를 '자유주의'라고 구분했는데 보통은 박인택의 결혼과 이혼 행적을 들어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과 한 범주에 넣어서 다루는 경우도 많다. '신여성'으로 주목 받던 1920년대의 생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별로 있는 것 같은데 1930년대 이후에 쓴 자신의 회고담이나 그 이후의 행적을 근거로 1920년대의 박인택을 나머지 세 사람과 매어내서 논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하는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3. 성과 사랑, 모성, 결혼과 가족에 대한 주장에서 나혜석이 김일엽이나 김명순보다 급진성을 띄었다는 점을 초록조록 비교하고 있다. 그동안 제1세대 신여성이라고 한 범주로 묶어서 평가해 오던 여성들을 살라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나혜석이 다른 2명과 다르게 이렇게 급진성을 띄게 되었는지, 혹은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 기반이 궁금하다.

4. 나혜석의 '위자로 창구 소송'은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이 발표에서 신여성들의 눈치를 살피는 범주로 삼은 성과 사랑이나 결혼과 가족이라는 범주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는지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제4발표

나혜석, 민족운동사에서 연구 동향과 과제

김형목(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여 백

나혜석, 민족운동사에서 연구 동향과 과제

김형욱(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I. 들어가는 말
- II. 자아를 각성시킨 근대교육
- III. 민족의식을 일깨운 동경유학
- IV. 민족운동가로서 거듭나다
- V. 과제와 전망

I. 들어가는 말

1980년대 민주화운동은 역사인식 다양화와 심화를 초래하였다. 민주화를 위한 실현적인 대안으로서 민중사학 대두는 이를 반영한다. 그동안 연구 대상에서 '주변부'로 방치되었던 일삼사·여성사·미시사·지역사 등이 새로운 주제로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다. 최초 근대여성화가 나혜석은 여성인물사에 대한 연구 진척과 더불어 '인간 나혜석'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여성화가 뿐만 아니라 여성학자·여성운동가로서 위상은 조명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1990년대 말기부터 민족운동가로서 성격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는 계

기를 맞았다.¹⁾

1999년 2회나 개최된 ‘나혜석 바로알기 학술대회’는 그녀의 참모습과 위상 등을 규명하는 시발점이었다. 2012년 4월까지 15회에 걸쳐 개최된 정기적인 학술회의는 인식 지평을 확대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²⁾ 물론 연구방법론이 일관한 현실에서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사실과 괴리된 부분도 드러내었다. 이러한 한계는 연구 심화와 더불어 점차 극복되리라 전망된다. 아들과 조카 등의 회고록은 이면에 묻혀 있던 사실을 부분적이거나 밝혀주었다. 반면 家族愛에 치우친 나머지 객관적인 사실과 구합되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다.³⁾

이 글은 여성운동가·민족운동가로서 나혜석 민족의식 형성과 활동상 등 역사학적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가운데 향후 과제를 모색·전망하는데 있다.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① 최흥규, 「나혜석의 가족사와 민족의식」, 『한국 근대정신사의 탐구』, 경인문화사, 2000.
- ② 서광일, 「민족과 함께 한 정월 나혜석」, 『나혜석 바로알기 제4회 심포지움』, 정월 나혜석 기념사업회, 2001.
- ③ 박환, 「나혜석의 민족의식 형성과 민족운동」, 박용옥 편, 『여성·역사와 현재』, 국학자료원, 2001.
- ④ 박환, 「최초의 서양화가 나혜석의 민족의식 형성과 3·1운동」, 『경기지역 3·1 독립운동사』, 선인, 2007.
- ⑤ 조현숙, 「이혼사건을 통해 본 나혜석의 여성해방론」, 『나혜석 바로알기 제5회 심포지움』, 정월 나혜석 기념사업회, 2002.

1) 김형복, 「민족운동가로서 나혜석 바로알기를 위한 제안」, 『제14회 나혜석 바로알기 학술대회』, 정월 나혜석 기념사업회, 2011, 109쪽.

2) 서광일, 「연보」, 『(민론)정월 나혜석 권집』, 국학자료원, 2011 ; 김형복, 「참고문헌」, 정월 나혜석 기념사업회, 『나혜석, 한국근대사를 거닐다』, 푸른사상사, 2011.

3) 나영균, 「나혜석 할머니의 회고」, 『나혜석바로알기 제1회 국제심포지움』, 정월 나혜석 기념사업회, 1999 ; 나영균, 「알게되면 무리의 가족은 황소자리」, 2008 ; 김진, 이연택, 『그런 그림이 왜 그리 슬펐던고』, 레노르, 2000, 70~103쪽.

- ⑥ 이윤희, 「3·1운동과 여성의 역할」, 『유관순 연구』 창간호, 백석대 유관순연구소, 2002.
- ⑦ 이윤희, 「나혜석의 선각적 사상 연구」, 『백산학보』 66, 백산학회, 2003.
- ⑧ 이송희, 「신여성 나혜석의 민족의식과 민족운동」, 『나혜석 바로알기 제9회 국제심포지움』, 정월 나혜석 기념사업회, 2006.
- ⑨ 황민호, 「나혜석의 민족의식과 민족운동의 전개」, 『수원문화사연구』 5, 수원문화사연구회, 2002.
- ⑩ 문정란, 「예술가 나혜석의 독립운동」, 『나혜석 바로알기 제10회 국제심포지움』, 정월 나혜석 기념사업회, 2007.
- ⑪ 김형목, 「나혜석의 현실인식과 민족운동에서 역할」, 『송실사학』 24, 송실사학회, 2010.
- ⑫ 김형목, 「『금기된 민속』에 도전장을 던진 민족운동가 나혜석」, 『나혜석, 한국 근대사를 거닐다』, 푸른사상사, 2011.
- ⑬ 김형목, 「민족운동가로서 나혜석 바로알기를 위한 제안」, 『제14회 나혜석 바로알기 심포지움』, 정월 나혜석 기념사업회, 2011.
- ⑭ 김주용, 「나혜석의 민족의식과 독립운동지원 활동—나혜석, 독립을 그리다」, 『제15회 나혜석 바로알기 심포지움』, 정월 나혜석 기념사업회, 2012.

연구 정황은 근대교육 수혜를 통한 자아 자성에 따른 민족의식 형성과 민족운동사상 역할·위상에 집중되었다. 즉 진명여자학교와 일본 유학을 통한 민족의식 심화에 의한 3·1운동, 학생운동 후원, 여성운동, 의열단원에 대한 지원, 교육운동 등을 규명하였다.⁸⁾ 신문·잡지 등 언론에 계몽적이거나 서사적인 글을 투고하는 등 문화계몽활동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 단둥에서 여자야학과 서울에서 미술학교를 직접 설립·운영할 만큼 여성교육자로서 면모도 엿볼 수 있다. 또한 1920년대 초반 학생운동도 후원하는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한 실천적인 민족운동가임에 틀림없다. 어머니·아내·화가·작가·여성운동가 등 다양한 활동상은 이러한 사

8) 김형목, 『잡고문헌』, 정월 나혜석 기념사업회, 『나혜석, 한국근대사를 거닐다』.

심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글은 먼저 근대교육 수혜에 의한 자아 각성과 민족의식 형성에 주목하였다. 이는 불합리한 모순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삶에 충실할 수 있었면 '에너지원'이었다. 가족 중 작은 꼬마와 한일여학당·진명여학교 교사 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동경 유학 중 만난 최승구·이경수·염상설·서영숙 등 지인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가운데 현실인식은 심화를 거듭할 수 있었다.

3·1운동 참여는 허먼지 현실이 지닌 모순을 새삼 절감하는 계기였다. 5개월에 걸친 함옥 생활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올바르게 체험하는 과정이었다. 더불어 현실인식이 심화되는 등 민족운동가에 대한 후원은 사회적인 책무로서 인식되었다. 특히 「매월 감상기」나 「이혼고백서」 등은 모순되고 불합리한 사회적인 편견과 만습을 타파하려는 의도였다. 여성해방론자로서 변모는 여기에서 찾아진다. 이 글을 쓰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

II. 자아를 각성시킨 근대교육

수원지역 계몽운동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선교사업 일환으로 전개된 근대교육은 시대변화를 직접 목격하는 체험장이었다. 학교는 '배움터'라는 차원을 넘어 근대문물을 상징하는 '표상'으로 다가왔다. 1896년 관찰부공립소학교가 설립된 이래 개신교 전래와 더불어 종로교회 부속학교인三一女學校(현 매향여자중학교·매향정보여자고등학교 전신-필자주)은 1902년 설립·운영되기에 이르렀다.³⁾ 선교사는 이를 계점으로 삼아 교육활동과 의료활동에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일상사 변화를 주도하였다. 주민들은 이를 '외침심과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입장이었다.

자금을 받은 羅重淵·李重榮·金濟九·林勉孝 등은 이듬해 삼일남학당을 설립하는 등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나섰다. 이 학교는 한말·일제강점기 수원지역을 대표하는 민족교육기관으로 발전을 거듭하였다. 잡사는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등 졸업생들은 3·1운동과 이후 민족운

3) 수원공고교보 『수원부공립소학교』(1896·1902, 31X), 100~101쪽.

등을 추진하는 주역이었다. 나혜석은 사촌오빠로서 한말 - 일제강점기 수원지역 문화재흥운동을 이끄는 대표적인 인물임에 불명했다. 자신사업가로서 남다르게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나혜석 문중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큰오빠인 羅烈燾이나 작은 오빠 羅京鎬도 역시 이러한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⁸⁾ 지역사회 명문가 자제로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는 평화가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친의 국채보상운동 주도는 변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주민들은 절혈을 통하여 사회적인 존재성을 자각하기에 이르렀다. 경기관찰사서리 金鎭孝와 부친 羅基貞은 수원 종로에 국채보상금모집사무지소를 설립하였다.⁹⁾ 이들은 주민들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경기도 관내 관리들에게 적극적인 동참을 호명했다. 활발한 경기도내 국채보상운동은 이러한 역사적인 연원에서 비롯되었다. 외국인 신부 宋在烈, 용주사 승려, 8세 아동 신철동 등 의연은 전국적인 관심사로서 부각되었다.¹⁰⁾

모친인 崔恩鎬도 부인회를 조직하는 등 시세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나섰다. 여성교육 보급과 자선사업을 통한 여성 지위향상은 궁극적인 목적이었다.¹¹⁾ 비로소 수원지역 여성들이 자신들 목소리를 내기 위한 단체를 결성한 사실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곧 교회와 삼일여학당을 통하여 자신들의 사회적인 존재와 가치를 점차 자각하는 순간을 맞았다. 여성들의 '유일한' 활동공간이자 여운 수련은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나혜석은 일찍부터 삼일여학당에서 동생과 함께 근대교육 수혜를 받았다. 민족의식 형성과 아울러 여성평등 문제 등도 학교생활을 통하여 미약하나마 인식하는 계기를 맞았다.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교풍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다.¹²⁾ 교훈인 '敬天愛人'은 잠재적인 의식을 일깨우는 중요한 기제였다. 보편적인 가치관에 기초한 인간 평등·존중이라는 의미는 여기에 내포되어 있었다. 동시에 미타적인 삶도 중시하는 실천강령이자 덕목이었다. 기독교적 사랑과

8) 김세환, 『삼일학원 80년사』, 1983, 62~71쪽; 최종규, 『나혜석의 가족사와 민족의식』, 『한국 근대여성사』 연구, 경인문화사, 2005, 88~91쪽.

9) 이상근, 『경기지역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0.

10) 김형복, 『현관 수원지역 재흥운동과 운영주체』,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 13~14쪽; 『황성신문』, 1907년 3월 15일 잡보 『南風雜報』, 1908년 12월 13일 잡보 『南風雜報』.

11) 박환, 『최초의 서양화가 나혜석의 민족의식 형성과 경』, 『경기지역 3·1 독립운동사』, 천인, 2007, 374쪽.

존중은 윤리·도덕적 가치관 강조로 이어졌다. 여교사 金泮禮나 이사라는 여학생들 의식을 일깨우는 선구자이자 다정한 교사였다. 근대교육 수혜는 현실인식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각시키는 요인이었다.”

여성에 대한 존중만을 강조하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의식은 탁발생활을 통하여 심화될 수 있었다. 여성해방은 인간평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인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축첩제도가 지닌 모순과 잘못된 관행적인 인습도 일상사에서 직접 체형하고 있었다.¹¹⁾ 부친의 이중적인 생활은 바로 그것이었다. 조혼제도 실행은 여성의 자율성을 크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을 억압하였다. 1920년대 여성운동에서 이를 주요 현안으로 거론한 이유도 여기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1910년 심일여학교를 졸업한 다음 9월에 서울 진명여고보로 전학은 주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이 학교는 1905년 3월 엄준원이 설립한 이래 엄귀비 후원으로 당대를 대표하는 숙명여학교와 더불어 여성중등교육기관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재정적인 확대는 이를 가능케 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1912년에는 재단법인 설립과 함께 엄준원이 초대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초등교육기관과 중등교육기관 제제로 정비는 교육내실화를 도모하는 기반이었다.¹²⁾

학창생활은 희망과 함께 고뇌를 동반하였다. ‘변화한’ 서울거리는 수원과 너무나 달라 험기증을 일으킬 만큼 현란함 그 자체였다. 근대문물의 메카인 서울은 처음 보는 신기한 문물로 가득 차 있었다. 호기심 많은 그녀를 자극시키는 동시에 관심을 끄는 대상도 적지 않았다.¹³⁾ 낯선 서울거리는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잔혹한 이미지로 다가왔다. 풍경화를 그리기 위하여 자주 거리도 왕복했다. 반면 기숙사생활의 편리함 이면에는 항상 일상사를 통제하는 무형의 ‘기제’가 상존하였다.¹⁴⁾ 기숙사 사감은 학생들 생활에 대한 일거수일수족을 감시·억압했다. 와중에

11) 김형복, 「『1』 운동에서 거듭나는 수원지역 여성들」, 『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 경기도문화재단, 2008, 30쪽.

12) 김형복, 「『3』 1운동에서 거듭나는 수원지역 여성들」, 『수원지역 여성과 3·1운동』, 경기도문화재단, 2008, 35쪽.

13) 『황실산보』, 1907년 5월 18일 갑조『동계잡고』, 5월 17일 창조『女學校聯合大運動』, 『매일신보』, 1917년 7월 19일 『매일신보』(一), 1917년 8월 10일 『진명여자고등학교』, 『학교민학』, 창조.

14) 『매일신보』, 1913년 8월 2일 『才女才媛』, 진명(進明)여자고등학교창립기념회 발간 『창립 10주년 기념』, 『동아일보』, 1908년 5월 7일 『韓民의 教育熱』, 1909년 12월 13일 『사회』, 『관보』, 『1910년대, 문명의 시대를 열다—독립선언문 후배 문 한국 근대적 사회 문화 키워드—』, 동국대출판부, 2008.

15) 홍영환, 「『한』 1910년대부터 창간지 『한민』 일문과, 『역사비평』 22, 역사문화연구소, 2009.

도 스스로 재능을 배양하는 등 선각자적인 여성으로서 자질 연마에 소홀하지 않았다.¹⁶⁾

주요 교과목은 수신·국어·조선어·한문·역사·지리·수학·이과·가사·실습·재물·수예·음악·제조 등이었다. 이는 순종적인 여성상을 구현하는데 치중된 교과과정임을 엿볼 수 있다. 열정적인 공부로 3년간 수학한 후 최우등으로 졸업하는 영광도 만났다.¹⁷⁾ 수원이 낳은 '신데렐라'로서 거듭나는 계기였다. 『매일신보』는 '모범적인' 재원을 지닌 학생으로 보도했다.

온순한 성질은 가정의 칭찬하는 바이오, 명민한 두뇌는 학교에 애증하는 바이라, 제반 학과를 평균히 잘 닦는 중 특히 수학은 교사로 하여금 그 인철한 재주를 놀 내게 한 일이 많고 장구한 세월을 하부와 같이 근면한 결과 졸업시험에 최우등의 성적을 얻었는데 생년 십팔의 현숙한 화음에는 장래의 무한한 광명이 저절로 나타나리라.¹⁸⁾

모든 교과목 중 특히 수학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었다. 물론 국어(일본어-필자주)나 도화 등도 마찬가지였다. 명석한 두뇌를 소유한 다재다능한 '재주꾼' 이자 함학열에 불타는 비범한 규수로서 주목되었다.¹⁹⁾

이때부터 그녀는 '신데렐라'로서 각인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었다. 극소수만이 누리는 중등교육 수혜와 최우등 졸업은 세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명석한 두뇌와 그림에 대한 애착은 미래를 향한 원대한 포부와 함께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졌다. 집안 분위기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으로 작용했다.²⁰⁾ 가부장적인 권위를 행사하는 부친마저도 자녀들 교육에 상당히 열성적이었다. 5남매 중 큰딸인 계적을 제외하고 모두 일본으로 유학시킨 사실은

16) 유봉호, 「일제에 대한 민족적 저항기의 중등교육」, 『한국교육사학』 16, 한국교육학회 교육사연구회, 1984.

17) 이상경, 『나는 인간으로 살고 싶다』, 한길사, 2000, 30쪽.

18) 『매일신보』 1923년 4월 1일 「才子才媛」, 진영(鎭寧)어스고등보통학교 선과 졸업식 리해의(麗惠의).

19) 김명복, 『나혜석의 현실인식과 민족운동에서 역할』, 『승심사학』 24, 1999쪽.

20) 최홍균, 『나혜석의 가족사와 민족의식』, 『한국근대정신사의 탐구』, 132·140쪽.

이를 반증한다. 오펙 나경석은 학구적인 분위기를 주도하였다,²¹⁾ 그녀가 꿈꿨던 비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은 순탄하게 전개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다.

Ⅲ. 민족의식을 일깨운 동경유학

나혜석은 작은 오빠 나경석 권유로 진명여고보를 졸업한 후 곧바로 동생과 함께 동경으로 유학하였다. 사립여자미술학교에 입학한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 재빨리 적응하는 등 태사에 적극적이었다. ‘날선 새로움’은 오히려 그녀의 지적 호기심을 크게 자극시켰다. 변화한 동경거리는 새로운 도전을 위한 실험무대이자 생활한장이었다. 오펙을 비롯한 추위 사람들의 ‘가뭇한’ 도움 등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밑거름이었다.²²⁾

나혜석에 대한 『매일신보』 찬사는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다. 특히 쾌활한 성격과 여성다운 독특한 매력은 유학생 사회에서 인기를 독차지하는 독보적인 존재나 다름없었다.²³⁾ 유학생 남자 중 기혼자들조차도 그녀와 만남을 ‘염원’하는 분위기였다. 최승구·이광수·염상섭 등을 비롯한 문학청년은 재기발랄한 그녀에게 매료되었다. 무수한 품문과 염분설이 누군가에 의하여 널리 회자되고 있었다. 물론 소문의 전원지는 애매하였다. 심지어 일본인 청년화가 사토(佐藤彌太郎)는 일방적으로 만남을 애점할 만큼 화제의 주인공이었다. 김필재·김영순·김일업·허영숙 등과 더불어 유학생 사회에서 ‘신데렐라’ 주인공은 바로 나혜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²⁴⁾

그녀는 빈번한 만남을 통하여 감수성이 풍부하고 이지적인 최승구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정을 느꼈다. 그는 기혼자로서 국내에 부인을 둔 오빠와 절친한 관계였다. 그런데 모호자

21) 유서현, 「나경석의 『명산증식』과 『산수명리증식』」, 『역사문화연구』 3, 역사문화연구소, 1997.

22) 『매일신보』 1913년 3월 7일 「東京學界의 盛衰(興衰)」.

23) 『매일신보』 1913년 3월 9일 「여자유학생들의 特色」, 이상경, 『일본·유학: 날선 새로움 1913~1918』, 『첫은 그 인과』 1913~1918, 그녀는 인간으로 살고 있다.

24) 『매일신보』 1913년 3월 17일 「女子留學生の 特色」, 조만호, 『나혜석·백남은 열들의 3월 17일 17의 3월』, 『그녀가 다져 삶을 살아야만 여성애수가 열린』, 서해문집, 2017.

적인 오후는 두 사람의 만남을 목인하거나 창조하였다. 이들은 열렬한 사랑에 빠져 약혼까지 서행하기에 이르렀다. 자유연애는 그녀가 유학생활에서 가장 행복을 가져다준 '선물'이었다. 너무나 달콤한 순간이자 영원히 지속되기를 갈망하였다. 하지만 행복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었다. 부친의 결혼 강요로 학업을 중단한 채로 1915년 그녀는 귀국하지 않을 수 없었다. 1년간 여주공립보통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부친이 강요하는 결혼을 미루었다.¹⁵⁾ 불행 중 다행이라 할까, 이러한 와중에 부친은 사망하였다. '자유'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곧바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¹⁶⁾

그녀는 이듬해 다시 일본으로 유학길을 떠났다. 꿈에도 그리던 약혼자인 최승구는 그곳에 없었다. 지인들이 전해주는 소식은 절망감 바로 그것이었다. 건강 악화로 연인은 학업을 중단한 채 귀국했다는 비보였다. 곧바로 전남 고향에 묘망 중인 그를 찾아 단신으로 장도에 올랐다. 예절만 염원과 달리 만남은 짧은 순간에 그치고 말았다. 그녀와 만난 직후 약혼자는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그의 죽음은 일시적인 '핑란'에 가까운 충격으로 다가올 만큼 정신적인 방황을 수반하였다.¹⁷⁾ 허망함과 아울러 삶의 무게를 실감하는 시간이었다.

당시 일본 여성들은 문예지 『세이트(南緯)』를 통하여 여성해방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주요한 쟁점은 정조문제·낙태논쟁·공창폐지 등 일상사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문제였다.¹⁸⁾ 즉 무조건적으로 여성에게만 정조를 강요하는 성윤리에 대한 비판과 성매매 여성에 대한 면대감 표명 등은 실천적인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전보적인 잡지인 『태양』과 『중앙공론』은 부인문제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가정과 사회에서 부인의 역할과 중요성 강조는 여성해방운동 분위기를 고조시켰다.¹⁹⁾ 각지에 조직된 여성단체는 강연회·연설회 등을 통하여 잠재적인 의식을 일깨웠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 여자유학생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다. 특히 기혼자 유학생들의 이

15) 나혜석, 『나의 여교원시대』, 『삼천리』 7, 삼천리사, 1935.

16) 김필국, 「굴기된 인습에 도전장을 던진 민족운동가 나혜석」, 『나혜석, 한국근대사를 읽는다』, 100쪽.

17) 윤정란, 『예술가 나혜석의 독립운동』, 『제10회 나혜석 바르장기 심포지엄』, 99~100쪽.

18) 윤유복, 「『핑란』 이후의 새로운 여자들 : 히라츠카 다이초」, 『한여실-한국과 일본의 근대 여성상』, 37면, 2003.

19) 윤유복, 『나혜석과 최보은영과 민중익회 서문』, 『월간민중』 9월호, 1985 참조.

중적인 생활태도는 '증오와 애증'이 교차되는 분재였다. 자유연애·자유결혼·자유이혼 등은 절박한 현실문제로서 인식되었다. 나혜석도 결코 예외적인 존재일 수 없었다. 이나 이와 같은 분위기를 주도하는 중심적인 인물이었다.

동경유학생학우회 기관지인 『한지광』 부고는 문필가로서 나혜석 존재를 알리는 계기였다. 『이상적 부인』은 근대적인 사조를 수용한 그녀의 현실인식을 잘 보여준다. 이 글에서 완벽한 이상적인 여성은 없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혁신적인 여성은 카츄샤, 체르노 이상을 삼은 막다, 진(眞)의 연애로 이상을 삼은 노라, 종교적 평등주의로 이상을 삼은 스토크 부인, 전제적으로 이상을 삼은 라이즈 여사, 원만한 가정의 이상을 가진 요사노 여사 등을 거론했다.³²⁾

현모양처론은 교육자들이 상업적으로 내세우는 논리에 불과한 것으로 궁극적인 의도는 여자를 노예로 만들기 위한 수식어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사회적인 존재로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를 요구했다. 특히 순종적인 여인상에 대한 비판도 마다하지 않았다.³³⁾ 그녀는 외국의 여러 사례를 거론한 뒤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조선여자는 조선 여자다운 자취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잡담-K언니에게 여(女)함」도 이러한 관점에서 신교육을 통한 여성해방을 주장했다. “내가 여자요, 여자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소, 내가 조선사람이요, 조선사람이 어떻게 해야할 것을 알아야겠소. 이(二)는 자기소유로 만들려는 욕심이 있어야겠소. 우리가 함용 부르는 일본의 「아마도다마시이」가 무엇이요 일본은 남의 문화를 수용하되 일본화 하는 것이요. 일본사람은 외적 자극을 받아 가지고 내적 조직을 만드는 것이요, 우리도 배우는 학문을 내 소유로 만들어야겠소. 조선화시킬 욕심을 가져야겠소.” 이리하여 ‘조선여자다운’ 여인상 정립은 여성해방을 위한 주요한 논제로 부각시켰다.

이는 김필례·김마리아 등과 조선여자유학생친목회를 조직하는 직접적인 계기였다.³⁴⁾ 이광수·현삼운 등은 후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았다. 이 단체는 여성계몽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웠다. 그녀는 1917년 10월 입사총회에서 총무로 선출되었다. 기관지 『여자계』 발행 편집 등을 주관하는 한편 발간을 위한 기금모금 등에도 매우 열성적이었다. 활발한 성격은 학과

32) 김형욱, 「나혜석의 현실인식과 안무운동에서 어떤」, 『순실사학』 29, (2008).

33) 나혜석, 『잡담』, 『한지광』 1권 1917.

34) 김필례, 「1917-1918년 초반 여자유학생친목회 연구」, 『중앙아시아학회논문집』 2008년 28호.

적인 활동으로 이어졌다. 국내 여성계와 교류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였다. 그녀는 자금조달은 물론 직접 원고 집필과 수집에도 노력했다.³³⁾

나혜석은 과외활동과 학업 등을 통하여 근대적인 사조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단지 새로운 사조 수용에만 그치지 않고 자주적인 '조선적인 여인상'을 정립·실현하는 문제로까지 발전되었다.³⁴⁾ 잡지와 신문 등 언론을 통한 문화계몽활동은 이러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1920년대 여성해방을 둘러싼 논쟁은 이와 맞물려 진전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민족해방운동으로서 여성운동 전천은 이러한 역사적인 연원과 무관하지 않다.

IV. 민족운동가로서 거듭나다

3·1만세운동은 서울을 시발로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김마리아·황애시덕 등 동경유학생 시절 동지들과 이화학당 교사와 함께 참여하였다. 그녀는 묘양 중으로 거처를 이전동에서 윤니동 37번지로 옮겼다. 동지들은 3·8독립운동에 참여한 후 귀국하여 여성을 중심으로 한 3·1운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들 동참과 지원 요청에 바로 이를 받아들였다. 김마리아 등과 함께 이화학당 교사 박인덕의 키숙사 방에 모였다. 참석자는 나혜석을 포함한 당대를 대표하는 김마리아·박인덕·황애시덕·김하르논·손경순·안병숙·안숙자·신준려(일명 신케르노)·박충일·안병수 등 모두 11명이었다.³⁵⁾ 참석자는 기독교인으로 이화학당 교사·학생·졸업생 등이었다. 그녀는 이들과 기독교인으로 동질감과 아울러 동경유학생 시절부터 동지로서 돈독한 유대감과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다.³⁶⁾

여기에서 여성계의 3·1만세운동 참여 방안이 논의되었다. 황애시덕은 3가지 방안을 제시

33) 조선매지유학생회우회, 『초사』, 『여자계』, 1918; 99면, 『나혜석의 민족의식 형성과 민족운동』.

『나혜석, 한국근대사를 거닐다』, 478~479쪽.

34) 임숙원, 『나혜석의 소설 「경희」와 검토』, 『나혜석 마로알기 제1회 국제학술포럼』, 1999; 김복순, 『「경희」에 나타난 신여성 기획과 미완성』, 『나혜석 마로알기 제4회 심포지움』, 2001; 김은실, 『나혜석의 자유에 관한 이념학적 접근—「여지도 사립이다」와 사암이 되는 길로서의 예술』, 『나혜석 마로알기 제7회 심포지움』, 2004.

35) 카사린원위원회, 『나혜석 신문초사』·『신준려 신문초사』, 『위민초독운동사자료집』 34, 2000; 100쪽.

36) 임행욱, 『금마리 인습에 도전장을 던진 민족운동가 나혜석』, 『나혜석, 한국근대사를 거닐다』, 207쪽.

하였다. 첫째는 여자단체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할 것, 둘째는 남자단체와 여자단체 사이에 상호연락을 취할 것, 셋째는 남자단체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 여자단체가 이를 대신할 것 등이었다. 향후 계획은 3월 4일 다시 모여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녀는 첫째와 둘째의 안에 찬성한 후 다음날 활동자금 모금과 지지 세력 확산을 위하여 서북지방으로 떠났다.³⁵⁾

3월 8일 개성에서는 정화여자학교 교장인 이정자를 만나 여자단체 결성에 동참하기를 권유하였다. 이정자는 교장으로 당장 참가는 불가능하지만 지원을 약속했다. 다음날 삼일여자학교 동창인 박중애를 평양의 경건여자학교에서 만났다.³⁶⁾ 박중애도 뜻에는 동의하지만 적극적인 참여는 현실적인 여건상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어렵게 방문하였으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3월 5일 서울로 돌아온 그녀는 안숙자 집에서 개성과 평양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하여 만세시위운동을 지도·후원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로 인하여 동지들과 3월 8일 어화학당에서 체포되어 경성지방검사국에서 심문을 받았다. 체포한 이유는 학생들을 독려하여 만세운동에 참가하도록 유도한 혐의였다.³⁷⁾

그녀는 서대문감옥에 투옥되었다가 8월 5일 증거불충분으로 면소 방면되었다.³⁸⁾ 옥중에서도 동지들과 암호로 연락을 취하며 식민지배 부당성을 폭르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른바 '옥중투쟁'을 통하여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만천하에 알리고자 했다.³⁹⁾ 3·1만세운동 추도는 국내외적으로 나혜석 존재를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였다.

3·1만세운동 참여와 지도는 여성지도자로서 부각시켰다. 미주지역에서 발간된 『산한민보』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35) 국사편찬위원회, 『나혜석 심문부서』,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4, 김주홍, 『나혜석이 민족의식과 독립운동이원 활동—나혜석, 독립을 그리다』, 『제15회 나혜석 바르알기 심포지엄』, 경향 대해서 기념사업회, 2012, 101~104쪽.

36) 윤정진, 『애국가 나혜석의 독립운동』, 『제10회 나혜석 바르알기 심포지엄』, 경향 대해서 기념사업회, 2007, 103~104쪽.

37) 김주홍, 『나혜석이 민족의식과 독립운동이원 활동—나혜석, 독립을 그리다』, 『제15회 나혜석 바르알기 심포지엄』, 104쪽.

38) 독립운동사연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3, 1072, 65~68쪽. 사원, 『나혜석의 민족의식 형성과 3·1운동』, 『나혜석, 한국근대사를 리본다』, 484~485쪽.

39) 연일부, 『여성상징론(영) 백화단만화 기이여안군』, 『한민보』 16, 1921, 32~33쪽.

대한독립선언의 선봉선 동경 유학생 수십여 명 형제를 5월 초순에 보라 요술하여 경성지방법원으로 끌어들여 신문중이라는 데 그중에 왜경 명고육여자비술학교 졸업생 나혜석씨와 여자하원 대학부 출신 김마리아 씨등은 방금 감옥중에서 부딪힌 수옥을 당하면서 왜놈검사의 취조를 받되 조금도 겁나함이 없이 용감 완강한 태도로 정당한 도리를 끌어 함변하여 왜놈들도 크게 놀라나 법리상으로 검사하지 못할 줄 알고 혹독한 형벌을 베풀어 취조하는 중이라더라.”

나혜석은 김마리아와 더불어 3·1만세운동을 주도한 여성지도자로서 미주 한인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계기였다. 실제로 3·1운동사에서 그녀 역함은 결코 과소평가될 부분이 아니다. 개성과 평양을 직접 방문한 활동반경은 ‘실천적인’ 나혜석의 진면목을 보여준다.⁴²⁾ 그것도 전장이 여의지 않았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정의감에 불태는 20대 중반의 ‘나혜석 모습’이 이렇하게 그려진다. 3·1만세운동에서 민족적인 열정 분출이 무주와 인유애의 개탄을 기반하고 있었다는 평가는 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20년 김우영과 결혼한 지 한 달만인 5월 9일 상동에배당에서 개최된 조선학생대회 장립총회에 참석하였다. 임원진은 회장 김윤경, 부회장 김찬주, 총무 신경수·김정순 등을 선임했다. 부서는 의사부·덕육부·체육부·경리부·사교부 등이었다. 임원 선출에 이어 그녀는 허영숙·김원주 등과 축사로서 이 단체 발전을 기원했다.⁴³⁾ 학생단체 조직화는 1920년대 민족해방운동을 진전시키는 밑거름이었다. 학생운동에 대한 배려는 이러한 인식의 발로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나혜석은 외교관 부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의열단원에 대한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⁴⁴⁾ 1921년 남편 김우영은 외무성 안동(현 단동·필자주)부영사로 부임하였다. 일로

42) 『신한민보』, 1919년 6월 7일 「세계 자유시장에 피음 되는 1만명 애국여자의 대활동-부녀에게 그대 발사기 애착되어-」.

43) 이윤희, 「나혜석의 선각적 사상 연구」, 『해산하보』 63, 백산학회, 2000.

44) 권모그레, 「서인저 최치언의 민족과 인류-3·1운동 전후 나혜석과 김기전을 중심으로-」, 『창신문화연구』 58-2, 한국창신문화연구원, 2005, 20~21쪽.

45) 『동아일보』, 1920년 5월 9일 「조선학생대회 장립총회」, 5월 10일 「學生大會의 盛況 演說한 정개강에 武士의 精神을」, 5월 11일 「학생대회 후보」.

46) 김우영, 『회고』, 신광공문사, 1954, 70~83쪽 ; 황민호, 「나혜석의 민족의식과 민족운동의 헌정」, 『수원문화사연구』 5, 101~105쪽.

한 기회를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의열단원 회고는 이들에 대한 지원과 후원 상황을 잘 보여준다.⁴⁷⁾ 이른바 黃王事件은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이다.

김우영의 부인 나혜석은 애국부인회의 김마리아와 친한 관계가 있어서 김마리아가 애국부인회 사건으로 인하여 대구 일본 관옥에 갇혔을 때에 나혜석은 한성으로부터 대구까지 가서 김마리아를 칠창 밭에서 만나보고 도라와서 뜻깊고 감정한 『김마리아방문기』를 써서 친문에 발표했었다. 나도 그때 한성에서 그의 글을 보게 되어서 깊은 감동을 느꼈든 것이다....(중략)...폭탄과 권총은 황옥이 가지고 형석원 남정과 박기충과 함께 단동으로 가서 나혜석의 숙사에서 하루밤을 쉬고 그 이튿날 아침에 기차를 타고갈 적에 나혜석은 폭탄과 권총을 감춰놓은 여행대에 “단동령사건”이라고 쓴 종이책을 부치서 주었든 것이다. 폭탄과 권총은 황옥이 가지고 네사람이 각각 다른 자리에 안치서 안전하게 한성까지 도달하였다....(하략)...⁴⁸⁾

중국 대륙으로 넘어가는 열차를 탈 때 김우영씨는 자신의 병함에 내가 북경대학 학생임을 증명하는 글을 적어주어 궤석궤함에 유격을 선고반야 수배 중이던 내가 일제 이동경찰의 감시를 뚫고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또 우리가 숨겨온 폭탄 가방을 그의 집에 숨겨두도록 하는 등 어떤 위험도 무릅쓰려 했다. 이처럼 그의 대외적 지원이 오히려 독립운동에 기여를 한 것이다. 물론 민족의 한 사람으로 당연한 인이었는데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용기가 어디 존한 것인가. 소위 ‘의열단사건’으로 나를 비롯한 많은 동지들이 옥중생활을 했을 때, 그의 부인 나혜석씨는 우리를 찾아와 건강을 걱정해주고 민족을 회생시키기 위한 용기를 북돋워주는 일을 잊지 않았다. 또 그러한 정신적 격려를 바탕으로 민족을 위한 동지들의 전의가 더욱 굳어졌음도 물론이다....(하략)...⁴⁹⁾

47) 『동아일보』 1922년 8월 9일 「義烈團 公刊 黃王의 陳述은 무엇이라 말하였나」.

48)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유치명 수기, 한 혁명자의 회고록』, 1998, 120~121쪽.

49) 유치명, 『잊을 수 없는 사람들』, 『한국경제일보』 1980년 11월 8일호.

이처럼 의열단원은 물론 당시 국외 항일운동세력에 대한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다. 비록 식민지 관리로서 살아가지만 조국독립을 위한 염원은 어느 누구보다 강렬한 의식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⁸⁰⁾ 생사를 건 '모험적인' 활동은 의열단원에게 용기와 아울러 활동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밑바탕이었다. 더욱이 인습이 모존한 당시 여성으로서 지원은 운명을 건 중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스스로 기독교를 포기하지 않고 결코 결행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녀는 주저함 없이 이를 결행하는 담대함을 보여주었다. 역시 '나혜석이 나혜석 다운' 용단으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안동에서 생활은 후일 회고담을 통하여 부분적이나마 잊볼 수 있다.

경성서 同件(鄭)해준 崔恩壽氏는 올며 나를 보내준다. 나는 매우 고마웠다. 그의 귀한 눈물을 뺏음만한 아모 충실함이 업섯든 거슬 매우 뜻그러하였다. 南山(鄭)에서 만동현조선인화 대포 1인의 출영을 맞았다. 만동역에 도착하니 野人 80여 명의 출영이 잇섯다. 모다 손이 으스러져라하고 잡아흔든다.

만동현은 기왕 6개년간 산든 곳이라. 눈에 매우는 이상한 거슨 업섯스나 길가에 잇는 포푸라까지 만가있다. 실로 만동현과 우리와는 인연이 깊다. 사회상으로 사 연이라고 해본대도 여괴요, 개인적으로 남을 도와본대도 여괴요, 낯에 대한 편 맛 단맛을 맛보아 본 곳도 여괴다.⁸¹⁾

안동은 국경도시이자 그의 삶은 열기와 민족의식이 녹아 있는 공간이었다. 미려한 시간의 흐름은 이른 이후 안동에 대한 회고로 이어졌다. 특히 봉천 들지 거리풍경이나 역사유적지를 대상으로 한 그림은 조선미술전람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자신감을 배가시켰다.⁸²⁾ 이처럼 안동은 스스로가 결정한 바를 실천할 수 있는 활동공간으로서 각인되었다.

신문을 통한 계몽활동도 병행하였다. 한국 여성들이 그림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은 원인은 화가를 천시하는 인습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했다. 1933년 여자미술학사 설립도 이러한 의

80) 박태원, 『야산과 아영단』, 백영사, 1947, 208쪽.

81) 나혜석, 『보아보 도색아행(觀美遊記)』 其一, 『삼천리』 4-12, 상권리자, 1985, 61쪽.

82) 『꽃아말리』 1933년 5월 10일 『개화관 미술전람회(1), 천후궁(특선) 나혜석』.

도에서 비롯되었다. 고루한 인습과 그녀의 파격적인 활동 등은 성과를 거두기에 역부족이었다.” 이혼녀라는 사회적인 편견은 그녀에게 미술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과 관계를 차단시켰다. 하지만 ‘여성의 의한, 여성을 위한, 나아가 시세변화에 무용한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여자 미술학사 설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전인미답의 원대한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선구자로서 고통은 여기에서 일부나마 얻을 수 있다.

전람회 개략도 이러한 목적을 확대·발전시키려는 의도였다. 끝모지나 다름없는 수원과 예술 동지에서 전람회는 자신의 ‘소박한’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함이었다.” 지역사회의 문화 전파와 풍부한 소양은 이러한 활동에서 비롯되었다. 어쩌면 허박한 현실에 대한 항변인 지도 모른다. 후일 한국 화단을 대표하는 화가 이용로·구본웅 등도 그녀에게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여성생활의 향상을 위한 의복개량문제에 대한 의견도 개진하였다. 외래지향적인 의복개량은 주체적인 여성상을 보지려 훼손하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편의성과 아울러 전통적인 고유한 뜻을 살리는 방향에서 의복개량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생활개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부부애에 기반을 둔 화목한 가정생활은 남성들의 인식변화와 여성들의 자주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먼저 마음부터 고치자 그리고 살림을 고치자”라는 슬로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1920년대 여성운동 방향성을 일부나마 제시한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잠원 남녀애정 문제도 언급하는 등 사회적인 악자인 여성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기생 강변화 자살에 대한 의견은 남성 위주의 사회제도가 관념 등을 사회적인 문제로서 반려 부각시켰다.” 1923년 4월에 걸쳐 『동명』에 연재한 「모(母)된 갑살기」는 일진과 출산에 따른 여

53 『중앙일보』 1923년 2월 4일 「수송동역, 여리이슬화사」, 『동아일보』 1923년 3월 4일 「하해석녀사 다자미술학사창설 사내 수송동역」.

54 『중앙일보』 1923년 2월 24일 「나혜석여사 구미서방선답, 고이 고장인 주황에서」, 『조선중앙일보』 1923년 3월 22일 「예산읍 공회당에서 나혜석씨 개인전」.

55 구광모, 「『友人』과 『女人』 - 구본웅 이장 나혜석의 우정과 예술」, 『인동아』 518, 동아일보사, 2020.

56 『동아일보』 1921년 9월 28~10월 4일 「부녀위탁개량문제-나혜석여사」.

57 『동아일보』 1926년 3월 24일 「생활개량에 대한 여자의 부조지침」.

58 『동아일보』 1925년 7월 8일 「강변화와 자살에 대하여」 14월월.

성의 고통을 실감나게 언급했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는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⁹⁰⁾ 1930년대 『동아일보』에 연재한 「구미서찰기」도 바람직한 가정생활과 부부간 애정 등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가사노동 분담과 관련된 애정은 가정생활의 근간임을 강조했다.⁹¹⁾

중국 안동현에서 1922년 3월 여자야학을 개설하는 등 근대교육 보급에도 앞장섰다. 이는 3·1만세운동 이래 문화계몽운동 동참과 같은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우리 조선여자제를 위하여 열심진력하는 나혜석여사는 금번 당지 광민보 廣民報 院 내에 여자야학을 설립하고 매주 삼일간 오후 칠시부터 동십시까지 단독히 열심으로 교편을執한다하며 입학지원자가 諸君踴躍한다하더라.⁹²⁾

여자야학 문명은 신교육을 통한 민지제발에 목적을 두었다. 신의주청년회 주최로 개최된 가정문제에 관한 특별강연회에서 발표는 비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녀는 「생활개선에 대한 부인의 부르짖음」이라는 연재를 발표하여 청중들로부터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⁹³⁾ 이는 자신이 신문·잡지 등 기고문을 통해 그동안 주장한 바를 더욱 논리적으로 개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회단체와 연결된 활동은 이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아마 남편과 구미여행, 4남매 어머니로서 역할 등등은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더욱이 사회적인 편견은 나혜석의 사회적인 참여와 활동을 철저하게 봉쇄하는 족쇄였다.⁹⁴⁾ 고할 수원으로 나함과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하려는 몸부림은 미와 무관하지 않았다. 수원을 배경으로 한 일시적인 여유는 시와 그림에서 엿볼 수 있다. 물론 소박한 바깥도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그녀를 둘러싼 사회적인 질시 등은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수면

90) 나혜석, 『오면 김상기』, 『동경』 18~21, 동경사, 1933.

91) 『동아일보』, 1933년 3월 28일~4월 2일 「구미서찰기, 참관서 가정은 어머니 다름기」.

92) 『동아일보』, 1922년 3월 22일 「안동현 여자야학」.

93) 『시대일보』, 1923년 11월 24일 「집회와 강연」.

94) '영조 유원희 고소사건'은 일화성 보도에 그쳤다. 조선총독부의 일본기판의 '황민(皇民)'에 실렸던 '조선의 여자'에서 고소문이 남아 있다. 미원 나혜석은 사회적으로 가장 지탄받는 여성으로 '낙인'을 받고 있었다(정환의 편, 『일제시대 민족의 영웅기』(서울: 1, 1998) 문학과 지성사, 1998, 673~675쪽).

사·해인사·다솔사·반어사 등으로 떠돌며 탁발승 같은 삶으로 이어졌다.¹⁴⁾ 어느 누구도 그 녀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V. 과제와 전망

나혜석은 한국근대사에서 ‘꽃꽃’처럼 살다간 대표적인 여성이다. 극소수 여성만이 누릴 수 있었던 고등교육 수혜는 자아다짐과 아울러 현실인식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파격적인’ 삶을 지향하는 ‘에너지원’이었다. 일본에서 유학생활은 시대적인 사조를 인식·체험하는 교육현장이나 다름없었다. 작은 오빠 나경석, 약혼자 최승구, 남편인 김우영, 소설가 이광수·전영택·염상섭 등은 자기정체성과 민족의식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¹⁵⁾ 현지 여성운동도 시대적인 변화 상황을 일깨우는 중요한 기제 중 하나였다. 다양한 사회활동은 선각자적인 여성으로 거듭나는 원동력이었다.¹⁶⁾

시대상황을 초월하여 소신대로 생활하다가 몰연히 그녀는 우리 곁을 떠났다. 마지막 안간힘을 더해 스스로 생애를 정리하려는 의지를 불태웠다. 바람과 달리 자신의 삶에 대한 한 줄 회고조차도 남기지 못하고 말았다.¹⁷⁾ ‘남겨진 인습’과 대결에서 너무나 지쳤으나 가족은 물론 자 인물조차도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다. 이완성인 글이나마 부분적으로 남아 있었더라도 하는 아쉬움은 필자만이 느끼는 감회가 아니다. 그런 만큼 ‘나혜석 바로알기’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하나의 ‘과무’ 일에 몰입했다. 향후 올바른 나혜석 연구를 위한 몇 마디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학인지 현실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요구된다. 화가로서 ‘그림그리기’에 치중하는 동시에 화가 민족운동가 교육자 등 폭넓은 영역에서 활동한 실천가였다. 선분이나 한

14) 김명숙, 「정말 나혜석 인생역정」 중 1920년 이후 참조.

15) 박희, 「최초의 서양화가 나혜석의 민족의식 형성과정」, 『문예』, 『정기지역』 3, 『북원출판사』, 475-480쪽.

16) 김재일, 「현대 일본 여성운동-신헌운동과 그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아세아여성연구』 18, 숙명여자 아세아여성연구소, 1978.

17) 이상경, 『나혜석: 20세기 초반 여성 예술가 연구』, 『문예』 91, 『문예출판사』, 1986.

식에 투고한 글은 자신의 일생사와 더불어 계몽적인 성격을 상당수 대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식민지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등은 크게 돋보이지 않는다. 불합리와 제도나 인습 등을 비판하고 있을 뿐이다. 소설 등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하지만, 식민지배의 본질에 대해 지나치게 간과하였다. 1920년대 중반을 전후한 사회주의 여성활동가와 너무나 다른 양상이다. 모순된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개선하려는 방법론도 마찬가지로 부인할 수 없다. 1926년 1월 『동아일보』에 연재한 「생활개선에 대한 부르주아」은 강한 '엘리트의식'을 보여준다. 대부분 여성은 그녀에게 '계몽대상' 일본 동만자로서 전혀 인식되지 않았다. 현실 인식에 대한 시기별 변화는 물론 정치한 추적과 분석이 결실하다.

둘째는 자기정제성 정립이나 민족의식 형성에 영향을 끼친 요인에 대한 정치한 분석이다. 집안분위기나 가족관계, 학창시절 스승이나 교우관계, 사회활동 등과 관련된 인물, 기독교 원조적인 인간관 등 다양한 요인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민족의식 형성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는 일본 유학생시절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⁹⁸⁾ 그러한 측면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삼일여학교나 진명여고도 학창시절도 '결대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삼일여학교 교사 김메레나 이사라는 그녀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⁹⁹⁾ 진명여고 교에 재직한 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일본 유학생 시절 스승이나 한국인 유학생 등과 교유나 대외활동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체성 형성과 민족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첫 사랑 최승구와 한시 여성운동 분위기나 경향성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셋째는 민족해방운동 동참과 후원 등에 관한 평가문제이다. 박인덕, 신준례 등과 3·1만세 운동에 직접 동참하여 5개월 동안이나 수감되었다. 옥중투쟁은 입제 만행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중요한 계기이자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내었다. 비주 한인사화는 물론 국외 항일세력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안동부영사 부인으로서 여자야학 설립과 의열단 활동도 측면에서 지원하는 등 항일운동에 동참했다. 또한 잡지나 신문 등 기고문을 통한 계몽활동도 병행하였다.¹⁰⁰⁾ 그런데 192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활동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림그리기와 입상사에 많은

98) 大塚幸雄, 「일본 근대미술과 동경미술학교」, 『월간미술』 9월호, 1982년 1호본지. “나혜석의 계몽운동에 미술학교 시절”, 『월간미술』 9월호, 1986.

99) 최승구, 『나의 회고록』, 인제대학교출판부, 1985 참조.

100) 김행복, 「나혜석의 현실인식과 민족운동에서 역할」, 『승상사학』 28, 2010.

관심과 열정을 보였다. 시기별 인식 변화와 활동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넷째로 항일운동 참여나 자원은 과연 순간적인 판단에 의한 일화성에 불과한 것인가, 단언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최소한 '친일적인' 행위로부터 자유롭다. 김우영·이광수·최린 등과는 각이 다른 인물이었다. 구차한 삶이더라도 혼자 용분을 삼키면서 미래를 꿈꾼 '순수한' 인간이라면 지나친 표현일까, 그런 점에서 민족운동가로서 나혜석에 대한 진정한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⁷⁾ 나아가 근대여성운동사에 차지하는 위상도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낀다. 특히 이혼 이후 경제적인 궁핍한 속에서도 그림그리기와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었던 배경도 찾아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다섯째는 이혼 이후 현실인식과 인생여정에 대한 분석이다. 경제적인 궁핍과 아울러 사회적인 지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였다. 이는 구미반유를 통한 가치관 변화와 무관하지 않는 부분임에 틀림없다. 서구사회의 가정생활은 인습에 얽매인 당시 상황에 대한 저항과 분노로 표출되었다. 남성중심적인 사회질서는 여성에게 순결·정조를 강요하는 모순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도 이와 같은 인습의 '희생양'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당대를 함께 살았던 다양한 인물과 비교 연구가 아쉽다. 구전으로 전해오는 그녀와 관련된 사료에 대한 발굴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항주 학술회의가 민족운동가로서 '인간 나혜석'을 재발견하기 위한 교두보가 되는 동시에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7) 김우영, 「나혜석의 근대성과 민족운동가로서의 활동」, 『제1회 나혜석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8.

〈참고문헌〉

- 서경자, 『(원본)정월 나혜석 전집』, 국학자료원, 2001.
- 수원박물관, 『나는 나혜석이다-2011 수원박물관 특별기획전 도록』, 2011.
- 김진 아연택, 『그때 그일이 왜 그리 졸랐단고』, 해누리기획, 2009.
- 나열균, 『일제시대 우리 가족은』, 월소자리, 2004.
- 윤범모·김철복 외, 『나혜석 한국근대사를 거닐다』, 푸른사상사, 2011.
- 김주용, 『나혜석의 민족의식과 독립운동지원 활동-나혜석, 독립을 그리다』, 『제15회 나혜석 바로알기 심포지엄』, 정월 나혜석 기념사업회, 2012.
- 김현묵, 『“금가된 인생”에 도전장을 던진 민족운동가 나혜석』, 『나혜석 한국근대사를 거닐다』, 푸른사상사, 2011.
- 김현묵, 『민족운동가로서 나혜석 바로알기를 위한 제언』, 『제12회 나혜석 바로알기 심포지엄』, 정월 나혜석 기념사업회, 2011.
- 김현묵, 『나혜석의 현실인식과 민족운동에서 역할』, 『숭실사학』 24, 숭실학회, 2010.
- 박정애, 『1910~1920년대 초반 여자일본유학생연구』, 숙명여대사학위논문, 1995.
- 박한, 『최초의 서양화가 나혜석의 민족의식 형성과 3·1운동』, 『경기지역 3·1독립운동사』, 선인, 2007.
- 서광일, 『인종과 함께 한 정월 나혜석』, 『나혜석 바로알기 제4회 심포지움』, 정월 나혜석 기념사업회, 2001.
- 윤정안, 『예술가 나혜석의 독립운동』, 『나혜석 바로알기 제10회 국제심포지움』, 정월 나혜석 기념사업회, 2007.
- 윤여민, 『현대 일본 여성운동-청담운동과 그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아세아여성연구』 19, 숙명여대 아세아여성연구소, 1979.
- 이송희, 『선명성 나혜석의 민족의식과 민족운동』, 『나혜석 바로알기 제9회 국제심포지움』, 정월 나혜석 기념사업회, 2006.
- 최홍규, 『나혜석의 가족사와 민족의식』, 『한국 근대청년사의 탐구』, 경민문화사, 2000.
- 황인호, 『나혜석의 민족의식과 민족운동의 전개』, 『수원문화사연구』 5, 수원문화사연구회, 2002.

여 백

제4토론

「나혜석, 민족운동사에서 연구 동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박 환(수원대학교 교수)



여 백

「나혜석, 민족운동사에서 연구 동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박 환(수원대학교 교수)

본고에서 필자는 1차적으로 여성운동가, 민족운동가로서 나혜석의 민족의식 형성과 활동상 등 역사학적 연구 성과를 잘 정리하고 있다. 아울러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과제를 모색·전망 하여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필자는 Ⅱ.자아를 각성시킨 근대교육, Ⅲ.민족의식을 심화시킨 농경유학, Ⅳ.민족운동가로서 거듭나다, Ⅴ.과제와 전망 등으로 목차를 나누어 나혜석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 이는 필자가 그동안 나혜석에 대하여 집중적인 연구를 하여 왔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수원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인연으로 또한 나혜석의 부친인 나기정 등 나씨 일족의 묘소와 나중석의 거주지가 수원대 근처 불천리에 있는 연유로 일찍부터 나혜석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행운이 주어졌다. 토론자로서 필자의 발표에 대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도록 하겠다.

첫째, 필자는 <Ⅱ장 자아를 각성시킨 근대교육>에서 나혜석 부친 나기정에 대하여

경기관찰사서리 金鎭堯과 부친 羅恭甫은 수원 종로에 국채보상금모집사무지소를 설립하였다. 이들은 주민들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경기도 관내 관리들에게 적극적인 동참을 호명했다. 활발한 경기도내 국채보상운동은 이러한 역사적인 연원에서 비롯되었다.

라고 하여 상영이 애국적인 인물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나기청에 대하여는 내용주에서라도 다른 활동 내용과 견해에 대하여도 소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그래야 나혜석의 성장 배경과 민족의식 형성의 단초를 풀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나기청의 성격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둘째, 필자는 〈표, 민족의식을 심화시킨 동경유학〉이라고 하여 동경유학의 특징을 민족의식을 심화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필자는,

나혜석은 과외활동과 학업 등을 통하여 근대적인 시조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 글 단지 새로운 시조 수용에만 그치지 않고 자주적인 '조선적인 여인상'을 성립·실현하는 문제까지 발견되었다.

라고 하여 그의 근대시조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토론자도 동의한다. 다만 1910년대 일본 동경 유학시절 나혜석의 오빠인 나경석은 아나키즘 등 사회주의 사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오빠의 이러한 점은 나혜석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나혜석의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을 찾아볼 수 있는 기록은 없는지 궁금하다.

또한 나혜석은 동경유학에서 민족의식도 갖게 되었겠지만 그보다는 근대교육의 영향으로 보다 근대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민족의식을 심화시킨 동경유학이란 표현은 지나치게 일면만을 강조한 것은 아닐까.

셋째, 필자는 〈IV. 민족운동가로서 거듭나다〉에서 3·1운동 및 그 이후 나혜석의 민족운동가로서의 면모를 밝혀주고 있다. 특히 그의 3·1운동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도 서술하고 있듯이, 그녀는 시대문답육에 투옥되었다가 1919년 8월 5일 증거불충분으로 연소 방면되었다.

한편 필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옥중에서도 동지들과 안호로 연락을 취하며 시면지배 투쟁성을 폭로하는데 노련함을 기울였다. 이(1919) '옥중투쟁'을 통하여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선명하게 알리

고작 했다. 3·1만세운동 주도는 국내외적으로 나혜석 존재를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였다.

실제로 3·1운동사에서 그녀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될 부분이 아니다. 개성과 영향을 직접 방출한 활동반점은 '실천적인' 나혜석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것도 건강이 여의치 않았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정의감에 불태는 50대 중반의 '나혜석 모습'이 아련하게 그려진다.

필자의 나혜석에 대한 이러한 서술은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1933년 이후 나혜석의 삶은 민족운동보다는 개인적인 삶의 무게에 좀더 비중이 가는 것은 아닐까. 필자도 과제와 전망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1930년대 중반 이후 이러한 활동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림그라기와 일상사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였다. 시기별 인식 변화와 활동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민족운동가로서 거듭나다”라는 목차는 한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필자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다.

넷째, 〈Ⅴ, 과제와 전망〉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우선 현실인식에 대한 시기별 변화는 물론 정치한 추적과 분석이 절실하다. 둘째는 자기정체성 정립이나 민족의식 형성에 영향을 끼친 요인에 대한 정치한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는 “그녀는 최소한 ‘친밀적인’ 행위로부터 자유롭다. 김우영·이광수·최린 등과는 격이 다른 인물이었다. 구차한 싫이지도 혼자 읊분들 삼키면서 미래를 꿈꾼 ‘순수한’ 인간이라면 지나친 표현일까. 그런 점에서 민족운동가로서 나혜석에 대한 진정한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대를 함께 살았던 다양한 인물과 비교 연구가 아쉽다. 구전으로 전해오는 그녀와 관련된 사료에 대한 발굴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향후 학술회의가 민족운동가로서 ‘인간 나혜석’을 재발견하기 위한 교두보가 되는 동시에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

고 있다.

필자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나혜석에 대한 보다 철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자도 이러한 필자의 주장에 동의한다.

나혜석에 대한 지금까지의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는 나혜석의 집안, 민족의식의 형성, 민족운동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처음에 막연했던 부분들이 유동준 나혜석기념사업회 회장의 열심으로 개척적으로 이루어졌다. 10여년 전 현장을 답사하고 자료를 수집하러 다니던 때가 기억된다. 나혜석에 대한 역사학적 접근은 수원지역에 있는 사학과 교수들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나혜석의 집안과 의열단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최홍규, 서필일교수의 연구가 큰 기여를 하였다. 박환은 나혜석의 3·1운동관련 자료를 처음으로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후 필일교수가 1920년대 전반의 나혜석의 민족운동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김행복박사가 나혜석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여 이 분야 연구를 한 단계 올려 놓았다. 아울러 김주용박사는 만주 안동시절의 나혜석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나혜석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나혜석 연구는 나혜석과 나경석, 나혜석과 최승구, 나혜석과 최은희 등 나혜석과 그 동료들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또한 유럽으로 가는 동안 시베리아에서의 나혜석 등 주요 지역에서의 나혜석에 대하여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특히 역사학에서는 자료를 중요시 하는 만큼 자료의 발굴 역시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한다. 아울러 자료에 대한 신중한 검토 또한 요구된다. 의열단과 관련하여 주로 이용되는 유지영 회고록 등도 그러한 경우라고 보여진다.

제5발표

나혜석의 사회의식과 언론의 방향성

浦川 登久恵(구마모토대 강사)



여 백

나혜석의 사회의식과 언론의 방향성

우라카와 도쿠에(구마모토대 강사)

- I. 머리말
- II. 합리적사고와 '경제'에 대한 시점
- III. 개인의 중요로움에 대한 갈구
- IV. '조선'과 '파리'를 둘러싼 갈등과 균열
- V. 맺은말

I. 머리말

근년 나혜석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신여성은 "민족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로서 파악하지 못 함"¹⁾ 존재로서 자아의 발현만을 강조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자유연애에 의한 결혼과 신경조본이 중심"²⁾이라는 평가가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사실 나혜석의 언론활동에 대해서

1) 三橋広夫 監역 『躍動する韓国史の歴史(民間版代案韓国歴史教科書)』, 明石書店, 2004年 p.430
2) 植惣貞 『韓国社会とジェンダー』, 法政大学出版局, (2009年) p.70

는 이제까지 여성문제에 특화된 모성관이나 섹슈얼리티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글을 발표하기 시작한 시기의 나혜석은 스스로 “조선여자”라고 규정하고 출발하고 있다.³⁾ 그 시기의 언론활동에는 “여자”와 함께 “조선”이 항상 의식 속에 있었으며 그녀의 시선은 현실 사회에 대한 과제를 인식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본고에서는 나혜석이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녀의 언론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가 시대의 연구자가 되려고 했던 그녀의 진면목을 아는데 밑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II. 합리적 사고와 ‘경제’에 대한 시점

나혜석은 유학시절에 삼지 『학자광』에 “조선 여자도 사람이 될 욕심”, “배운 학문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는 욕심, 즉 조선화시킬 욕심”, “활동하는 욕심”을 가져야 한다고 선언한다.⁴⁾ 그 후 나혜석은 회화의 문필분야에서 정력적으로 활동한다. 1920년 김우영과 결혼한 후 그녀는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나혜석이 신혼생활을 시작한 무렵부터 일본이나 조선에서는 생활의 합리화와 과학화를 표방하는 생활개량이 널리 주장되고 있었다. 그 시기의 나혜석의 발언도 그것과 호응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사의 절감에 대해서는 나혜석이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언급하였으며, 그 대용도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

한 뭉 옷감을 이질 먹고 안지서 서너 뽕고까지 맘을 흘너가며 치운 때로 손등이
바위에 티져서 피가 줄줄 흐르는 것을 무릅쓰고 질펀이 한지서 두더리는 동안
에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아랫과 -가을 虛費하는 것은 너무나 無算한 일

3) “제가 한두트 습자가 무어신지 알아야겠소. 새우 龍蝦 사랑이요, 蟹蟹사랑이 아니라 蟹蟹를 食할 食料 蟹蟹가 아니요.” 『龍蝦-식민지에서 蟹蟹』 『유지』 1917.9 『경향 나혜석 회집』 p.223 이하 참고하여 『장길』 44호 중.

4) 『유지』 p.223 ~ 224

이 아닐까 합니다. (중략) 바지, 치마 저고리, 두루마리는 다듬지 아니하여도 조흔
만한 洋服 등 옷감을 採用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조흔 듯 싶습니다. (일부 현대적
기.이하 생략)

조선에서 생활개량운동으로 초점이 된 것 가운데 하나가 색의(色衣) 착용의 장려였다. 색의
착용운동은 위생면 등을 이유로 색의를 착용할 것을 강조한 지배자의 규제와 민중의 상징색
인 백색을 고수하려는 피지배자의 저항이라는 구도로 언급되는 일이 많다. 1921년에 나혜석은
“白色이란 太陽의 七色 中에 除外된 色임으로 色 中에 第一 찬 것”이라서 추울 때나 어두울
때 입으면 마치 드레커처럼 보여 소름이 끼친다. “눈에 익은 우리에게 이러하거던況 처음 보
는 外國人에게야 얼마나 冷靜하게 보이고 얼마나 悲觀스럽게 보이리까?”라며 백의 착용에 대
해서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글에는 합리적인 사고와 미술전문자인 긍지를 헤아릴 수 있다. 다
음으로 검정을 기조로 한 학교 제복에 관해서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普通學校에서는 校服을 全廢해야 할 수 있는대로 上下衣 黑色을 입히는 것보다
由來 華麗的 兒童 服色으로 靑, 黃, 綠의 色으로 입히도록 하는 것이 보기에 더 아
름다울 뿐 아니라 또들에게 色에 대한 知識과 感覺을 養育하는 데 큰 關係가 있
을 듯합니다. 물론 日本 衣服과 맞치 알뜰알뜰한 色을 取하자고는 아니 합니다.
그러나 치마 갖은 것은 黑色 바탕에 靑色이나 藍色의 間々 줄을 넣은 것으로나
또는 白色 바탕에 粉紅이나 藍色줄이 있는 것 등 갖은 것으로 하여 입으면 키
도 커보일 것 같고 보기도 조흔 것 같습니다. 이렇게 色의 研究가 進히 나 가리
며 同時에 色의 流行이 자조 잇기를 企圖하는 바이외다.”

합리적인 사고는 ‘경제’에 대한 언급에도 확인을 할 수 있다.

5) 羅憲錫 「婦人衣服改良問題—金元問兄의 意見에 對하여」, 『東亞日報』, 1921.9.29

6) 同上 『東亞日報』, 1925.9.30

7) 同上

出來 朝鮮社會에서는 個人이 奢侈하면 個人이 亡하고 國家가 奢侈하면 國家가 亡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奢侈에 對한 觀念은 이와 다릅니다. 個人과 國家가 極端히 奢侈하는 同時에 個人과 國家는 興하고 盛하니 그 個人과 國家의 盛衰는 그 多少 增進한 소이옵시다. 여기서 則 우리의 提倡하는 바 오히려 國家입니다.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임).¹⁰⁾

한즉 지금 생활에 먼저 손 자가 되려든지 또 용감한 자가 되려면 지금 사람들이 창조한 문명한 물질문명을 괴로 삼는 결실적 생활이 아니면 아니 되는 것일 줄 압니다. (중략) 우리는 우리 생활의 중요한 물질문명에 괴로 삼을 만한 아드 괴란 미 없고 병침이 없으니 따라서 생산력이 없고 로동력이 아니 남니다. (중략) 생산 품과 소비력이 갖터야 비로소 우리 생활은 안착을 얻을 수 잇는 것입니다. (밑줄은 필자에 의한 것임).¹¹⁾

상기의 인용은 1920년대 나혜석이 쓴 문장이다. “勞働力” “生産力” “消費力”라는 경제용어가 군데군데 보인다. 이러한 용어가 정확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는지는 제쳐두고, 전후의 의미를 연결해서 나혜석이 말하고 싶었던 것을 짐작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이나 국가는 사치를 지향하는 편이 좋다. 그래야 산업이 일어나고 풍족하게 된다. 풍족한 물질적 기초를 토대로 오늘에 걸맞은 진정한 문명이 건설되고 생활의 유복함이 늘어날 것이다. 이상경 씨는 이 부분에 관해서 사치하는 게 좋다 라고 주장한 것은 사치를 자유로이 누릴 수 있는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가 없는 부분에서 나혜석의 계급적 한계를 읽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²⁾ 그러나 나혜석은 동시에 한 가칭 안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수입에 따라 절약해서 살자고 호소하고 있다.¹³⁾ 사치를 누리자는 주장은 국가의

10) 李海石 「東洋日報」 1921. 10. 1

11) 李海石 「생활 개혁에 대한 내지의 부르짖음」 『東洋日報』 1920. 1. 28 1. 30

12) 이상경 「나는 인간으로 살고 싶다」 한양사, 2009, p.256

13) 李海石 「생활 개혁에 대한 내지의 부르짖음」 『東洋日報』 1920. 1. 31

경제 규모를 크게 하자 라는 의도로 나온 발언이다. 근대 산업 발흥기에는 소비와 생산을 개척해서 증대시켜가는 것이 국가의 경제발전과 연결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한 다음의 과정은 공평한 분배의 확보이며 이것은 정치의 영원한 목표일 것이다.

나혜석의 주장을 좀 더 살펴보겠다. 그녀는 “사치하자”라는 내용을 쓴 이후 고향의 어느 아는 집을 찾아간 경험에 대해서도 적고 있다.¹²⁾ 매우 궁핍한 살림살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의 스물 두세 살이 되는 건강한 아들은 그냥 누워 있다. 어째서 지게를 짓고 나가서 나무를 아니 하느냐고 물어보면 창피스러워 그런 일 할 수 없다고 한다. 그의 어머니에게 “저놈을 왜 옷을 입히고 죽을 먹이오”하고 물어보면 “다 팔자 소관인 것”이라고 말한다. 검소라는 도덕이나 해면 그리고 말자라는 세념에 속박당하고 움푹달랴 못하는 상태에 있는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나혜석은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제창하고 있는 것이다.

머리말에서 지적하였듯이, 조선의 신여성들은 자칫하면 “개인의 확립” “개성존중” “자유연애” 등 개인적인 영역에 대한 새로움을 강조해서 주장하는 글들이 많았다. 그러나 1920년대의 나혜석의 발언은 사회나 국가에 관한 것들도 두드러진다.

나혜석에게 중요로워야 하는 “국가”는 물론 조선이다. 1927년 동아일보에 실린 「京城은 悲觀一片」은 그것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오래간만의 서울의 모습을 본 그녀는 이렇게 쓰고 있다.

길거리에 나가보면 천보다 사람 만하진 것 갖고 그 중에도 트레머리가 만하느
른 것 같으며 만히 사치스러워진 것 갖다. 더욱이 트레머리들의 입은 옷은 물론
걸려는 어대도 갖는지 일본 용건으로 만히 입게 된 것이 볼 때마다 지나쳐 볼 수
없게 된다. 그렇게 저고리 치마의 색채에 대하여 소화되게 입어서 정말 모양낼
줄을 알아지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심해가고 경제에 힘은 점점
쇠퇴하여 가니 슬픈 일이다.¹³⁾

[12] 同上『夢遊日記』1926.1.29

[13] 鄭重編『京城은 悲觀一片』『東亞日報』1927.5.27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대 “일상품품은 우리 토산품” 등을 표어로 시작된 만족산업육성 운동이다. 인도의 스와대사를 연상시키는 이 운동은 일본제품을 배척하고 조선산 물품을 애용해서 조선의 산업자본을 키우자는 운동으로서, 나혜석의 오빠 나경석도 이사를 맡는 등 중심 멤버 중 한 명이 있었다. 나혜석도 조선산 물품의 소비증가에 의한 조선 “경제력”의 발전에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물산장려운동은 오래 계속되지 못했다. 일본측의 압력이나 조직내부의 분열도 있었지만 특히 격렬했던 것은 사회주의자들의 반대였다. 당시의 대표적인 반론인 이성태의 논설 “물산장려운동은 중산 계급의 이기적 운동이다”¹¹⁾는 오늘날의 한국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교과화 생들의 생각하는 자료로서 재방되고 있다.¹²⁾ 1924년 나경석은 운동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¹³⁾ 3년 후 나혜석은 京城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들의 모습에서 일본산 물품들을 많이 보고 “물산장려는 어째로 짓는지” “경제에 힘은 점점 쇠퇴하여 가니 슬픈 일이다”라고 한탄하기에 이른다.

나혜석이 민족의 경제적인 발전을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외교관의 아내라는 입장으로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혼 후 발표한 구미시찰기 중에서 그녀는 안동시찰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在滿期間에 經濟發展은 오직 金鐵兩端에 依て하난 境地로 安東에 朝鮮人 金鐵界 設立한 後 以來 安東在日 朝鮮人 金鐵界의 中心機關이 되어있어 그 前途가 靑々히져 우리 눈에 보일 때에 無愧이 言할 事이다.¹⁴⁾

웃글은 안동 부영사의 아내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일 것이다. 현실사회의 경제 실상을 직접 눈으로 본 그녀는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후도 그녀에게 고국 조선의 “경제적인 발전”은 시대의 과제로서 의식되었다. 만주리에 이르는 여정에서 만일

11) 이성태 「물산장려운동은 중산계급의 이기적 운동이다」, 『東亞日報』, 1922.1.20

12) 『고등학교 한국사』, 삼파출판사, 2011 p.244

13) 趙秉世 『日帝時代 我々家族』, 大正十三年版, 2003 p.28

14) 趙秉世 『오미에 歸來後』, 『一々集』, 1922.12 (『정집』, p.22)

한 광야를 참 너머로 보면서 “쓰고 남은 땅이거든 우리나라 주었스면”⁸⁹⁾라고 감상을 말한다. 외국
인 관광객으로 활기한 스위스에서 “우리 나라에도 江原道 一帯를 世界的 避暑地를 만들 必要
가 切實히 있다”⁹⁰⁾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자아 발전이라는 개인적인 영역에 머물지 않고 “산업
을 일으켜서 조선의 경제발전으로”라는 근대적인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지식인의 사유
가 있다.

Ⅲ. 개인의 풍요로움에 대한 갈구

나혜석이 살아온 시대는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시대였다. 강한 자가 빼앗고 약한 자는 빼앗
긴다. 런던시가지의 별다른 것도 없는 풍경 속에서도 나혜석은 그러한 원리를 보고 있었다.

市街는 各々 그 階級을 따라 商業 中心部, 政治 中心部, 工業 或 藝業, 또는 富貴
或 貧賤의 中心部로 區別해 있다. 道路는 全部 캐나다에서 가져온 土木으로 깔
고 市內에는 電車가 있고 市外에는 잇스며 二層樓는 無數히 往來하고 地下鐵
道도 있다. 市民 七百萬名 住宅은 모두 別庄式 이요 廻廊은 길이 없다. 殖民地
에서 빼서 온 것으로 市街地 施設이 모두 豊富하다.”⁹¹⁾

“全部 캐나다에서 가져온” “殖民地에서 빼서 온 것으로(중략)모다豊富하다”라고 말하면
나혜석의 뇌리에 조선과 일본의 모습이 없었을 리는 없을 것이다. 강하다·약하다 라는 관계
성은 남성·여성의 관계에 있어도 적용된다. 나혜석은 “강자요, 우습자요, 부자인 남자” “약자
요, 열패자요 가난한 자인 여자”라고 일단 규정한다.⁹²⁾ 그리고 “남자는 남우 자기 임신맛게 모
르는 국도의 리기적”이고 “여자는 남우 다른 사람만 위하여 사는 국도의 희생적”인 삶을 하고

89) 同前 p.577

90) 羅憲鎬 「伯林과 巴黎」, 『三千里』 1935.5 (『全集』 p.390)

91) 羅憲鎬 「柏林에서 倫敦까지」, 『三千里』 1935.9 (『全集』 pp.607~608)

92) 연세사 『불행 계명에 대한 나혜석의 무모치한』, 『東亞日報』 1935.1.28

있다. 그것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누리는 방법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키워드는 “취미”이다.

우리에게는 취미심이 매우 박약했습니다. 취미란 것은 (중략) 불길책을 떠나고 청신책을 떠나 일종의 신비제로 드러가라는 것으로 행언할 못할 쾌감을 늦기게 하는 것입니다. (중략) 우리는 장차, 살기 위하여 사는 거시 되지 말고 사는 그 거시 유쾌하도록 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야 우리가 남편의 옷과 자식의 웃음 리움 때 금치 못하는 지미가 생겨야 하겠고 남편이 비를 들어 마당을 쓸거나 어린애를 안아 줄 때나 독서를 들어 장작을 때도래도 이는 그 취미에서 오는 쾌락입니다.”

“신비제를 드러가라는 것”이나 “사는 그거시 유쾌하도록 사라가야 할 것”이라는 부분 등에서는 소설 「경희」에서 경희가 아궁이 속에서 밀짚이 타는 모습과, 피아노 음률을 연상하거나 다락 박창의 창소도 전체적인 질서나 색의 조화를 생각하면서 즐기거나 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방불케 한다.

‘취미’는 지발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 국가나 도덕에 규정되지 않고 학야의 발전의 연장선 상에서 나혜석은 ‘취미’의 정신이 발휘되는 생활을 생각하고 있었다. 공적인 ‘조선의 경제적 발전’에 의한 ‘물질문명’의 확보와 ‘자아의 발전’에 의한 ‘정신문명’의 확보, 이러한 양면을 그녀는 그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취미성’이나 ‘정신문명’라는 언어로 표현하는 그녀의 사회관을 좀 더 살펴보겠다. 유학시절에 나혜석이 분장 「마살치 부인」에 이름이 들어 있는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는 그와 비슷한 표현으로서 ‘문화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세계대전 후의 1919년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담아 아키코는 “진원류의 개조”를 위해서는 “자아발전주의”탄으로는 충분치

22) 101.1.1925.1.27

23) 101.1.1925.1.29

24) 1919년 『문화주의』 「문예」 101.1

못하며 “문화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화란 “인간이 자발적 창조적이며 의미가 있는 노력의 결과로서 만들어낸 사상(事象)의 전체”이며, “인간은 문화적 가치실현의 생활에 잠가져서 완전한 자연인의 영역을 벗어날 때 비로소 인격자라고 말할 수 있다.”²⁵⁾고 아키코는 말한다.

나혜석이 지향하는 취미성을 가진 중요한 삶은, 위에서 밝힌 아키코의 생각과 통하고 있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자아를 오직 관현시키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오직 자기의 부귀를 누리는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닌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중요로움 위에 구축되는 정신적인 중요로움에 채워진 세계, 그것은 개인 영역을 넘어 사회의 실태를 확인시키는 것이었을 것이다. 아키코가 “자발적 창조적”등으로 표현한 것을, 젊은 나혜석은 “지금까지의 모든 거시 파동대이요 의무 채김으로 하는 것이라도 전혀 자동적 행동으로 일진해야됩니다” “취미성의 싹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인간성은 권(威) 선(善) 미(美) 애(愛)로 숙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²⁶⁾ 등으로 말하고 있다.

나혜석은 현실사회 속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나 정치적 권리 획득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조금도 남녀 평등이나 자유를 추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며, 강한 남자가 약한 여자를 애호하는 것이 평화에의 길이라고 주장한다.²⁷⁾ 그녀는 실제로 있는 성 규범을 근본적으로 뒤집으려고 기도하지 않는다. 성 규범을 일반론으로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화가로서 예술의 길을 택하려고 한다. 그것이 자아의 말전으로부터 얻을 “개인” 영역의 충실이 있고 고등교육을 받은 그녀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공”적인 세계에 통하는 길이 있던 것이었다. 그녀가 재산 분여나 친권에 있어서 여성이 얼마나 경제·사회적으로 권리가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가를 자신의 체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이혼한 후의 일이다.

25) 坪田野呂子 「婦人改造の基礎的考察」 『運動の中を行く』 1919 『坪田野呂子全集』 第10巻 文芸部 p.229

26) 同前 p.232

27) 同前 「성행 계몽에 대한 나의 무르익음」 『東洋日報』 1925.1.29

28) 同前 『東洋日報』 1925.1.27

IV. “조선”과 “파리”를 둘러싼 갈등과 균열

나혜석은 1930년 법적인 이혼을 한다. 구미사찰에서 돌아온 지 2년반 남짓 지나서 그녀는 30대 중반이 되어 있었다. 세기는 스스로 초래한 일이었지만, 자신의 의지와 다른 이혼이었다. 1930년 잡지 『大潮』에 실린 수필 「파리에서 본 것 늦긴 것」과 「젊은夫婦」에는 나혜석의 흔들린 심정이 투영되고 있다. 전자는 파리에서 만난 조금도 사교성이 없는 편벽한 학자를 주의 사람들은 싫은 사람이라고 비판하지만, 자기는 오히려 존경하였다고 이야기한다.

피톤츠 비어술과 갓바, 바다술은 한 동이 두 동이잖 러넨대야 바다와 불예난 마
두 離함이 없을 것이다. 러넨 그 자리는 퍼내기가 무섭게 패워 있다. 그러므로
학자를 만히 가질수록 똑똑치 못하게 된다. 勇氣를 잃는다. 疑心을 품는다. 더군
나 時代를 創作하려고 說頭하는 藝術家의 生카라.”⁵⁸⁾

해상에는 파문세계와 창작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을 소중히 다루는데, “모든 創作은 똑똑지 못한 흐릿한 가운데서 나온다. 順境보다 逆境에서 나온다. 苦痛 煩惱 苦에서 나온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 研究로 精進이 一에 集中하고 보면 사람이 自然 偏狹해 지고 더그러워지지 못 하난 거시 常例이다.”라고 그에 대한 생각을 피력한다.

「젊은夫婦」는 서클릭에서 우연히 본 금실 좋은 부부에 대해 쓴 것이다.

이 모-든 世上 人間 事物 凡事 하필 그 男子 그 女子가 맞나 서로 사랑하고 악기
고 달내주난 한 얼마나 아팠답고 조곤지실가 (중략) 그들은 고뇌없이 속살거리
秘密이 엮고 울 때 갖치 울며 우슬 때 갖치 웃고 어려운 때 서로 도모며 고통위
하난 것을 보면 내 몸과 갖치 일하하여 그의 말은 은연 中 다 뜻게 되고 그가 일
스면 成果하기 어려오며 그는 모-든 일에 秘着이므로, 그는 모-든 일에 秘着한
이다. 이 얼마나 아팠답고 희한 거시라(후략).”⁵⁹⁾

58) 「파리에서 본 것 늦긴 것」, 『大潮』 1930.7 (『한글학』 29호)

59) 無題題 「젊은夫婦」, 『大潮』 1930.9 (『한글학』 p.333)

상기의 문장은 그녀의 부부 사이가 결정적으로 파탄이 나고 이혼 위기가 높아졌을 시기에 제작된 글이다. 이 글에서 비참직한 모습에서 벗어난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켜 생활 태도를 되새겨 음미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이 무렵부터 나혜석의 언론활동의 방향성은 개인 내면의 문제가 많아진다.

구미에서 귀국한 후 나혜석은 사덕이 있는 동례에서 많은 친척들과 함께 담담한 생활을 해 나가던 가운데 파리를 그리워하면서도 조선 농촌의 생활에 정이 들어야 한다는 생각도 강했다. 그 이유는 자기 수양 때문이었다.

巴里나 朝鮮地方이 그 人情이나 自然스러운 態度가 一致된 點이 많다고 다만 前者는 文明이 極度에達한 社交術이요, 後者는 未開한 原始的인 素인 뿐이다. 그 점으로 前者보다 後者에 드듯한 맛이 더 잇서 보인다. 識者들으로 조금 아난 것을 잘 消化 못 식힌 나는 漸々 偏性으로 다라난다. 이런 缺點이 보일 때마다 늘 反省하난 同時에 後者의게 더욱 親近한 맛을 갖기게 되난 것이요, 또 한 가지난 잊지하면 나와 남 사이에 平和하게 실어볼가 하난 것이었다. 巴里人의 社交心이 든 지 朝鮮農村의 原始心이 그 要點은 克己다. 사람이 다 各々 個性이 잇난 以上 我만 세울 수 업난 것이다. 더욱이 地方夫人들의 克己心 卽 婦德이며 만흔 權威사이에 融和해기난 培養은 修養上 만드시 한번은 보아들 必要가 잇난 것을 切實히 느낀다.³¹⁾

내가 지금까지 朝鮮大家의 生活을 떠나, 別天地에서 살았든 저서 다시 朝鮮人의 生活로 드러슬나면 農村生活의 程度로부터 살아볼 必要가 切實히 잇었다. 내게 農村生活가 얼마나 必要하였섯난지,³²⁾

예술에 흠뻑 빠질 수 있었던 별천지와 “歐米보다 二三世紀뒤진 朝鮮農村”의 차이, 나혜석은

31) 羅應鶴 「아아 白山의 巴里가 그리워」 『三千里』 1932.1 (『선정』 pp.436~437) 329頁, p.440

“다시 커튼에 드리운 感이 생긴다.”라고까지 말한다.³⁴⁾ 그녀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지방농촌에 체재하면서 그곳 생활에 친숙해지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女人 獨居記」나 「寓 話 叢石亭(寓話)」에 자세히 그려져 있다.

외진 산촌이나 어촌에 몸을 두고 그림을 그리면서 마을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자신이 친숙 해져 살 수 있었는지를 “村사람들은 내가 사람 조타고 저너 머은 후에 어런 것을 얻고 몽과증 과 내 방 문압해 모혀들고 主人 바누라는 옥수수며 감자며 수수이삭이며 파루며 버섯을 주어서 굶의굶의 끼여 먹이려고 애를 일하다가 한참식 내 방에 와 브러누어 수수겨가를 하고 못고 나간다”³⁵⁾ 라고 쓰고 있다. 이런 생활은 남자가 방문하는 일도 없이 늘 부지런히 글을 쓰며 생활하고, 마을의 아이들을 보살피 주거나 걸레질이나 다리미질, 빨래도 함께 하며 그들의 신문을 얻어서 만들어진 성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려한 부분도 역시 「경희」를 연상시킨다. 유학에서 일시 귀국 중이던 경희는 집에서 어머인 지월의 신뢰를 얻어 즐겁게 생활하며, 바느질이나 빨래 등의 가사도 마다하지 않고 일한다. 경희는 소설 속에서 어렵지 않게 당연히 그런 일들을 완수한다. 경희는 자기의 ‘새로움’을 주위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해내며 근대적인 ‘지(知)’의 우위성으로써 사람들을 감복시킬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女人 獨居記」에 나타난 현실 속 나혜석은 주위 사람들과 마찰을 피하는데 신경을 쓴다. 그러한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寓話 叢石亭(寓話)」에서는 외로운 생활 속에서 말벗이 될 여성을 드디어 만났다 라는 회상을 그리게 된다.

“참조설”이 있는 자유의 파리와 자신의 본래의 자리여야 할 조선, 양쪽에 대한 감정은 그녀 속에서 커다란 균열을 만들어간다. 「離婚告發狀」 「離婚告發書」의 발표와 정조유린소송 때문에 세간와의 알력이 심해진 후 발표한 「新生活에 들면서」에는 “바쁘로 가자” “살너 가지 말고 죽으로 가자” “너는 빈빈 가 주으란다” 라고 절망적으로 말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한 사람의 인생이 되기에는 朝鮮의 惡運을 만히 입었다. 나는 반드시 報恩을 使命이 있어서 한 자식다. 教育界로 文學界로 新聞界로 言論界로 文藝界로 科學界로

34) 同上 p.430

35) 寓話叢「女人 獨居記」, 『나혜석의 삶과 글』, p.230

로 人物을 기다리는 이 때가 아닌가 무어든 하나 朝鮮을 위하여 補助치 못하고 어대로 간다는 것을 넘어 利己的이 아닌가.”

조선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던 지식인으로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흔들리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산업계나 상업계 등 자신과 관계없는 분야까지 언급할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경제적인 발전 위에 문화적 발전으로”를 생각하고 있었던 나혜석의 시대관이나 사회관을 실면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대체로 나혜석의 문필은 바람직한 사회에 관해서 말하는 것보다 오직 “개인”의 사정을 말하는 것으로 수렴 되어 간다. 젊었을 때의 추억 「연필로 쓴 편지」, 「날려간 靑鳥」 연애와 결혼문제, 막대한 심정을 토로한 「新生活에 들면서」, 새로운 남녀관계를 모색한 「異性間의 友情論」-마음다운 男妹의 記, 「獨身女性의 自辯論」 등 그것이다. 이러한 글들에는 “공허”인 세상에 대한 주장은 후회하고 주로 자신의 고독감이나 허무감을 담고 있다.

V. 맺은말

1932년, 잡지(三千里)에 실린 나혜석의 미술전에 대한 비평문장은 아름답다.

大膽的이고도 男性적이고 積極적인 世界 어느나라에서도 볼수없는 자랑할만한 確實하고 快活하고 清明 하게 무늬를감을 독 뿌린듯한 朝鮮의 六月의 하늘은 中間 이리저리 流浪生活을 하든 我에게는 雲없는 자릿자릿함을 늦기게되었다.”

고국 조선에 대한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유유히 푸른 하늘에 투영되어 인간관계 속에서 생긴 원망이나 한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녹이려 하는 것 같다.

39) 羅憲鎧 「新生活에 들면서」, 『三千里』 1935.2 (7월호), p.488

39) 羅憲鎧 「獨身女性自辯論」, 『三千里』 1935.7 (7월호), p.127

나혜석의 “애국”은 “우국”을 동반한다. 인습이나 도덕, 제법 등에 묶인 뒤집 초선을 어떻게 뚫을지 갈 수 있을까? 언론활동을 시작한 무렵의 나혜석은 합리적 사고를 기초로 한 경제의 시점에서 조선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하고 있었다. 조선의 산업발전에 의한 풍요로움의 확보, 그것에 의한 물질문명의 향수와 정신문명의 향수, 구체적으로 개인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취미성”의 욕망이다. 그야말로 “민족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서 부임하고 있었다.

그러나 비약적인 계기가 되어야 할 구미사상에서 귀국하고 이혼한 후에는 사회에 대한 발언이 제한적이며 단선적으로는 전환되지 못 했다. 자기자신도 서양을 지향하는 한편 조선 안에 어떻게 자기 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까 라는 정신적인 균열 양상을 보인다. 그러던 가운데 그녀가 뒤늦은 전략적인 대응이 없는 오직 자신을 주장하는 것으로 하우게 된다. 그녀의 문필은 희생을 배의 이상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어긋나가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치열해가는데를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

羅蕙錫の社会意識と 言論の方向性

浦川 登久恵

- I. はじめに
- II. 合理的思考と「経済」への視点
- III. 個人における豊かさの希求
- IV. 「朝鮮」と「巴里」をめぐる葛藤と亀裂
- V. 終わりに

I. はじめに

近年、羅蕙錫に対する関心は高まったが、その一方で新女性は「民族の問題を自分の問題と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¹⁾ 存在であり、自我の発見のみを強調し、「その具体的な内容は、自由恋愛による結婚と新貞操論が中心」²⁾ というような評価も根強

1) 三浦広太郎訳『躍動する韓国の歴史(民間版代案韓国歴史教科書)』明石書店、2004年、p. 435

2) 趙喜貞『韓国社会とジェンダー』法政大学出版局、2000年p. 59

い。事実、羅惠錫の言論については、これまで女性の問題に特化した、母性観そのものやクチュアリティーに焦点をあてて考察されたものが多かった。だが、文章を発表し始めた頃の羅惠錫は、「朝鮮の女」を自己規定として出発している。⁸ その後の彼女の言論には、「女」とともに「朝鮮」がつねに意識の中にあり、その視線は現実の社会の課題への直視につながっていた。筆者は、この論文において、羅惠錫が、広く「社会」についてどういう視座をもっていたかを中心に、彼女の言論がどう変化していったかについて考察を進めることにする。それが、時代の先駆者であろうとしていた彼女の真面目に迫る一助になるのでは、と考えるからである。

Ⅱ. 合理的思考と「経済」への視点

留学時代に雑誌『學之光』において、「朝鮮の女も人となる欲」、「學んだ學問を自分の所有、すなわち朝鮮化させる欲」、「行動する欲」ともどう、と宣言した。⁹ その後、羅惠錫は、絵画において、文筆において、精力的に「行動」していく。1920年に金雨英と結婚してから、さらにその行動には拍車がかかる。

ところで、羅惠錫が結婚生活を始めた頃から、日本や植民地朝鮮において、生活の合理化・科学化を標榜する生活改良が叫ばれるようになっていた。この頃の羅惠錫の発言も、それと呼応するものがある。そのうちのひとつ、家事の軽減は、彼女が何度も繰り返し言及していることであり、具体性がある。

一番の理想を、朝ご飯を食べて座り夕ご飯を食べるまで、汗を流しながら辛いときは手の甲が裂けて血がたらたらと流れるのも厭わずべからうと

⁸ 『私は女です』、女が持つべき徳を知らなくば、私は朝鮮人です。朝鮮人がどうして女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それは、羅惠錫「結婚—女としての—」『學之光』(1917年9月)『羅惠錫全集』(全3冊) 3冊、本稿では2巻と記す。

⁹ 同前『全集』p. 204—205

「すわりこんで砵を打つ間に、一度過ぎれば二度と帰ってこない時間と人生を浪費するのは、あまりに残酷なこと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中略) バジ、チマ、チョゴリ、ツルマギは儲うちをしなくてもいいくらいの洋服などの生地を採用するのがとてもいいことだと思います。」

また、生活改良運動の中で、朝鮮においてひとつの焦点になったのは「色衣」着用の奨励であった。衛生などを旗印とした統治者側の統制と、民族の象徴色である白を固守しようとする植民地側の抵抗という図式で語られることが多い色衣奨励運動だが、1921年の時点で羅憲錫は、「白色というものは太陽の七色から除外された色で、色としてもいちばん冷たいもの」なので、寒い時、薄暗いときに着るとまるで「おぼけ」のようで「鳥肌が立つ」、「見慣れた私たちでさえこうなのですから、初めて見た外国人にはどれほど冷ややかに見え、どれほど悲哀を帯びて見えるでしょう」と、白色の着衣について否定的だ。そこには、合理的な思考と、美術専攻者であるという矜持が見える。また、黒を基調とした学校の制服についてもこう言及する。

「普通学校では校服を全廃し、上下黒色を着るより、できる限り朝鮮の子供の服の色である青、黄、赤、緑の色を着るようにするのが見た目にも美しいし、子供にとっても色に対する知識や感覚を養うのにいいと思います。もちろん、日本の衣服のようにぼんやりとした色を選んではいけません。しかし、チマのようなものは黒色を土台にして緑色や藍色の襷を入れた生地や、あるいは白色を土台にしてピンクや藍色の襷があるものなどを着れば背も高く見え、見た目もいいようです。こうした色の研究が早く日に日に広まって、同時に色の流行がしばしばおこればいいのと思うのです。」

『羅憲錫』『韓人文化文庫』第一巻『羅憲錫の書信について』『美術月刊』1921年10月30日

『羅憲錫』『韓人文化文庫』第一巻『羅憲錫の書信について』

『羅憲錫』

合理的な思考は、「経済」への言及でも確認できる。

もともと、朝鮮の社会では、個人が贅沢をすれば個人が減じ、国家が贅沢をすれば国家が減じてきました。しかし、今後私たちの贅沢に関する概念はこれと違います。個人と国家が思うまま極端に贅沢をすると同時に、個人と国家は栄え、その個人と国家の労働率はそれだけ増進するのです。これが、私たちの渴望する文明国家です。(下線は筆者による)⁹⁾

今の生活においてまず先に立つ者のなろうとか、また、勇敢な者になろうとすれば、今の人たちが創造した潤沢な物質文明を基礎とした精神的な生活がなければならぬだろうと思います。(中略) 生産率と消費力が同じとなって初めて私たちの生活は安着を得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下線は筆者による)¹⁰⁾

いずれも、1920年代の羅憲錫の文章である。「労働率」、「生産率」、「消費力」といった経済の用語が散見される。これが正確な意味で使われているかはともかくとして、前後の意味をつなぎあわせて羅憲錫の言わんとしていることを考えると、次のようになる。個人や国家は贅沢を志向する方がよい、その方が産業が栄え、豊かになる。豊かな物質的基礎の上に今日にふさわしい真の文明が築かれ、生活の豊かさは増すであろう、と。李相瓊氏は、この部分について贅沢をしたほうがよい、というのはそうできる自分の立場から出た言辞であって、贅沢をできない人々への配慮がなく、羅憲錫の階級的眼界を読み取るすることができる、とまとめている。¹¹⁾ だが、羅憲錫は同時に、一家庭の中では予算をたて収入に応じて節約して暮らそう、と訴えて

9) 同上『東亞日報』1921年10月1日。

10) 羅憲錫『70歳記念に於ける私の自傳』1925年1月30日、1月30日。

11) 李相瓊氏はこのように述べている(2000年、p.22)。

いる。¹¹⁾ 贅沢をしよう、は国の経済規模を大きくしよう、という脈絡から出た発言である。近代の産業勃興期に、消費と生産を開拓し増大させていくことが国家経済の発展成長につながることは明かだ。その上で次の問題は分配の公平性の確保だが、これは政治の永遠の課題である。

羅憲錫の主張をもう少し追いかけてみよう。彼女はこのとき、故郷のある家を実際に訪ねてみたことを記している。¹²⁾ 非常に悲惨な貧しい暮らし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22、3の息子は白い手をして寝そべっている。なぜチゲを背負って木を切っていないのか、と聞くと、「そんな恥ずかしいことができますか」と言う。母親に、どうしてこんな状態を放っておくのかと聞くと、「みな、運命なんです」と答える。質朴であれ、という道徳や、体面や体裁、運命という諦念に縛られ絡め取られて身動きがとれない状態にある同時代の人々に対して、彼女は新しい生き方を、と提唱するのである。

「はじめに」でも触れたように、朝鮮における新女性は、ともすれば「個の確立」「個性尊重」「自由恋愛」など、個人の領域においての新しさの主張が強調される面が多かった。が、この時期の羅憲錫の発言は、社会や国家に関するものも目立つ。

彼女にとって、豊かであるべき「国家」は、もちろん朝鮮のことである。1927年に東亜日報に寄せた「京城へ来た感型一片」は、そのことをはっきりと伝えている。久しぶりのぶりのソウルの様子を彼女はこう書くのである。

道に出てみれば前より人が多くなっているようで、その中でも髪を後ろに束ねた姿が増えてようであり、贅沢さが増しているように思う。さらに、束ね髪の人々が着ている服は、物産奨励はどこに行ったのか、日本のものを多く着るようになってるのが、見るたびにやり過ごす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ところで、チマチョゴリの色彩については本当におし

11) 前掲『生活改善に対する女子の叫び』『東亜日報』1月30日

12) 同上『東亜日報』1928年1月30日

やれになった傾向が見える。しかし、心はだんだん高まり経済の力はだんだん衰退していくのは悲しいことだ。」¹²⁾

物産奨励運動は、1920年代に「われらの暮らしは土産品で」をスローガンに掲げ始められた民族産業育成運動である。インドにおけるスワデシを想起させるこの運動は、日本商品を排斥し、朝鮮産の物品を受用することで朝鮮の産業と資本を育てていこうというもので、羅憲錫の兄、羅景錫も理事を務めるなど、中心メンバーの一人だった。羅憲錫も朝鮮産の消費増による朝鮮の「経済の力」の発展に期待を寄せていたことが読み取れる。

しかし、物産奨励運動は長く続かなかった。日本からの圧力や運動の内部分裂もあるが、ことに激烈だったのは社会主義者からの反対である。当時の代表的な社会主義者からの反論、李星泰の論説「物産奨励運動は中産階級の利己的運動だ」¹³⁾は、今日の韓国の高등학교教科書にも生徒に考える材料として提供されている。¹⁴⁾ 自らも社会主義に接近していた羅景錫は社会主義者からの攻撃に真っ向から反論していくが、結局、1924年8月に理事職を辞任し、実践活動から身を引いた。¹⁵⁾ (註) 羅憲錫がソウルの街を闊歩する女性たちの姿に日本産のものを多く確認して、「物産奨励はどこに行ったのか」「経済の力はだんだん衰退していく」と嘆いたのは、それから約3年後のことである。

羅憲錫が民族の経済的発展を考える、という視点を持ち得たことは、外交官の妻であったという立場も大きく作用しているだろう。離婚後に書いた欧米漫遊記の中で、羅憲錫は安東時代をこう回想している。

在満同胞の経済的な発展は、ひとえに金融機関にあるという見地で、安東に朝鮮人金融会を設立し、以来、安東在住の朝鮮人金融の中心機関と

12) 羅憲錫「はなはち高たれた心」刊『東亜日報』1929年5月27日

13) 李星泰「物産奨励運動は中産階級の利己的運動だ」『東亜日報』1925年5月25日

14) 『高麗文学の発展』サムスン出版社、2011年、244

15) 羅憲錫「日本漫遊記」我が家は、1937年出版、2001年、248

なってその前途が有望であるとみえるのは、私たちには無限の喜びである。”

安東の副領事を夫にもったという立場だからこその発言である。実社会における経済のありようを多少なりとも見聞した彼女は、実感を含めてこう書くことができたのだ。故国朝鮮の「経済的な発展」は、その後も彼女の中に時代のテーマとしてくすぶり続ける。満州里に至る旅程で茫茫たる荒野を意越しに見ながら「使って余っているあの土地を私たちにでもくれたら・・」¹⁷⁾と感想を漏らし、外国人観光客で賑わうスイスを見て、朝鮮も「江原道一体を世界的な避暑地に」¹⁸⁾できないか、と考えるのである。自我の発展という個人の領域に留まらず、産業を起こして朝鮮の経済発展を、という近代的な合理的思考に裏打ちされた知識人の思惟がそこにはあった。

Ⅲ. 個人における豊かさの希求

羅憲錫が生きた時代は、弱肉強食の帝国主義の時代だった。強いものが奪い、弱いものは奪われる。ロンドン市街地の何気ない風景の中にも、羅憲錫のその原理を見ている。

市街はそれぞれの階級により商業中心部、政治中心部、工業あるいは農業、または富者あるいは貧者の中心部に区別されている。道路は全部カナダから持ってきた木材で敷かれ、市内には電車はなく、市外に出れば二階バスは無数に往来し、地下鉄もある。市民 700 万、住宅はすべて別

17) 羅憲錫「ソビエ트露西亞」『ソフ風』1982年12月(『全集』p.072)

18) 同前 p.077

19) 羅憲錫「信林と忠烈」『二十二年』1995年11月(『全集』p.090)

荘式で、庭園のない家はない。植民地から奪ってきたもので、市街地の施設はみな豊かだ。²¹（ベルリンからロンドンへ）

「全部カナダから持ってきた」「植民地から奪ってきたもので（中略）みな豊かだ」。こう書いたとき、彼女の脳裏に朝鮮と日本の姿がなかったはずはないだろう。強い・弱い、の関係性は男性・女性の間においても適用され、「強き者、優れた者、富める者である男子」と「劣った者、貧しい者である女子」と、羅恵錫はいったん規定する。²² そして、男性は「あまりにも自分一身のことしか目にはない極度に利己的」な生き方をし、女性は「あまりに他人のことだけに生きる極度に犠牲的」な生き方をしてきたしまった、これを変えなければ、と彼女は言う。²³ 義務だからしかたなくするのはなく、生活を楽しむというあり方を目指すべきだ、と主張するのである。はぎワードは「趣味」である。

私たちは趣味性があまりに薄弱でした。（中略）趣味というものは、（中略）物質界を離れ、精神界を離れ、一種の神秘界に入っていこうとするもので、表現しがたい快感を覚えるようになるものです。（中略）私たちは、将来を生きるために生きるのではなく、生きることが愉快であるように生きなくてはなりません。私たちが夫の服や子どもの服を作るとき、禁じえない面白みがなくてはならず、人が箒を持って庭を掃いたり子供を抱いてくれたり、斧を持って薪を割っても、これはその婦人を手伝おうという義務ではなく、大丈夫たる体面を傷つけることなく、ただ趣味から出た快楽であるだけなのです。²⁴

21 羅恵錫「信林が亡くなるまで」『三千里』1922年5月、頁307～308。

22 前掲「生活改善に努める女子の生活」『東亞日報』1925年1月28日。

23 同前、1925年6月28日。

24 同前、1925年11月27日。

「神秘界に入っていこうとする」や、「生きることが愉快であるように生きる」とあるこの部分は、小説「キョンヒ」においてキョンヒが、かまどの薪が燃える様子にもピアノの音律を感じたり、納戸や棚の片付けにも全体の秩序や色の調和を考えながら楽しんだりしていると描かれていたことを彷彿とさせる。

「趣味」の内実は自発性を基調としている。国家や道徳に規定されない、自我の発展の延長線上に羅憲錫は「趣味」が生かされる生活を考えていた。公的な「朝鮮の経済的发展」による「物質文明」の確保と私的な「自我の発展」による「精神文明」の確保、この両立を彼女は描いていたのではなかったか、と筆者は考える。

「趣味性」や「精神文明」という言葉で語っている彼女の社会観をもう少し探ってみよう。留学時代、羅憲錫が「理想的夫人」³⁴⁾の中で名を挙げている与謝野晶子は、それに類することを「文化主義」という語で語っている。世界大戦後の1919年、新しい世の中への期待を込めて、晶子は「全人類の改造」のためには「自我発展主義」だけでは足りず、「文化主義」が必要である、と説くのである。文化とは、「人間が自発的、創造的、有意義の努力の結果として作り上げた事象の全體」³⁵⁾であり、「人間は文化的価値の生活に参加して、初めて完全に自然人の域を脱した人格者と云ふことが出来ます」³⁶⁾と晶子は言う。

羅憲錫が志向した趣味性をもった豊かな暮らしというものも、この晶子の思いに通じるものがあつたのではないかと筆者は考える。自我をひたすら押し通すこととは違ふ、ましてやひたすら自己の富貴を享受することを求めることとも違ふ。ある程度の物質的な豊かさの上に構築される精神的な豊かさに満たされた世界。それは、個人の領域を越えて社会のありようを見据えたものであつたはずである。晶子が「自発的、創造的」などと表現していたことを、若き羅憲錫は「今までのあらゆる被動的で義務で責任でしていたことも、全く自動的行動として一般化し、日に日に

34) 羅憲錫「理想夫人」『華之光』1914年1月号、11。

35) 与謝野晶子「個人及びその基礎的考察」『羅蘭のやうに書く』1919年、『與謝野晶子全集』第3巻、文芸堂、p.377。

36) 同前、p.386。

進んでいる」「こうした趣味性の芽が育てば育つほど、人間性は眞善美に熟練することができる」⁹⁰ などと書き残している。)

羅惠錫は、現実社会における女性の経済的自立や政治的権利の獲得を主張してはいない。「少しも男女平等であるとか自由を主張する必要がないと考えます」といい、さらに「強き者、富める者である男子が、弱き者、劣った者、貧しい者である女子を愛護する」ことが家庭の平和への道であると主張する。⁹¹ 彼女は、現にあるジェンダー規範を根本的には覆そうとは企図しない。ジェンダー規範を一般論として語りながら、自らは、画家として芸術の道を邁進しようとする。そこに自我の発展からくる「働」の領域の充実があり、高等教育を受けた彼女ならではの「公」的な世界へ通じる確かな道があるはずだった。財産分与や親権において、いかに女性が経済的社会的に無権利状態に置かれているかを彼女が身をもって知ることになるのは離婚後のことである。

IV. 「朝鮮」と「巴里」をめぐる葛藤と亀裂

1930年、羅惠錫の離婚は法的に成立する。欧米視察から帰国して2年半あまり、彼女は30代半ばになっていた。きっかけは自らが招いたことだったとはいえ、離婚が意に反したものであったことは羅惠錫が繰り返し書いていることである。この時期、1930年、雑誌「大潮」に掲載された随筆「巴里で見たこと感じたこと」と「若い夫婦」には、羅惠錫の揺れる心情が投影されている。前者では、巴里で出会った全く社交性のない偏屈そうな学者について、周囲が嫌な人として否定的に扱っていたが、自分はむしろ尊敬の念を抱いた、と書く。

⁹⁰ 羅惠錫「生活漫筆に對する余の感想」(『羅惠錫文集』第1巻、第11頁、1980年)、『羅惠錫全集』第1巻、第22頁。

學問は海の水のようだ。海の水を一回二回と汲み出しても海の水はどうともない。汲んだ方はすぐにいっぱいになってしまう。それゆえ、學があるほど賢くなれない。勇氣を失う。疑念を抱く。それはまた、次代を創しようとして没頭する芸術家の生涯であろうか。²⁸⁾

學問の世界の厳しさ、制作の厳しさを確認しつつ、世の中には賢く物分りのいい人が重宝がられるが、「すべての創作は賢くはっきりとしていない、ぼんやりとした中から生まれる。順境より逆境から生まれる。苦悩、煩悶の中から生まれる」のだから、あるひとつのことに集中しようとする「人は自然と偏狹になり寛大になれない」と、その學者に思いを馳せるのである。

「若い夫婦」は、ソウル駅で偶然見かけた若い夫婦の仲睦まじさに感銘入って書かれたものである。

この広い世界、多くの人々の中でこともあろうに一人の男と一人の女が出会い、互いに愛し、いたわり、語り合うことが、どれほど美しくいいことか。(中略) 彼らは絶えず語り合い秘密がなく、泣くときはともに泣き、笑うときはともに笑い、困難なときは互いに助け、苦しんでいるのを見れば自分の体のように痛みを感じ、相手の言葉はすべて聞くようになり、相手がいなければことをなせず、相手はすべてにおいて秘書役で、相手は全てにおいて参考書だ。どれほど美しく尊いことか。²⁹⁾

この文章は、自身の夫婦仲が決定的に破綻し、離婚の危機が限りなく高まった時期に掲載されたものである。失われてしまった、あるべき自分の姿を投影させているのだろうか。2つの文章は、いずれも対象に自己のありようを投影させ、己の生き

28) 羅漢淵「已歷て見たことと感したこと」『大淵』1980. 4. 7. 月 (『全集』) p. 291.

29) 羅漢淵「若い夫婦」『大淵』1980. 4. 9. 月. (『全集』) p. 300.

方を反駁している。この頃から羅憲錫の言論活動の方向性は、個人の内面位向かうものが多くなっていく。

欧米から帰国後の羅憲錫は、婿家の東萊で多くの親戚に囲まれながら窮屈な暮らしを続ける中で、巴里をなつかしく回想しながらも、朝鮮の農村の生活に馴染まなければ、どの思いも強かった。自己の修養のため、である。

巴里と朝鮮の地方は、その人情や自然な態度が一致することが多いと思う。ただ、前者は文明が極度に発達した社交術があり、後者は未開で原始的であることが差であるだけだ。それゆえ、前者より後者に暖かい味がある。識字憂患と言うが、今知っていることをよく消化できない私は、しだいに偏った性質になってしまう。こうした欠点が見えるたびに、いつも反省すると同時に、後者に、より親近感を感じるのである。また、ひとつは、どうすれば私と他人との間を平和に生きていけるかということだ。巴里の他人の社交性であろうが、朝鮮農民の原始性であろうが、その要点は克己である。人みな各々個性がある以上、我だけをたてることはできない。さらに、地方の婦人たちの克己心、すなわち婦徳、多くの親戚のあいだで融和していく包容性は、修養上、必ず一度は体験してみる必要があることを切実に感じる。〓

私が今まで朝鮮の大衆の生活を離れた別天地で暮らしてきて再び朝鮮の生活に戻ろうとすれば、農村の程度から生活してみる必要が切実にあった。私に、農村の生活がどれほど必要であったろう。〓

芸術に没入することのできた「別天地」と「欧米より2、3世紀遅れた朝鮮の農村」で

28) 羅憲錫「ある 自然の風景について」、『文藝』1922年・1・10 第4巻と、28-29頁、30-31頁。

の生活との落差。羅蕙錫は、「再び外国に足を踏み入れた気がした」とまで言う。³⁰⁾しかし、彼女は、絵を描くため地方の農村に滞在し、そこでの生活に馴染もうと努力もする。その様子は、「女人独居記」や「叢石亭の海辺」に書き表されている。

辺鄙な山村や漁村に身をおいて、絵を描きつつ村人の中にいかに自分が溶け込んで暮らせたか、「村の他人たちは、私の人となりがいいといって、夕食を食べた後は幼子をおぶって何やかや私の家の前に集まってくる。主人の奥さんはどうもろこしやじゃがいもやもろこしの穂や山ぶどうやキノコをくくれ、ときどき食べる気を使ってくれ、仕事をしていて私の部屋に休みにきてなぞなぞをし、ホホホと笑っていく」³¹⁾と記しているが、これは、男性が訪問してくることもなく、いつも勤勉に書物をしたりして過ごし、村の子供たちの面倒をみたり雑巾がけやアイロンがけ、洗濯も一緒にしたりすることによって信用を得られた成果だ、と説明している。この部分もまた、「キョンヒ」を連想させる。留学から一時帰国中のキョンヒは、実家で使用人シウオルの信頼を得て楽しく会話しながら暮らし、縫い物や洗濯などの家事も厭わずに楽しげにこなす。しかし、キョンヒは小説の中で何の苦もなく当然のことのようにならやりにやっていた。キョンヒは自己の「新しさ」を周囲の人間と摩擦を起こすことなく披露することができ、近代知の優位性をもって人々を感服させることができる存在であった。だが、「女人独居記」に描かれる現実の羅蕙錫は、周囲との摩擦を避け受け入れてもらおうと神経を使う。そしてそれが容易ではなかったからこそ、「叢石亭の海辺」では、孤独な暮らしの中で話し相手になる女性にようやくめぐりあった、という回想が描かれるのである。

「創造性」ある自由なバリと、自己の本来の場所であるはずの朝鮮。双方への思いは、彼女の中で大きな亀裂となっていく。「離婚告発状」「離婚告発書」の発表や、貞婦露瀾訴訟で世間との軋轢をますます増した後に発表した「新生活に入って」では、

³⁰⁾ 羅蕙錫, p. 104.

³¹⁾ 羅蕙錫, 「女人独居記」『ナカニ』1984年7月号, 増刊版, p. 100.

「巴里に行こう」「生きるためではなく死ぬために」「巴里に行って死のう」と絶望的に発したすぐあとにこう続く。

一人の人間がこれくらいになるのには朝鮮の恩恵をたくさん受けた。私は必ず報恩の使命があるのである。教育界に、産業界に、商業界に、言論界に、文芸界に、美術界に、人物を待つときではないか。何かひとつ朝鮮のためにすることを見ずどこかに行くというのはあまりに利己的ではないか。¹⁰⁰

朝鮮にとどまらねばならないか、高等教育を受けることができた知識人として、この地で何かしなければならぬのではないかと悩み揺れる自分の心情を吐露している。産業界や商業界という自身と関係のない分野までを挙げていることにも筆者は注目したい。経済的な発展の上に文化的発展を、と考えていた羅憲錫の時代観・社会観がわずかながらも察せられる部分である。

だが、総じて離婚後の羅憲錫の言論は、あるべき社会を語るより、ひたすら「個」を語ることに収斂されていく。若き頃の追憶（「鉛筆で書いた手紙」「飛んで言った青い鳥」）、迫り詰められた心情の吐露（「新生活に入って」）、新しい男女関係の模索（「異性間の友情論」「独身女性の貞操論」）などである。そこでは、「公」の世界へ向けた主張の姿勢は後退し、主に自身の孤独感や寂寥感が語られている。

¹⁰⁰ 羅憲錫「新生活に入って」『青年報』1937年2月、第10版、200。

V. 終わりに

1932年、雑誌『三千里』に載った劉南歴の批評の中の羅蕙錫の文句は美しい。

大陸的で男性的で情熱的な、世界のどの国にも見ることもできない、詠
れるだけの確実で快活で精明な、青い空の雲をさっと壊ったような朝鮮
の6月の空は、数年にわたりあちこち流浪生活をした者には限りなくび
りびりとくるものであった。⁸⁶

故国朝鮮への愛と誇りが6月の青い空に投影され、そこに、みずからの人間関係
の中で生まれた怨みや恨といった負の感情を消け込ませようとしているかのよう
である。

「愛国」は「憂国」も伴っていた。因習や道徳、体面重視などに縛られた遅れた朝
鮮をどう発展させていくか。言論活動を始めたころの羅蕙錫は、合理的思考に裏打
ちされた経済への視点をもって、朝鮮社会のあるべき姿を考えていた。朝鮮の産業
発展による豊かさの確保、それによる物質文明の享受と精神文明の享受。具体的に
個別の生活を豊かにするのは「趣味性」の育成である。まさに、「民族の問題を自分
の問題とする」ことに腐心していた。だが、飛躍の契機となるはずだった欧米漫遊か
ら帰国し離婚した後は、社会への発言が啓蒙的かつ単線的ではいなくなる。自分
自身のあり方も、西洋的なものをより志向する一方、朝鮮の中にいかに自分の場を
確保するか、精神的に亀裂の模相をみせる。そうしたなか、彼女の言論は、戦略性な
く自身をひたすら語ることに傾斜していったのである。彼女の文筆は、若き頃の理
想がいかに現実の中でずれていったか、また、それにどう抗っていったのかを、率直
さをもって認めている。

86) 羅蕙錫 / 劉南歴の批評 — 『三千里』 1932年1月（『文壇』 1932）

여 백

제5토론

「나혜석의 사회의식과 언론의 방향성」에 대한 토론문

김화영(수원과학대학교 교수)



여 백

「나혜석의 사회의식과 언론의 방향성」에 대한 토론문

김화영(수원과학대학교 교수)

우라카와 선생님의 「나혜석의 사회의식과 언론의 방향성」은 기존의 친여성의 자아발전의 문제와 섹스리얼리티를 중심으로 한 정조론이나 모성론의 연구성과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각의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여러 논문에서 나혜석의 사회인식에 대한 문제는 소소하게 다루어졌다고 봅니다. 특히 나혜석의 해외체험을 통한 모국에 대한 애정으로 인한 사고의 굴절 등의 소재들은 흥미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나혜석의 글들을 사회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재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우라카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라카와 선생님의 발표문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의견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제Ⅱ절의 합리적인 사고와 경제에 대한 시점에서, 조선의 생활개량운동과 관련된 나혜석의 언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조선에서 생활개량운동으로 초점이 된 것 가운데 하나가 색의(色人) 착용의 정리였다. 색의착용운동은 위생면 등을 이유로 색의를 착용할 것을 강조한 지배자의 규제와 민족의 갈질색인 백색을 고수하려는 피지배자의 저항이라는 구도로 언급되는 일이 많다. 1921년에 나혜석은 “흰색이란 하늘의 흰 구름과 같아 흰 색

침으로 쓴 中國 第一 淸 寢 寢 이라서 주를 때나 여두를 때 입으로 마치 도끼미처럼 브이 느낌이 끼친다, “눈에 익은 우리에게 미려하거던 況 처음 보는 外國人에 세야 위아나 冷靜하게 보이고 얼마나 뽀글스럽게 보이리까”라며 백의 착용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글에는 합리적인 사고와 미술전문자인 글자를 해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정을 거르려 한 학교 제복에 관해서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우선, 용어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1910~20년의 조선생활개선헌문등 맞는지? 생활개선헌문등이 맞는지요? 그리고 우라카와 선생님께서는 ‘색의착용운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런 단어가 실제 사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우라카와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나혜석의 주장이 색의를 착용할 것을 주장한 내용이라면, 당시의 지배자의 규제와 같은 맥락일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미지배자층의 색의착용 찬성에 대한 글들은 전혀 없었는지요? 나혜석만의 색의 착용에 대한 내용은 현대에는 당연한 해석일지는 모르나, 당시로서는 정말 색다른 해석이시라, 혁신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제3장 개인의 풍요로움에 대한 회고 부분에서 ‘조선화된 자신’이란 측면에서 두 가지 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선생님께서는 머리말에서 “글을 발표하기 시작한 시기의 나혜석은 스스로 ‘조선여자’라고 규정하고 출발하고 있다. 그 시기의 언론활동에는 ‘여자’와 함께 ‘조선’이 항상 의식 속에 있었으며 그녀의 시선은 현실 사회에 대한 과제를 직시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은, 저도 2008년도 졸고에서 지적한 내용으로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글 나혜석은 조선과 여자, 그리고 자신이 조선여자임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혜석은 ‘파리의 그녀’라는 문장에서 식민지 조선은 ‘황무지’ ‘사막’에 비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혜석이 쓰고 있다고 있는 것은 식민지화된 ‘사막 화가 되어가는 ‘조선’을 의미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간혹 나혜석의 글에서 보이는 서구=문명, 조선=사막, 황무지 이라는 도식을 선생님께서 어

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라카와 선생님께서 몇 군데에서 이러한 '조선화한 자신'을 글과 그림에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림과 조선화한 자신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3. 제2장 개인의 풍요로움에 대한 회고 부분에서 '취미'란 단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나혜석과 요사노 아키코의 정조론을 비교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두 여성의 정조론 가운데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조는 도덕도 법률도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취미다.(중략)다만 정조는 그 인격을 통일하고 생활을 통일하는데 필요하니 비록 개인의 마음은 자유스럽게 정조를 취미화할 수 있으나 우리는 불행히 나 밖에 타인이 있고 생존을 유지해 가는 생활이 이이다. (나혜석「신생활이 들면서」,『삼천리』1935년2월)

정조는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이며, 기호이며 버릇이다. 정조의 요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조는 아무것도 아니다. 몇 명 남성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부린다.(요사노 아키코「정조에 대해서」,『태양』1915년5월)

여기에서 두 사람은 '취미'란 단어를 가지고 정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취미'를 다루는 내용은 상반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1910년~30년에 취미란 단어가 만들어지고 보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취미란 단어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취미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라카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나혜석의 '취미성'은 과연 무엇인지요? 요사노 아키코의 문학주의와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다시한번 정리해주시길 바랍니다.

4. 맺은말에서 우라카와 선생님께서도 점점 나혜석의 “글들은 ‘공허’인 세계에 대한 주장은 후퇴하고 주르 자신의 고독감이나 취미감을 읊고 있다”라고 정리하였습니다. 나혜석이 문

적인 세계에서 사적인 세계로 그 내용이 전환되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로서 나혜석의 개인적인 사유도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30년대라는 시대상황 다시말해 조선이 미치배국라는 시대적인 배경도 이유로써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제1집 나혜석 예술대모

나혜석

연구의 쟁점과 과제

발행인 박덕화 (수원박물관장)

발행일 2012년 11월 17일

발행처  수원박물관

(443-27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동대로 910

Tel. 031)228-4150 Fax. 031)228-4149

<http://www.suwonmuseum.go.kr>

제작인쇄 블루서(Tel.031-258-9433-2)

